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송미경(서울여자대학교·교수)
- ▶ 위촉연구원 : 신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는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업 중단 전후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에 얽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학업 중단 후 이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복귀 및 사회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다각화 및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아직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안과 밖을 불문하고 모든 청소년들은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의식 위에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 및 특성 파악을 기본으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및 해외 주요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고찰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사업실무자들의 의견도 분석하였습니다.

정책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 요구와 정부의 지원 정책 간의 교집합이 커질수록 그 효율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보고서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어려움을 탐색하고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들려 준 45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꿈드림 담당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구진을 비롯하여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중지를 모으고 깊은 전문적 식견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학계 및 현장 종사자, 정책담당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 1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혁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파악,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헌고찰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추정,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및 현장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학교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가정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비행행동의 높은 가능성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불안정한 경향 등을 보였으나 모든 학교밖 청소년이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갈래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개인마다의 차이는 물론 한 개인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학업중단이라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위기 청소년으로부터 학교밖 청소년의 분리화, 지원정책 담당 부처 및 부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원화,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의 부족 등으로 지원정책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아직 운영 초기 단계로 지역사회 내 연계망 부족,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기관의 접근성 및 시설·기자재의 열악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즉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학교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학교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제시하였고 부수적으로 각 정책 과제당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파악,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추정, 특성 분석
-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주요정책들의 개요 및 전달체계, 수혜 정도 등 검토
 - 현재 수행중인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검토
- 해외 주요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현황, 관계법령,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정책 등 검토
 -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된 시사점 도출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 분석
 -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분석
 -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에서의 지원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정책에서의 개선점 및 체계화 방안 모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의 기본적인 개선방안 제언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 국가통계자료, 기타 정부문서 및 신문기사 등을 고찰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 만 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일대일 심층면접조사 실시
 - 주요 면담내용: 학업 중단 경로, 생활실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도, 만족도 정도 등
 - 면접진행 과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 등의 추천 등을 통해 섭외한 피면담자에게 면접 실시 전 면담·녹음·전사에 대해 청소년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7월~8월에 걸쳐 면접조사 실시, 모든 면접 내용은 녹음·전사후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 설문지는 총 171부임.
 - 주요 설문 내용: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센터의 활동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
 - 설문조사 진행 과정: 7월~8월 사이에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와 전화를 통한 보완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SPSS 20.0을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간담회
 - 현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
- 기타 연구방법
 -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 워크숍 실시 및 이슈브리프 발간

4. 주요결과

-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9세~24세 청소년 중 초·중·고생 약 513만 명 및 고교 졸업생 430만 명을 제외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약 57만 명(574,669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중 초·중·고 학령기간에 속하는 9세~17세까지의 청소년은 약 27만 명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18세~24세까지의 청소년이 약 30만 명이다.
- 선행연구고찰, 청소년 대상 면담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
 -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가정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비행행동의 높은 가능성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불안정한 경향 등을 보였으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갈래를 보이고 있었다.
 - 학업중단 및 지속의 가장 큰 이유는 또래관계로 이 시기의 또래 관계는 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개인마다의 차이는 물론 한 개인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지원정책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는 다양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이라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지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수립 및 전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 위기 청소년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분리화
 - 지원정책 담당 부처 및 부서의 다원화
 -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원화
 -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의 부족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지원 정책이 분절화 양상을 보임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측면을 보면 전국적으로 센터가 개소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센터의 운영은 아직 초기 단계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나타났다.

- 학교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지원센터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쉽지 않으며,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지역마다 이용청소년의 규모에 있어서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모든 지원센터에 동일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됨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곤란을 겪는 곳이 발생하였다.
-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서도 고용의 안정성이나 급여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형식적인 종사자 교육·연수 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최신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거나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서비스가 청소년의 특성과 다소 괴리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기관 접근성 및 시설·기자재 등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에서의 열악함을 보이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에 각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지역 내 인프라 형성, 기관의 준비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정책제언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즉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제시하였고 부수적으로 각 정책 과제당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성인기에서의 성공적인 자립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통합성, 연속성, 충분성, 지속성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 지원서비스 참여 청소년에 대한 자료 축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및 경향 분석, 청소년 학교이탈 위험도 측정도구의 개발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청소년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 청소년 지원 부처의 일원화, 유관 부처 및 부서 간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의 재조정을 위해서는 현장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내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자립준비도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원의 효율성의 제고를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 정책안 마련,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계획의 수립,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의 마련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추정, 특성 분석	5
2)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5
3) 해외 주요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5
4)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 분석	6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6
3. 연구방법	6
1) 문헌연구	6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6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7
4) 기타 연구방법	8
4. 연구추진체계	9
II. 이론적 배경	11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13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13
2) 학교 밖 청소년의 추이 및 규모	15
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	27
1)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27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30
3) 소결	36

Ⅲ.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분석	39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41
1) 여성가족부	41
2) 교육부	49
3) 고용노동부	58
4) 법무부	62
5) 보건복지부	65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68
 Ⅳ.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 사례 분석	 73
1. 미국사례	75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75
2) 주요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지원 정책	78
3) 시사점	86
2. 영국사례	89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89
2)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지원 정책	92
3) 민간 지원 정책 사례 : Centrepont	96
4) 시사점	101
3. 일본사례	105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05
2) 관계 법령: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109
3) 지원 정책	111
4) 시사점	120
4. 호주사례	121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21

2) 정부의 지원 정책	122
3) 시사점	128
V.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원정책의 실태	131
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연구	133
1) 조사 대상 및 방법	133
2) 조사결과의 요약	136
3) 소결	167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분석	170
1) 설문조사 개요	170
2) 현장전문가 간담회 개요	172
3)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분석	173
VI. 정책제언	225
1. 정책제언의 배경	227
2. 정책제언	229
1)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229
2)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33
3)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236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242
5)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	251
참고문헌	257
부록	267

표 목차

〈표 I-1〉 심층면접조사 개요	7
〈표 I-2〉 설문조사 개요	8
〈표 II-1〉 학업중단학생현황(2014년)	15
〈표 II-2〉 연도별 학업중단을	16
〈표 II-3〉 학교 밖 청소년의 추산 방법 및 규모	18
〈표 II-4〉 연령별 인구 및 교급별 학생 수(2014년 4월 기준)	21
〈표 II-5〉 연도별 고3학생 및 졸업생 인구(2007년~2014년)	23
〈표 II-6〉 연도별 고3학생 및 졸업생 인구(2004년~2007년)	24
〈표 II-7〉 연도별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수(매년 4월 기준)	24
〈표 II-8〉 연도별 기타학교(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수(매년 4월 기준)	25
〈표 II-9〉 학교 밖 청소년 인구 추정(2014년)	26
〈표 II-10〉 학교 밖 청소년 유형	29
〈표 III-1〉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의 수혜인원(2013년~2014년)	44
〈표 III-2〉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	45
〈표 III-3〉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유형별 지원 현황(2011년~2014년)	46
〈표 III-4〉 검정고시 과목	51
〈표 III-5〉 2012년 검정고시 연령별 지원자 및 합격자 수	52
〈표 III-6〉 「친구랑」 각 지점별 운영계획	56
〈표 III-7〉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	59
〈표 III-8〉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현황	60
〈표 III-9〉 청소년 자립생활관 지원 내용	63
〈표 III-10〉 학교 밖 청소년 주요 지원정책	66
〈표 IV-1〉 연방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프로그램 I (복지부를 중심으로)-예시	81

〈표 IV-2〉 연방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프로그램 II	
-TRIO programs(교육부를 중심으로)-예시	83
〈표 IV-3〉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전일제 수업 시간	93
〈표 IV-4〉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생의 부등교 수	106
〈표 IV-5〉 초·중·고등학생의 부등교 이유	107
〈표 IV-6〉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중도퇴학자의 수	108
〈표 IV-7〉 초·중·고등학생의 부등교 이유	108
〈표 IV-8〉 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사례	110
〈표 IV-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조사	111
〈표 IV-10〉 공동책임체제에서 각 주체의 역할	125
〈표 V-1〉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134
〈표 V-2〉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질문 영역	136
〈표 V-3〉 학업중단 경로 영역 및 범주	137
〈표 V-4〉 학업중단 경험의 영역 및 범주	146
〈표 V-5〉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의 영역 및 범주	158
〈표 V-6〉 17개 시도별 센터	170
〈표 V-7〉 지역규모별 센터	171
〈표 V-8〉 종사자 성별 및 연령 현황	171
〈표 V-9〉 설문 영역별 주요 내용	172
〈표 V-10〉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기관이용 청소년의 수	173
〈표 V-1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기관이용 청소년의 수(평균)	174
〈표 V-12〉 기관이용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	175
〈표 V-13〉 기관이용 청소년의 학업중단시기	176
〈표 V-14〉 기관이용 청소년의 위기상황	178
〈표 V-15〉 기관이용 청소년의 유형	179
〈표 V-16〉 기관이용 청소년의 발굴경로	181
〈표 V-17〉 기관 운영기간(2015년 9월 현재)	183
〈표 V-18〉 기관별 운영기관 유형	184

〈표 V-19〉 기관별 종사자 수	185
〈표 V-20〉 기관별 평균 예산액	187
〈표 V-21〉 기관별 평균 예산집행액	188
〈표 V-22〉 기관별 서비스 제공 목표인원 및 성과달성인원 평균	190
〈표 V-23〉 부처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제공(안내) 여부	194
〈표 V-24〉 최근 일 년 간 제공한 서비스	201
〈표 V-25〉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202
〈표 V-26〉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전용공간(1, 2, 3순위)	206
〈표 V-27〉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전용공간	207
〈표 V-28〉 기관의 위치 및 시설 수준	209
〈표 V-29〉 지원단계에서의 기관 간 연계 상황	212
〈표 V-30〉 업무 체계화 정도	215
〈표 V-31〉 기관의 홍보방법	217
〈표 V-32〉 업무 만족도 정도	219
〈표 V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255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및 절차	9
【그림 II-1】 연도별 학업중단율(%)	17
【그림 II-2】 학교 밖 청소년 인구 추정(2014년)	26
【그림 I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추진 체계	42
【그림 II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흐름도	43
【그림 III-3】 CYS-Net 운영조직	47
【그림 III-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체계 및 추진 조직	50
【그림 III-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	54
【그림 III-6】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체계 구축 방안	57
【그림 III-7】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57
【그림 III-8】 청년취업인턴제 서비스 전달체계	61
【그림 III-9】 청소년자활인큐베이팅 사업 내용	65
【그림 III-10】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 정책 전달 체계	67
【그림 IV-1】 미국 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의 변동 추이	77
【그림 IV-2】 일본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119
【그림 IV-3】 호주 Flexible Learning Options 체계도	123
【그림 IV-4】 SFYS 지원 대상	128
【그림 V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네 가지 기준	233
【그림 VI-2】 지원 흐름도의 예 1	238
【그림 VI-3】 지원 흐름도의 예 2	239
【그림 VI-4】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241
【그림 VI-5】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245
【그림 VI-6】 지역사회 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흐름도	247

【그림 VI-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기준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	248
【그림 VI-8】 자립준비도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250
【그림 VI-9】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	255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취학률과 진학률은 2014년을 기준으로 교급별에 따라 93~99%에 달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5²⁾).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교우관계나 청소년 활동 등과 같이 이들의 사회적 관계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은 곧 학생이라는 인식이 쉽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사회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은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직 배움 중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으로써 학생인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의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되는 일종의 신분적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반대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그 이유와 유형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문제아”로 낙인찍혀 사회적 냉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라는 체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준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기회를 박탈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낙오자라는 평가를 받도록 한다. 더욱이 이것이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부적응이나 실업, 이탈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 중에는 단순히 학교를 떠나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우관계, 경제적 문제 등 주변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학업 중단 후 이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운

1) 이 장은 백해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이 장의 일부는 연구결과 공유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이슈브리프 제7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2015.6.30.)로 발간되었고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2015. 11.13)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검색일: 2015.2.25.)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단지 몇몇 자료를 통해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연구에 따라 그 추정 규모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 학령인구인 9~19세의 청소년 중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청소년이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예: 오병돈·김기현, 2013;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2013). 이 비율은 다른 서구사회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그 비율이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28만 명에서 36만 명 이상으로 그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2007년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안 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청소년 및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주 이상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해밀’과 ‘두드림’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진로·자립을 지원해 왔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확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보니 정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요구하는 지원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들 간의 접합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책대상자

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과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청소년들의 욕구와 지원 정책 및 전달체계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간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추정, 특성 분석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정도 및 생활 특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을 분류한 후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과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2)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현재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각 정책들의 개요 및 전달체계, 수혜 정도를 살핀 후 정부에서 수행하는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3) 해외 주요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현황, 관계법령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수행 중인 정부 및 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 분석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에서의 지원 실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에 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에서의 개선점 및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앞서 서술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의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과 규모, 유형 및 특성 등을 파악하고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 사용된 자료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 국가통계자료, 기타 정부문서 및 신문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경험 및 사회적 지원경험을 비롯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 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일대일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은 총 45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 등의 추천 등을 통해 피면담자를 섭외하고 면접 실시 전 면담·녹음·전사에 대해 청소년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7월~8월에 걸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면담내용으로는 학업 중단 경로, 생활실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도, 만족도 정도 등이 포함되었고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전사

표 I -1 심층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 등의 추천 등을 통해 피면담자를 섭외하고 면접 실시 전 면담·녹음·전사에 대해 청소년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7월~8월에 걸쳐 면접조사 실시
면담참여자 수	총 45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취업,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면담방식	반구조화 일대일 심층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대상자별 2시간 이내로 총 1~2회 면담 실시
면담자료 기록	녹취 및 전사
면담자	면접조사원(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생 3명)
주요 면담 내용	학업 중단 경로, 생활실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도, 만족도 정도 등

후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I -1>에 제시되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심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에 분포해 있는 지원센터 당 한 명씩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중 분석대상설문지는 총 171부이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즉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내용과 센터의 활동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의 수집은 7월~8월 사이에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와 전화를 통한 보완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SPSS 20.0을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은 <표 I -2>에 제시되었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의 보완을 위해 현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참석자의 동의 아래 녹음 후 전사되었다. 그 내용 역시 결과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1-2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표집틀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표본수	전국 193개소 종사자 중 설문지 미회수 및 거부, 부실응답자 등을 제외하고 171명에 대한 자료만 분석
표집 및 분석방법	표집방법: 유의표집 분석방법: SPSS 20.0을 사용한 통계분석
조사시기	7~8월
주요내용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센터의 활동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

4) 기타 연구방법

(1) 전문가 자문

연구 설계 및 내용의 설정, 설문지 문항의 구성, 정책과제 도출 등 각 연구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자문회의는 경우에 따라 서면검토 방식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2) 정책협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내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각 부처의 주요 지원정책들의 개요 및 전달체계, 수혜 정도를 살피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체계화 방안의 도출이다.

(3)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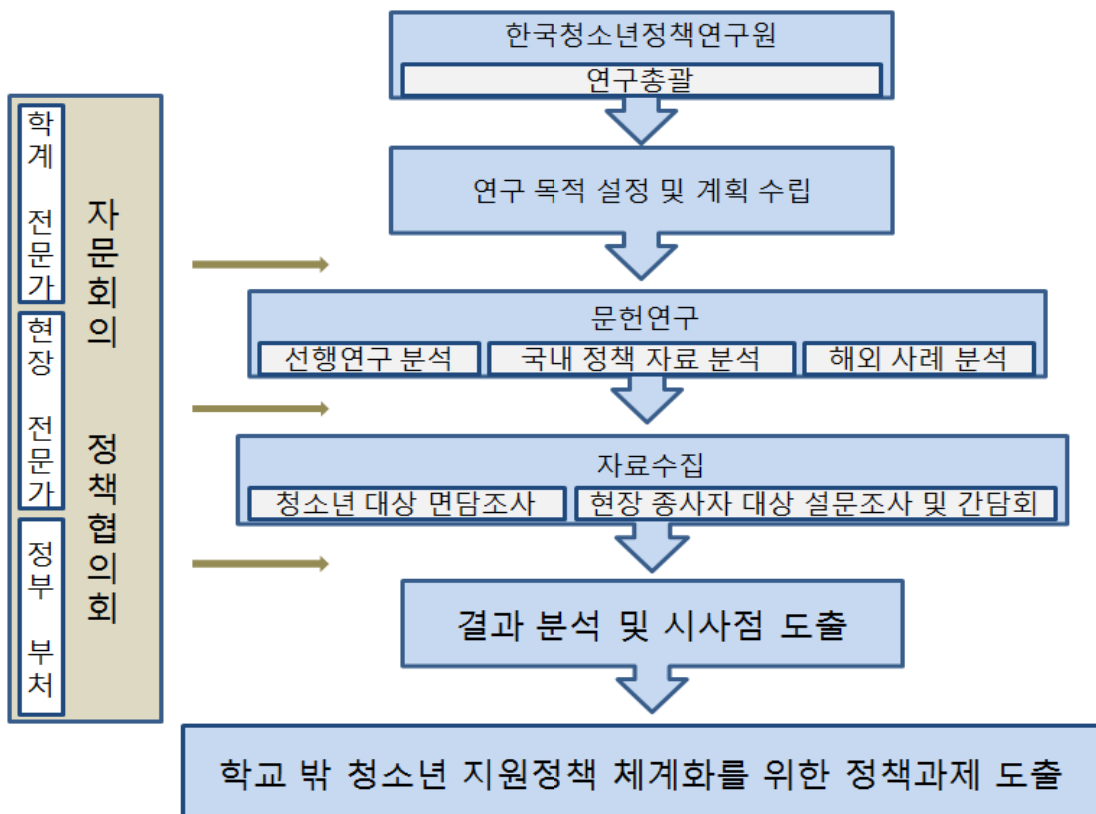
해외 주요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에는 각 해외사례 집필진 및 연구진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보다 타당하고 전문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4) 이슈브리프 발간 및 학회 발표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쟁점 및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의 확산을 목적으로 일부 연구내용을 이슈브리프로 기 발간하고 학회에서 기 발표하였다.

4.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총괄 아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문헌연구 고찰,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 관련 부처 담당공무원과의 정책협의,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분석, 심층 면접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 및 요구도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단계별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림 1-1]은 연구추진체계 및 절차에 대한 도식이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및 절차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

제 II 장 이론적 배경³⁾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현재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는 오랫동안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들 용어 사이에 명확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용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각 용어들은 약간의 개념적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은 그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학업 중단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보다 협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은 학교 재학 중에 중퇴한 청소년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면 학업 중단 청소년은 이 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 현재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은 청소년, 즉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도 학업 중단 청소년과 비슷하게 학교 재학 중 여러 가지 이유로 휴학이나 자퇴 등의 형식을 통해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 학업이 아닌 근로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이지는 않으나 독학이나 홈스쿨링, 검정고시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도 포함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는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용어와 비교해볼 때 가장 포괄적인

3) 이 장은 백해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이 장의 일부는 연구결과 공유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이슈브리프 제7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2015.6.30.)로 발간되었고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2015. 11.13)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

제 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출처: <http://www.law.go.kr/I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 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검색일: 2015. 6.20)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가능해졌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4)에 따르면,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한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되는 이들을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9~24세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국가에서 인정한 초·중등과정에 해당하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한 중퇴 청소년, 근로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무직 청소년 뿐 아니라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취업을 위한 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학업은 지속하되 단지 국가가 규정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http://www.law.go.kr/I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 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검색일: 2015. 6.20)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특히 사회적 지원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은 중학교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다. 물론 초등학교 학령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아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령기 청소년 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80% 이상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이며 학업 복귀율도 2012년을 기준으로 80%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어 이들의 학업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 많고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비해 덜 심각하다. 이에 반하여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 복귀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학령기의 경우 약53%, 고등학교 학령기의 경우 약15% 수준에 머물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2. 9. 4). 또한 이들의 학업중단은 해외출국이 주된 이유인 초등학생과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기 결석이나 학교 부적응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9~24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학교를 그만 두었거나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추이 및 규모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중 약 6만 명 이상이 학교를 떠났다(<표 II-1>). 이는 재적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 수의 비율로 보면 약 0.9%로 그 비율이 높다고

표 II-1 학업중단학생현황(2014년) (단위: 명)

구분	유예					면제				계
	장기결석	질병	미인정 유학	기타	소계	질병	해외출국	기타	소계	
초등학교	486	195	5,271	1,675	7,627	28	8,008	245	8,281	15,908
중학교	3,913	549	4,482	2,912	11,858	17	2,223	-	2,422	14,278
구분	자퇴						퇴학	제적	유예/면제	계
	부적응	질병	가사	해외출국	기타	소계				
고등학교	15,672	1,272	1,572	3,923	6,589	29,028	788	395	171	30,382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http://kess.kedi.re.kr/index>)」에서 각 학교급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추출 후 재구성함.

할 수는 없으나 인원수로 볼 때에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다. 이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를 살펴보면 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인정 유학(해외출국, 약 8천 명) 또는 미인정 유학(약 5천 명)이 주된 이유였다⁵⁾. 이는 학업 중단 초등학생의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중학생의 경우에서도 미인정 또는 인정 유학이 각각 약 4천 여 명과 2천 여 명으로 총 6,700여 명(전체 학업중단 중학생의 약 47%)이 해외로 떠나 유학이 학업중단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결석도 4천 명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 전체 학업중단 중학생의

표 II-2

연도별 학업중단율

(단위: 명, %)

학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04	4,116,195	16,793	0.4	1,933,543	14,165	0.7	1,746,560	24,037	1.4
2005	4,022,801	18,403	0.5	2,010,704	15,669	0.8	1,762,896	23,076	1.3
2006	3,925,043	23,898	0.6	2,075,311	18,968	0.9	1,775,857	27,930	1.6
2007	3,829,998	20,450	0.5	2,063,159	20,101	1.0	1,841,374	32,943	1.8
2008	3,672,207	17,644	0.5	2,038,611	19,675	1.0	1,906,978	34,450	1.8
2009	3,474,395	11,634	0.3	2,006,972	15,736	0.8	1,965,792	34,540	1.8
2010	3,299,094	18,836 (10,404)	0.6 (0.3)	1,974,798	18,866 (16,509)	1.0 (0.8)	1,962,356	38,887 (34,091)	2.0 (1.7)
2011	3,132,477	19,163 (10,771)	0.6 (0.3)	1,910,572	17,811 (15,337)	0.9 (0.8)	1,943,798	37,391 (33,057)	1.9 (1.7)
2012	2,951,995	16,828 (9,192)	0.6 (0.3)	1,849,094	16,426 (14,231)	0.9 (0.8)	1,920,087	34,934 (30,558)	1.8 (1.6)
2013	2,784,000	15,908 (7,900)	0.6 (0.3)	1,804,189	14,278 (12,055)	0.8 (0.7)	1,893,303	30,382 (26,459)	1.6 (1.4)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2) 학년도는 조사년도임(2013년도 학업중단자는 2013. 3. 1 ~ 2014. 2. 28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3. 4. 1 기준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 퇴학,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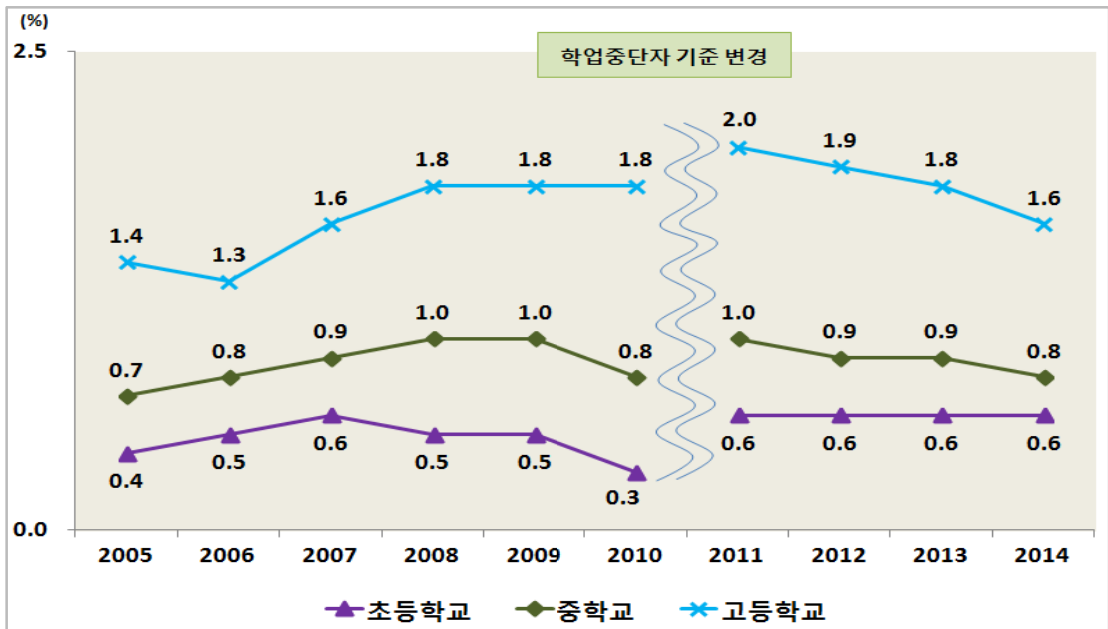
6)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1 ~ 2013년의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출처: 교육부(2014.8.29),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참고자료, p.22

5) 인정유학은 체육특기생으로 추천되거나 외국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그리고 이민,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 해외 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따라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해당국가 내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를 의미하며, 미인정유학은 의무교육대상자가 합법유학(인정유학) 이외의 유학을 하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약 27%를 차지함으로써 상당수의 청소년이 장기 결석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장기결석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래에 서술한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사유에 비추어 볼 때 학교 부적응이 주된 사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고등학생 중에는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약 4천 명(전체 학업 중단 고등학생의 약 13%)으로 그 비율이 급감한 대신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약 52%(15만 여 명)를 차지하여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증가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도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발생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다(<표 II-2>).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0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듯 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0.6%로 증가한 후 현재까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는 200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에 1%에 이르렀고 그 이후 2010년(0.8%)을 제외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2014년에 다시 0.8%로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여 2%에 이르렀으나 2012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출처: 교육부(2014.8.29),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참고자료, p.22

【그림 II-1】 연도별 학업중단율(%)

2014년에는 1.6%까지 감소하였다. 미인정 유학 및 해외출국이 학업중단사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학교부적응이 학업중단의 중요한 사유로 대두되고 있는 중·고등 학생의 경우 최근 들어 학업중단율이 다소나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그림 II-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6만 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들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총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단지 몇몇 자료를 통해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최근에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 국가통계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표 II-3>). 첫 번째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연구(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2013)에서는 전체 학령인구 중 실제 학생 수와 외부 유입인구 수 및 기타학제 학생 수를 제외한 수치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령인구는 약 712만 명이고,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약 672만 명으로 약 40만 명의 차이가 나며, 이 중 외부 유입 인구와 기타 학제 학생 수 등을 제외하면 36만 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이 중 소속이 파악되지 않은 청소년은 약 28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산정되었다(윤철경 외, 2013). 학교 밖 청소년 36만 명은 초·중·고등학생의 전체 학령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이 중 소속이 파악되지 않은 28만 명은 약 4%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규모 추정은 고등학생 연령까지로 한정하여 그 이후부터 만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오병돈, 김기현(2013)은 인구추계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연령 인구에서 학생 수를 제외하는 방식과 가구표집을 활용한

표 II-3 학교 밖 청소년의 추산 방법 및 규모

(단위: 명)

연구	추산 방법	추산 규모
윤철경 외(2013)	- 전체 학령 인구 중 실제 학생 수와 외부 유입인구 수 및 기타학제 학생 수를 제외	36만 명
오병돈, 김기현(2013)	- 인구추계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연령 인구에서 학생 수를 제외 - 가구표집을 활용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바탕으로 전체 규모를 추정	36만 명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2013)	- 최근 5년간 학업 미복귀자 현황을 참조하여 누적된 학업중단 청소년 수에서 학업 복귀 청소년 수를 제외	20만 명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규모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만 9~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약 36만 여 명(366,732명, 해당 인구의 9.72%)으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치는 윤철경 등(2013)의 연구에서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외부 유입 인구와 기타 학재 학생 수를 제외한 수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방식에도 한계점이 따른다. 우선 가구표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방식에서는 연구자의 지적처럼 표본의 규모가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추정이 가능할 만큼 충분하지 않고 가정 내 학교 밖 청소년이 거주하더라도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보고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오병돈, 김기현, 2013). 다음으로 인구추계정보와 학생 수를 활용한 규모추정은 가구조사를 활용한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방식이지만 실제 인구가 아닌 추계 인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오병돈, 김기현, 2013). 또한 교급별로 특정 연령 이상 또는 이하의 경우 각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교육통계연보의 한계점에 따라 연령별 학생 수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즉 교육통계연보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만 11세 이하의 학생은 11세, 10세, 9세 등 각 연령별 인원수가 보고되지 않고 11세 이하 학생의 총 수만 보고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인 중학생의 경우도 19세, 20세, 21세 등 각 연령별 인원수가 보고되지 않고 19세 이상 총 학생 수만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령별 학생 수를 집계하는데 있어서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연령별이 아닌 전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후기, 즉 19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학생 수를 추정하고 그 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청소년 후기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포함했다면 학교 밖 청소년 수를 과대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의 또 다른 방법은 최근 5년간 학업 미복귀자 현황을 참조하여 누적된 학업중단 청소년 수에서 학업 복귀 청소년 수를 제외한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여 추산한 규모는 약 20만 명(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재인용, 2014, p.14)이다. 이 방식은 전체 청소년 인구에 대한 정보가 생략되고 학생 수만을 바탕으로 추정치를 제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보다 정확히 추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의 추정 방식과 규모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령인구 수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제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생 수를 제외한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전수 조사과정을 거침으로써 연령 별 인구와 학생 및 졸업생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선행연구의 추정방식에서의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최근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최근 자료인 2014년도 국가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2014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9~24세 청소년은 약 천 만 여 명(10,043,241명)이며⁶⁾ 동일한 연령대에서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모두 약 780만 명(7,757,428명)이다(<표 II-4>). 이 두 수치 사이의 차이는 약 220만 명으로 이들을 모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의 인구 수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간의 차이를 곧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로 추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가통계의 한계점에 따라 연령별 인구 및 학생 인구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통계연보에서는 교급별로 특정 연령 이상 또는 이하의 경우 각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해당 연령 이상 또는 이하에 속하는 집단인원의 총 수 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에는 정원 외 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신분의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령별 학생 수를 집계하는데 있어서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안에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실제 국내거주자보다 더 많은 인구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한계점으로만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고등학교 졸업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데 그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9~24세 청소년 중 초·중·고등학생 이외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를 별도로 추산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중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추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만 9~24세에 해당하는 전체 청소년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소년 중에서 졸업생을 추려내야 한다. 현재의 자료를 바탕으로 졸업생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 연령인 18세를 기준으로 하여 18세 미만과 18세 이상으로

6)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2015.2.24.)

표 II-4 연령별 인구 및 교급별 학생 수(2014년 4월 기준)

(단위: 명, %)

나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기타 학제생	총 학생 수(%)	주민등록 인구
9세	456,716				863	457,579(99.43)	460,213
10세	475,187				1,012	476,199(96.87)	491,594
11세	406,880	2,192			1,675	410,747(83.96)	489,215
12세	63,806	456,608			2,836	523,250(97.26)	537,978
13세	807	602,485			3,872	607,164(97.43)	623,208
14세	569	597,520	3,547		3,936	605,572(96.22)	629,371
15세		54,452	547,674		3,108	605,234(95.73)	632,211
16세		1,207	618,953		3,037	623,197(93.47)	666,765
17세		160	614,729	7,177	3,786	625,852(92.43)	677,100
18세		63	52,489	412,712	15,568	480,832(68.34)	703,591
19세		224	1,479	494,101	18,232	514,036(72.22)	711,715
20세			187	469,019	20,666	489,872(69.26)	707,255
21세			314	442,892	26,690	469,896(64.83)	724,835
22세				358,894	25,798	384,692(54.37)	707,485
23세				258,410	20,742	279,152(43.22)	645,932
24세				186,770	17,384	204,154(32.16)	634,773
계	1,403,965	1,714,911	1,839,372	2,629,975	169,205	7,757,428(77.24)	10,043,241

주 1)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 2014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학생 연령은 동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함.

2) 기타 학제생에는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 학생들이 포함됨.

출처: 행정자치부(2014).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t.jsp).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http://kess.kedi.re.kr/index>),에서 각 학교급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추출 후 재구성함.

나누어 각 연령대에서의 학생 수와 졸업생 수를 계산해야 한다. 이에 9~24세 청소년 중 초·중·고 등 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수는 약 513만 명(5,127,453명)인데 이들 중 먼저 17세 이하의 청소년 중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초·중·고등학생 연령대인 9~17세이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에서 18세 이상이면서도

중·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99,836명을 제외 한 수로 총 4,927,617명이다. 9~17세 연령대의 주민등록상 인구인 약 521만 명(5,207,655명) 중 이들을 제외한 약 28만 명(280,038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간주된다. 이는 해당 연령 인구의 약 5.4%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28만 명 안에 현재 17세 이하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9~17세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청소년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2015년 현재 17세 이하이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이들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교육통계연보(각 연도)에 나타난 2012년 15세 이하 고등학교 3학년생과 2013년 16세 이하 고등학교 3학년생⁷⁾의 수, 그리고 이들의 졸업률, 즉 2013년과 2014년의 졸업률을 살펴보았다. 2012년의 15세 이하 고3학생의 수는 각각 83명, 2013년의 16세 이하 고3 학생 수는 5,09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이 졸업한 해(2013년과 2014년 졸업률)의 전체 고등학생 졸업률은 각각 99.90%와 99.89%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현재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해당연도 전체 고등학생의 졸업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13년 16세 이하 졸업생은 83명, 2014년 17세 이하 졸업생은 5,086명으로 총 5,169명으로 추산된다(<표 II-5>). 따라서 이들은 초·중·고등학생 연령대인 9~17세에 해당하지만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9~17세 청소년 약 520만 명 중 초·중·고등학생 490만 명과 졸업생 5천 명을 제외하면 약 27만 명이 해당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18세 이상인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와 졸업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졸업생은 약 434만 여 명(4,341,085명)이고 해당 기간 동안의 졸업률 평균은 99.86%이다. 그러나 앞서 연령에 따른 교급별 학생 수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연도별 졸업생은 그 당시 18세 뿐 아니라 그 전후의 연령대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교육통계연보에서는 졸업생들의 당시 연령을 따로 보고하고 있지 않아 현재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결국 일련의 단계를 거친 추정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현재 청소년들 중 각 해당연도의 고등학교 3학년생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중 현재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수를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거친 청소년 중 현재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2008년에는 만 17세와

7) 2012년 15세 이하 고등학교 3학년생과 2013년 16세 이하 고등학교 3학년생이 학교를 중도탈락하지 않았다면 2015년에 17세 이하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된다.

표 II-5 연도별 고3학생 및 졸업생 인구(2007년~2014년)

(단위: 명, %)

연도	고3 학생 수	이듬 해 졸업자 수	졸업률(%)	고3 학생 중 현재 만 24세 이하 청소년 수	24세 이하 졸업자 추정치
2007	583,325	581,921	99.76	558,523	557,183
2008	577,167	576,298	99.85	562,895	562,051
2009	634,336	633,539	99.87	634,137	633,313
2010	649,515	648,468	99.84	649,404	648,365
2011	637,536	636,724	99.87	637,536	636,707
2012	631,835	631,197	99.90	631,835(83)	631,203(83)
2013	633,676	632,938	99.89	633,676(5,092)	632,979(5,086)
계	4,347,390	4,341,085	99.86	4,308,006	4,301,800

주 1) 기타 학제 학생 및 졸업생은 이 자료에서 제외됨.

2) 고3 학생 중 현재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 2007년~2010년까지는 각 연도별로 고 3 학생 중 17세 이하, 18세 이하, 19세 이하, 20세 이하인 학생 수를 의미함.

3) 2011년부터는 고 3 학생 중 만 21세 이상 학생 수가 연령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총 학생 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참고로 2012, 2013년 21세 이상 고 3 학생은 각각 159명과 121명이었음.

4) 졸업률(%)=(고3 학생 수/이듬 해 졸업자 수)×100

5) 24세 이하 졸업자 추정치=고3 학생 중 현재 만 24세 이하 청소년 수×해당 연도 졸업률

6) 2012년~2013년 () 안의 수치는 2012년도 만 15세 이하 고3학생 수 및 이듬해(2013년) 졸업자 추정치, 2013년도 만 16세 이하 고3학생 수 및 이듬해(2014년) 졸업자 추정치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009년에는 만 18세, 2010년에는 만 19세와 같이 해마다 연령을 1세씩 증가시키고 이 연령대 이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거친 청소년들 중 현재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추려내기 위함이다. 그 결과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고 3 학생이었던 이들은 모두 4,347,390명이었으며, 이 중 현재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수는 4,308,006명이다. 또한 이들의 졸업률이 동 기간 동안 고3 학생의 졸업률(99.76~99.90%)과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각 연도별 고3 학생이었으면서 현재 24세 이하인 이들의 수에 해당 연도별 졸업률을 적용해 총계를 내보면 4,301,80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앞서 추산한 현재 17세 이하 청소년 5,086명을 제외한 4,296,714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현재 24세 이하 청소년 중에는 2008년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생의 수와 이듬해 졸업생 수를 바탕으로 졸업률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졸업률은 99.71%~99.74%였다. 한편 2004년에서 2006년 동안

표 II-6 연도별 고3 학생 및 졸업생 인구(2004년~2007년)

(단위: 명, %)

연도	고3 학생 수	이듬 해 졸업자 수	졸업률(%)	고3 학생 중 현재 만 24세 이하 청소년 수	24세 이하 졸업자 수
2004	570,769	569,272	99.74	2	2
2005	569,844	568,055	99.69	5,345	5,328
2006	573,008	571,357	99.71	5,985	5,968
계	1,713,621	1,708,684	99.71	11,332	11,299

주 1) 기타 학제 학생 및 졸업생은 이 자료에서 제외됨.

2) 고3 학생 중 현재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 2007년~2010년까지는 각 연도별로 고 3 학생 중 17세 이하, 18세 이하, 19세 이하, 20세 이하인 학생 수를 의미함.

3) 졸업률(%)=(고3 학생 수/이듬 해 졸업자 수)×100

4) 24세 이하 졸업자 수 = 고3 학생 중 현재 만 24세 이하 청소년 수 × 해당 연도 졸업률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고 3 학생이었던 이들 중 현재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즉 2004년에 14세 이하 고3 학생, 2005년에 15세 이하 고3 학생, 2006년에 16세 이하 고3 학생이었던 이들은 11,332명이고 이들의 졸업률이 동 기간 동안 전체 고3 학생의 졸업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이들 11,332명 중 11,299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표 II-6>). 이를 앞서 산출해낸 2008년~2014년 고등학교 졸업생 중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4,301,800명에 더하면 총 4,313,099명이 고등학교 졸업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졸업생 수를 환산함에 있어서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등 기타학제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졸업생 수를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 수치 역시 졸업생 수에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령에 따른 고 3 학생 및 졸업생 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수학교의 경우 매년 2,000명 이상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있으나(<표 II-7>)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이 중 대략 몇 명이나 만 24세 이하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대략적인 추정만이 가능한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신체 및 정신 발달상황

표 II-7 연도별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수(매년 4월 기준)

(단위: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졸업생 수	2,002	2,231	2,301	2,428	2,537	2,536	2,669	16,704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상 동학년 일반 고등학생의 연령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비율이 99.09%였던 만큼 특수학교의 경우는 그 비율을 이 보다 좀 더 보수적인 선에서 추산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임의로 95%선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졸업생 16,704명의 95%인 약 16,000명(15,869명)으로 추산하고자 한다.

기타학교의 경우는 고등기술학교와 각종 학교의 고등학교과정에서만 고등학교 과정을 배운다. 고등기술학교의 경우 학력 인증이 되지 않고 각종학교의 경우는 학력이 인정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며 학력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통해 별도로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고등기술학교 및 일부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학력이 인증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학력이 인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배웠으므로 각종학교의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임의 분류하였다. 이들 학교의 졸업생 수를 보면(<표 II-8>), 2008년에서 2014년까지 15,989명이 졸업하였다. 이들 중 현재 만 24세 이상인 이들이 있는 만큼 현재 24세 이하인 졸업생만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 이들 역시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수준(약 95%선)에서 전체 졸업생의 졸업률을 가정하여 현재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을 약 15,189명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이 중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증 받은 경우를 고려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자를 졸업생의 약 80%선으로 임의 추정한 결과 12,151명을 고등학교 학력 취득자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9세~24세 청소년 약 천 만 명 중 초·중·고생 약 513만 명 및 고교 졸업생 430만 명을 제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약 57만 명(574,669명)에 이른다. 이 중 초·중·고 학령기간에 속하는 9세~17세까지의 청소년은 약 27만 명(274,952명)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18세~24세까지의 청소년이 약 30만 명(299,717명)으로

표 II-8 연도별 기타학교(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수(매년 4월 기준) (단위: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졸 업 생 수	고등기술학교	1,114	565	438	437	431	435	421	3,841
	각종 학교	13	2,229	2,119	2,255	2,210	824	2,498	12,148
	계	1,126	2,794	2,557	2,692	2,641	1,259	2,919	15,989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추산된다(<표 II-9>).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I-2]와 같다.

표 II-9 학교 밖 청소년 인구 추정(2014년)

(단위: 명)

구분		연령대		
		9~17세	18~24세	계(9~24세)
만 9~24세 청소년 수(주민등록 인구)		5,207,655	4,835,586	10,043,241
초·중·고 과정 재학생 수		4,927,617	199,836	5,127,453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수(추정치)	고등학교	5,086	4,308,013	4,313,099
	특수학교	—	15,869	15,869
	각종 학교	—	12,151	12,151
	소계	5,086	4,336,033	4,341,119
학교 밖 청소년 수(추정치)		274,952	299,717	574,669

주 1) 9~17세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졸업생은 18~24세 졸업생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자료 사정상 별도의 추정은 하지 않았음.

2) 학교 밖 청소년 수=만 9~24세 청소년 수-(초·중·고 과정 재학생 수 +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수)



【그림 II-2】 학교 밖 청소년 인구 추정(2014년)

2.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

1)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와 목적은 다양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떠나 근로현장에 뛰어들기도 하고 학습이나 교우 관계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그만두기도 하며, 대안학교나 유학 등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찾아 떠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일으킴으로써 징계 차원에서 학교로부터 배제되기도 한다.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느냐에 따라 이들의 삶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예컨대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선택한 청소년들은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학생”의 일상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근로를 선택한 이들은 노동자로서 성인과 비슷한 형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교육이나 훈련, 근로 중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불규칙한 생활을 하거나 하루의 대부분을 여가활동에 할애할 수도 있다.

이렇듯 학교를 떠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후 어떠한 삶의 형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생활태도나 사회적 관계 등 개인의 내·외적 환경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또 다시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마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저마다의 특성을 지닌 여러 갈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에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유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동선, 이상준(2009)은 생활영역에 기초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나누고 정착형은 진학 및 진학준비형, 취업형, 직업 훈련 및 취업준비형으로, 비정착형은 시설 수용형, 방치 비행형, 방치 은둔형으로 세분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원의 필요 정도에 따라 도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으로 나누기도 하였는데 요구 수준이 낮은 집단은 관련 정보 제공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것과 같이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은 집단을 의미한다. 반면 중간 집단은 약 3~6개월 정도의 통합적 지원과 이후 교육·직업·진로를 위한 위탁 연계 서비스가 요구되는 집단을, 요구 수준이 높은 집단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심리적 안정 및 치유와 이후 자립·자활 등을 위한 교육·직업·진로 프로그램으로의 연계가 필요한 집단을 의미한다(최동선, 이상준, 2009).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따라 학습형, 취업 및 알바형, 니트(NEET)형으로 나누고 니트형은 다시 은둔형, 배회형, 소일형으로 세분화하였다. 학습형은 검정고시 준비, 학원수강, 기술훈련, 대안교육시설 재학 등 현재 무엇인가 배우고 있는 유형이며, 취업 및 알바형은 어떤 형태로든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유형이다. 반면 니트형은 학습도 근로도 하지 않고 있는 이들로 그 중에서 은둔형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청소년, 배회형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청소년, 소일형은 주로 놀면서 가끔씩 일을 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에 비행 경험 및 장애 유무를 또 다른 유형화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비행형과 장애형을 추가하였다(윤철경 외, 2010).

윤철경 등(2013)은 학업 중단 이후의 경험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학업형, 직업형, 니트(NEET)형, 비행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학업형은 정규학교에 복학하거나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는 청소년, 직업형은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근로현장에서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청소년, 니트형은 교육·훈련·근로 등에 종사하지 않고 혼자 또는 또래들과의 놀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비행형은 가출하여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윤철경, 2013).

김범구, 조아미(2013)는 잠재계층 분석 결과를 통해 학업 중단이후의 계획 여부에 따라 미결정 중심형과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으로 분류하였다. 미결정중심형은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들이며, 미래준비형은 학력 취득과 함께 취업 및 직업훈련 준비에 대한 특정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유형, 진학준비형은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가 강해 복학을 준비하는 유형이다(김범구, 조아미, 2013).

오병돈, 김기현(2013)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다른 연구들과 달리 연령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행복도, 사회성, 자율성, 청소년활동 경험, 가정생활 만족도, 근로 경험, 가구소득 등을 기준으로 전·중기 청소년 집단(9~18세)은 행복추구형, 취약계층형, 사회활동형, 부적응형, 은둔형으로 유형화하였고 후기 청소년 집단(19~24세)은 불화형, 취업활동형, 사회활동형, 은둔형, 취업실패형으로 유형화하였다(오병돈, 김기현, 2013).

이상과 같이 최근의 선행연구들 안에서 나타난 유형들을 보면 유형화의 주된 기준이 진로 결정 영역 및 정도와 그에 따른 경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학교를 떠난 이후의 진로 결정 영역 및 정도가 이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학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들은 학업 복귀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들의 학업 복귀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라 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할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 근로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들 역시 이들의 요구도와 준비도에 맞게 직업훈련 및 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탐색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들을 토대로 진로 결정과 생활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을 유형화 하였다(<표 II-10>). 즉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진로 결정 여부에 따라 진로 결정형과 미결정형으로 나누고 결정형은 결정한 진로의 영역에 따라 학업형과 근로형으로, 미결정형은 현재 생활 특성에 따라 유예형과 비행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청소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상황, 예컨대 학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에 놓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이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II-10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진로 결정형		진로 미결정형	
학업형	근로형	유예형	비행형
학력 취득을 주목적으로 대안학교, 학원 등과 같은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는 청소년	근로 및 취업을 주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거나 근로(경제활동)를 하는 청소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일상을 보내는 청소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통된 특성과 더불어 앞서 제시한 각 유형에 따른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 특성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이들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의 열악성을 들 수 있다. 금명자(2008)가 선행연구들의 개관을 통하여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생태학적 모형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정 내 갈등의 심화, 경제적 상황의 악화, 가족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지지에 대한 약화 등 가정 내 요인과 교권의 약화, 학업에 대한 의미 및 흥미의 상실, 교사와의 갈등 심화 등과 같은 학교 내 요인이 맞물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학업중단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일수록 가출과 학업중단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환경 중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으로는 가정과 학교, 또래관계를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심리·정서적 측면은 학교 중단의 한 요인이 되는 내적 영역에 속한다 하겠다.

① 외적 환경: 가정 영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정은 해체와 재결합 등의 과정 속에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지지체계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최상근, 양수경, 남기곤(2010)은 중·고등학생과의 비교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에 비해 부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던 반면 부모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2014)은 청소년의 학업중도 포기 과정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 가족해체, 학대 및 방임과 같이 가정 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상담현장에서 상담자들이 만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모습에 대한 분석 연구(오혜영, 박현진, 공운정, 김범구, 2013)에서도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나 가족 등 기본적인 지지체계가 약하며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철경 등(2013)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 중 부모 간 불화나 가정폭력 등 가정 불화를 경험한 경우가 50.6%, 부모의 사망·별거·이혼·재혼·가출 등 가정 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가 44.9%, 부모의 실직·사업실패·병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36.5%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모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② 외적 환경: 학교 영역

열악한 가정환경과 맞물려 이들의 학교생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들에 비해 재학 중 문제행동, 부적응적 학습태도가 높았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인식정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는 낮았으며(최상근 외, 2010), 대체로 기초학습이 부족하고 공부나 학교에 대한 흥미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오혜영 외, 2013). 또한 이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답답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무단결석과 같은 일탈 행동을 보이다 중국에는 학교를 떠나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가족 부양을 위해 학교를 떠나는” 것 외에도 “학교 부적응”, “학교로부터 자퇴를 강요받는” 것을 의미하였다(오정아 외, 2014). 학교로부터 자퇴를 강요받았다는 것은 비록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교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데 이를 학교가 수용하지 않아 결국 학교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홀가분함이나 자유로움, 삶의 여유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조아미, 이진숙, 2014) 다른 한편으로는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김강호, 김은석, 안선영, 금지현, 2013). 이는 교육기회의 상실로 인해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③ 외적 환경: 또래 영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특징적인 행태를 보였다. 일반 학생에 비해 이들이 어울리는 또래들은 문제행동 정도가 높았고(최상근 외, 2010), 또래와 더불어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오정아 외, 2014).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약 73.2%가 비행을 경험하였다는 연구결과(윤철경 외, 2013)는 이들의 일탈행동이 드문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일탈 행동을 통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따돌림, 금품갈취, 폭행 등 폭력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 27%에 이르기기도 하였다(윤철경 외 2013).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거나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찍히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도 발견되었다(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7).

④ 개인 내적 영역: 심리·정서 영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심리 및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자존감·자기효능감·통제력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거나(최상근 외, 2010) 규율이나 규칙 준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분노, 우울 정도가 높으며 심한 감정기복을 보인다고 보고하는 경우(오혜영 외, 2013; 전경숙, 2013)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학습과 교사 및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비행행동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개인의 내적 상태 뿐 아니라 외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상호작용하면서 청소년들은 학교에 머물지 못하고 지지체계가 단절된 곳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동일한 환경과 심리적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학교를 나오게 된 이유 및 목적, 현재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미래에 대한 준비 상태에 따라 보다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유형별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 본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별 특성

① 진로결정: 학업형

가장 먼저 학업을 지속하는 쪽으로 진로를 결정한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42%)을 차지하였다(윤철경 외 2013). 이들은 양부모 가정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유형에 비해 가족구성 변화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일수록, 학교를 그만 둔 시점이 이룰수록, 대안교육을 위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일수록, 학교에 다닐 당시 학업성적이 하위권인 경우보다는 중위권 이상인 경우일수록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비행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윤철경 외 2013). 정규학교를 떠나 대안교육기간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를 보면 비교적 낮은 연령대에서 지나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기 위해, 또는 부모 등 가족들의 바람이나 권유로 정규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박주호, 신태석, 이은경, 김정덕, 2014) 학교 밖으로 떠밀려 나왔다가보다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그만 둔 경우로 볼 수 있다.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쉼터와 같은 청소년 시설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해 자존감이나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남으로써(박주호 외, 2014) 상대적으로 양호한 심리상태를 보였다. 이는 앞서 서술한 윤철경 등(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형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김범구, 조아미(2013)는

윤철경 등의 연구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학을 준비하는 유형이 14.6%로 미결정중심형이나 미래준비형 등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고 연령이 낮을수록, 즉 17-19세 청소년보다는 15-16세 청소년일수록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았다. 그러나 김범구, 조아미(2013)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미래준비형이 취업과 동시에 학업지속에 대한 준비를 하는 복합형임을 고려해 볼 때 학업지속에 대한 의지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학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어떤 형태로든 학업에 대한 지속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환경이 안정적이고 부모의 지원이 있으며 개인적 특성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문제행동이 적었으며 학생 신분일 당시 학업 성적이 낮지 않았다면 학업 지속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진로결정: 근로형

학교를 떠나 근로현장으로 뛰어든 청소년들은 학업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았다. 오병돈, 김기현(2013)의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 즉 19세 이상인 청소년 중에는 취업활동형이 약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김범구, 조아미(2013)의 연구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준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미래준비형의 경우도 타 유형에 비해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윤철경 등(2013)의 연구에서도 취업을 우선시하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연령대의 청소년에게서 많았으며 학교를 그만 둔 시기도 고등학교 때인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또한 환경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고(서정아 외, 2007)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안 계신 가정인 경우가 많았으며 학업형에 비해 가족구성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윤철경 외, 2013).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이들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며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 학업보다는 취업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 중에는 학업 병행을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경우 복학보다는 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력취득이 우선시되었다(김범구, 조아미, 2013).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노력은 많은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정규 학교 중퇴 후 직업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취업이나 진로 개척에 있어서 학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려는 노력(서정아 외, 2007)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진로미결정 청소년들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진로 결정 후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서정아 외, 2007).

그러나 같은 근로형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노동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이직이 잦았으며 이들이 받은 보수는 기초생활 유지 및 소비활동을 충당하는데 급급하였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키지 못한다(최동선, 이상준, 2009).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형 청소년들은 학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연령대가 비교적 높고 경제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가정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경우가 많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학력 취득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체계적인 준비 속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되어 가는 반면 별다른 준비 없이 단순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거나 미래를 개척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을 보였다.

③ 진로미결정형: 유예형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 중 진로에 대해 막연함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지지체계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매우 부족하다(최동선, 이상준, 2009). 이 같은 청소년들은 아직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없으므로 유예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김강호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4.6%가 학업이나 취업을 결정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일거리도 하지 않는 유예형의 특성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중학교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많았다. 유예형과 유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결정중심형은 학교를 그만 둔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 많았는데 특히 15-16세 정도로 연령이 비교적 낮은 남자 청소년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김범구, 조아미, 2013). 은둔형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은 유예형과 부분적으로 일치될 수 있는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고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뿐 아니라 사회성, 자율성, 행복도의 정도가 낮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은둔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오병돈, 김기현, 2013).

윤철경 등(2013)의 연구에서 니트형으로 분류된 이들은 여기서 의미하는 유예형과 유사하다. 니트형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개인의 의지보다는 가정형편 등 주변상황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나 학업성적이 낮은 19세 이상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 변화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니트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9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앞서 서술한 연구결과(김강호 외, 2013: 김범구, 조아미, 2013), 즉 유예형은 연령대가 낮은 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났다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다. 그러나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인 경우는 학교를 그만 둔 직후의 해방감으로 인하여 일시적 유예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19세 이상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유예는 좀 더 만성화된 경우인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업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이 좋지 않고 사회성과 자율성이 낮으며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예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들을 위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역시 일시적 해방감으로 인해 진로를 유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린 연령대에서 보이는 일시적 유예라 하더라도 이것이 만성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④ 진로미결정형: 비행형

경기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경숙, 2013)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담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일탈 및 비행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탈 및 비행에 쉽게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중학교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일탈 및 비행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중학교 연령대의 청소년들 중 비행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윤철경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전경숙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고등학교 연령대 이상의 청소년들에게서 비행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가 안 계신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았고 학업성적도 낮은 경우가 많은 반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3).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부모와의 불화, 사회적 차별 및 냉대를 겪고 그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권해수 외, 2007) 이는 이들이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심리적 상태 역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비행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의 비행이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권해수 외, 2007). 이는 쉼터나 가출팸에 거주하는 학교 중단 청소년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보호체계 밖으로 밀려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연루되고 이러한 비행이나 범죄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박주호 외, 2014)와도 일치한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 부적응과 맞물려 비행과 일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비행과 일탈은 학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교 중단은 비행행동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비행형 청소년들의 연령대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비행문제를 많이 호소하였으나 학교를 그만 둔지 오래된 경우에는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대에 많이 나타났다.

3) 소결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열악한 가정환경, 학습과 교사 및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비행행동의 높은 가능성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불안정한 경향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의 환경과 심리적 상태가 동일하게 열악한 것은 아니다. 학교 중단의 이유와 목적, 현재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미래에 대한 준비 상태에 따라 보다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몇몇 선행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진로 결정 여부 및 영역과 생활특성에 따라 진로 결정형과 미결정형으로 나누고 결정형은 학업형과 근로형으로, 미결정형은 유예형과 비행형으로 나누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업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부모의 지원이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적었다. 또한 학생 신분일 당시 학업 성적도 그리 낮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중 가장 양호한 상황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비해 다른 유형들은 가족의 지원이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근로형

청소년들은 연령대가 다소 높고 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지만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환경이나 심리적 상태가 개선의 여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유예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가정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학업성적이 낮고 사회성과 자율성이 낮으며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유예형에는 다른 유형과 달리 학업을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부적응과 맞물리면 비행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의 경우 학교 중단 이전에 이미 비행과 일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학교 중단은 비행과 일탈행동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각 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의 특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소년들 중에는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유형에 속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갈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진로 결정 수준이 높고 그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수록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개인적 특성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므로 진로 및 미래에 대한 준비와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한 요구는 개인별 특성 및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는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제 III 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 III 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분석⁸⁾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이다. 이 절에서는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정책들을 지원내용 및 절차, 전달체계, 수혜 정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13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교육부와 공동으로 수립한 데 이어서 2015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중심으로 자립·자활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인 생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과 가출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쉼터 사업 역시 부분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은 학업중단 사전 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되었다(여성가족부, 2015. 5. 12). 특히 학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는데⁹⁾ 교육부와의 협업체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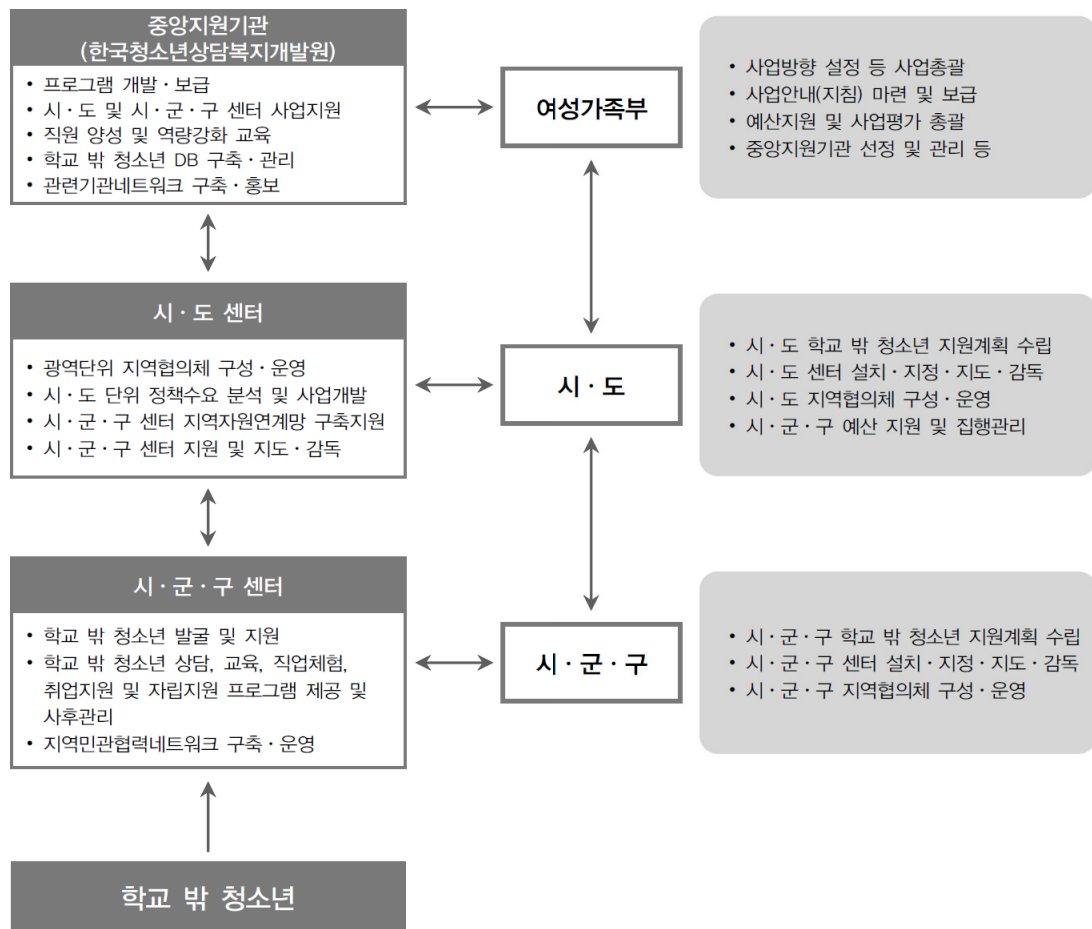
8) 이 장은 백해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이 장의 일부는 연구결과 공유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이슈브리프 제7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2015.6.30.)로 발간되었고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2015. 11.13)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9) 교육부와의 협업체계에 대해서는 2) 교육부의 지원 정책 현황 절 마지막 부분에 서술하였다.

내용 이후에 서술하였다. 여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는 주요 지원정책들을 살펴보았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¹⁰⁾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2007년부터는 사회진입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 프로그램, 2009년부터는 학업복귀지원 프로그램인 해밀을 제공하여 왔다. 이후 2013년부터는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년도 청소년사업안내(Ⅲ)(p.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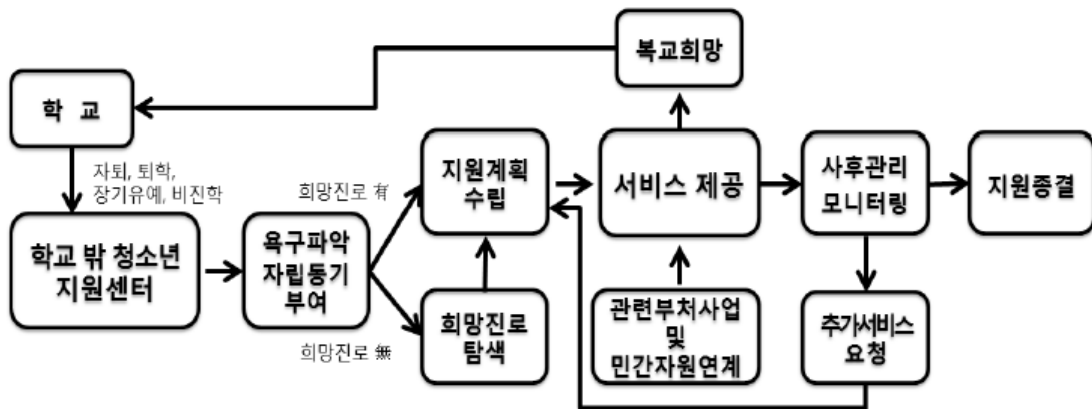
【그림 I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추진 체계

10)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주요 서비스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칭하였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로 2015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였다. 지원센터는 개인적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현재 16개 시·도 184개 시·군·구에서 총 200개소에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요 대상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며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을 위해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5a).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추진체계를 보면([그림 III-1]),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 중앙지원기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각 지역 내 센터에 대한 지원, 직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담당하고 시·도 센터는 광역단위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군·구 센터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담당한다. 한편 시·군·구 센터는 학교로부터의 연계나 CYS-Net의 연계망 등을 통해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및 사후 관리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시·군·구 센터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그림 III-2]와 같은 흐름도를 보인다(여성가족부, 2015a).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년도 청소년사업안내(II)(p.231).

【그림 II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흐름도

표 III-1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의 수혜인원(2013년~2014년)

(단위: 명)

구분	두드림/해밀 참여인원				사회진출/학업복귀			
	두드림	해밀	두드림+해밀 (중복제외)	계	사회진입	학업복귀	사회진입+학업복귀 (중복제외)	계
2013년	8,514	4,671	12,400	25,585	1,887	1,652	3,443	6,982
2014년	8,399	6,554	14,953	29,906	1,926	2,333	4,259	8,518

출처: 여성가족부(2015b)

여성가족부의 내부자료(여성가족부, 2015b)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의 수혜 청소년은 2013년에는 25,585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9,906명으로 4천 여 명이 증가하였다(<표 III-1>). 또한 이들 중 약 30%에 약간 못 미치는 이들이 사회에 진입하거나 학업에 복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신분의 청소년들에게 학교 보건법에 의거하여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향후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 사업 대상은 만 15~18세 비취학 청소년이며 연 1회에 한해 지역 보건소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상담자와 협의 하에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B형 간염, 흉부 X선, 구강 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검진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5a). 2014년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의 수혜 인원은 1,500명으로(여성가족부, 2015b)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학교 밖 전체 청소년의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여성가족부, 2015. 5. 12.)에 따라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담당부서인 여성가족부로 이동될 예정이다. 건강검진 서비스가 여성가족부로 이전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관련 서비스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중 학업중단 청소년, 비행 및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표 III-2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년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월 36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년 25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년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의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10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년도 청소년사업안내(III)(p.164-165)의 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우선 선정권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이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표 III - 2>와 같다. 이와 같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하며, 학업 및 자립지원의 경우는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 정보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표 III-3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유형별 지원 현황(2011년~2014년) (단위: 명, 건)

구분	생활 지원		건강 지원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상담 지원		법률 지원		활동 지원		기타		총계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11년	401	2,026	23	53	171	613	19	32	83	406	-	-	34	64	32	60	773	3,254
'12년	367	1,980	13	41	170	707	23	93	96	545	-	-	52	157	21	65	742	3,588
'13년	341	2,000	13	48	193	910	30	121	67	357	-	-	80	347	60	62	784	3,845
'14년	762	2,956	22	33	200	706	79	273	111	449	-	-	152	567	173	296	1,499	5,280

출처: 여성가족부(2015b)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특별지원 건수는 연도에 따라 총 3,252건에서 5,28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11년 2,026건, 2012년 1,980건, 2013년 2,000건, 2014년 2,956건으로 생활지원이 월등히 많았고 상담지원이 357~5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 III - 3>).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 대구와 광주센터를 시작¹¹⁾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총 209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미설치 시·군·구는 39개 지역이다(여성가족부, 2015b).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모든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법률 및 의료 지원·일시보호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등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로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1) https://www.kyci.or.kr/cooperation/cooperation01_2.asp (검색일: 2015. 4. 27)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2005년에 구축되었다. CYS-Net의 구축 현황을 보면 2015년 현재 시·도 단위에 16개소, 시·군·구 단위에 184개소로 총 200개소의 CYS-Net이 구축되어 있으며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총 48개 지역이다(여성가족부, 2015a).

CYS-Net의 운영조직을 보면, 각 지역마다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및 교육청, 경찰관서,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공공의료기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 노동관서 등이 연계되어 위기 청소년을 지원한다. 지원 서비스의 종류로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사회적 보호 서비스,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서비스, 교육 및 학업지원 서비스, 자활지원 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 문화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그림 III-3).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위기 청소년의 범주에 속하므로 CYS-Net을 통한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



출처: https://www.kyci.or.kr/cooperation/cooperation01_1.asp(검색일: 2015. 4.27)

【그림 III-3】 CYS-Net 운영조직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지지를 해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2005년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후 2008년 16개 시·도에서 470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선발되어 활동하였으며 2015년 현재 약 천 여명의 청소년동반자가 활동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 청소년은 CYS-Net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소년 중 위기 스크리닝을 통해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가출, 비행·폭력, 인터넷 중독, 성매매 대상 청소년들과 더불어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우선 적용대상에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 동반자는 전일제 동반자와 시간제 동반자로 나뉜다. 전일제 동반자의 경우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하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임상 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등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 업무 경력이 일 년 이상인 자로 제한, 시간제 동반자보다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사례를 많이 배정하고, 시간제 동반자 컨설팅 및 관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일제 동반자의 경우는 분기당 평균 1인당 12사례 이상, 시간제 동반자는 6사례 이상 배정받아 관리하며, 사례관리는 1사례 당 3개월 이내 종결을 원칙으로 사례 당 최소 주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5a). 2014년 한 해 동안의 지원 현황을 보면 종결사례 수혜청소년은 모두 33,471명이었다(여성가족부, 2015b). 그러나 이들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쉼터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으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나뉘는데 일시쉼터의 경우는 24시간~7일 이내의 일시보호, 단기쉼터는 3~9개월 이내의 단기보호,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의 중장기보호가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5a). 특히 중장기쉼터의 경우는 사회복지를 위한 자립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내세움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단기쉼터의 경우도 중장기쉼터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김지연, 정소연, 2014)

중장기쉼터 뿐 아니라 단기쉼터 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일시쉼터의 경우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정기간 거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상당수가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쉼터에 대한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5월 현재 총 109개 쉼터의 정원 수는 약 1,100명이었으며, 이 중 5~6월 사이 약 한 달 동안 쉼터에 거주하던 청소년 중 일반학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434명(39%)으로 나타났다(백혜정, 임희진, 2014).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 쉼터가 이들에게 숙식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일정부분이나마 지원하는 복지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교육부

학업 중단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주요 업무는 부서의 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후 학교복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도 시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사업 및 정책으로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지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지원, 대안학교 운영지원, 학업중단예방정책 등이 있으며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를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1) 방송통신중·고등학교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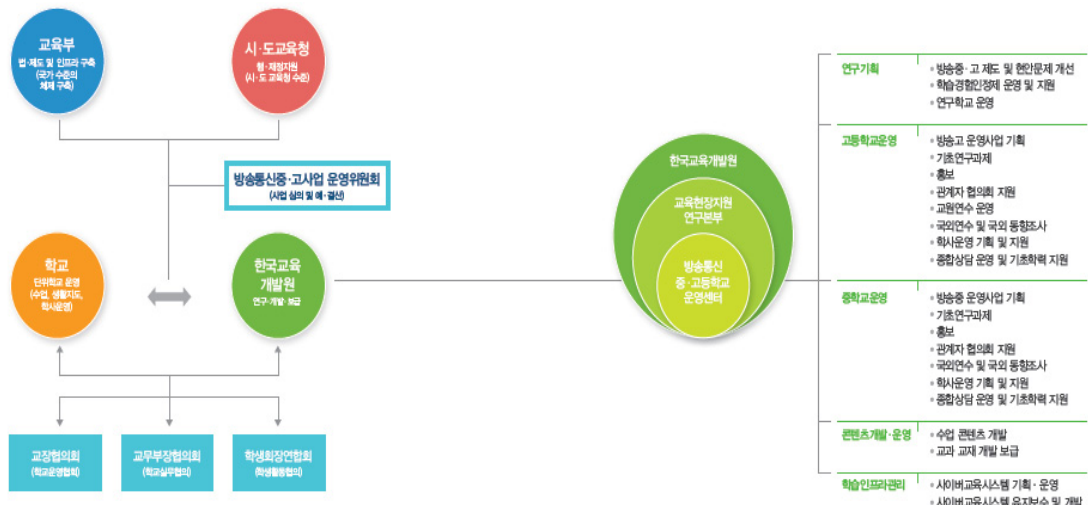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73년 구교육법 제107조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1974년에 제정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3년제로 운영되며 재학생은 3년 동안 총 162단위, 그 중 104단위는 필수로

12)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http://edu.cyber.hs.kr/servlet/controller.homepage.MainServlet?p_process=befeschool (검색일: 2015.4.7.))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이수해야 한다. 교과목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고 모든 수업은 원격(인터넷) 수업과 출석 수업으로 나뉜다. 출석 수업과 관련하여 연간 출석 수업 일수는 24일 192시간(재량·특별활동 포함) 내외이며 1일 수업시간은 최소 6시간(1교시 45분 기준, 8교시)이 원칙이다.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42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약 13,420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24세 이하 청소년은 4,204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었다. 2012년 「초·중등교육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개정하고 2013년 방송통신중학교 2개교의 설립이 그 시작이다. 이후 방송통신중학교는 2014년 4개교, 2015년에 6개교의 신설로 2015년 현재 총 12개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5a). 방송통신중학교의 설립목적은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 등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약 600여 명이 입학하였으나 이 중 50대 이상이 90.4%이며 10대는 4.8%에 불과하였다(교육부, 2015.3.5.). 이러한 학생 비율로 볼 때 이 정책이 청소년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청소년보다는 성인 위주의 교육지원정책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전국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해당 중·고등학교 부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 및 관할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아래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가 관리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브로셔, p.22-23.

【그림 III-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체계 및 추진 조직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국가 수준의 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에서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기획·체제 및 제도 개선, 학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교육과정 및 정책 연구,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원격 수업 운영 및 교수·학습 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III-4]).

(2)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가장 오래된 정책으로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초·중·고등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시험제도이다. 1950년 문교부령으로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가 제도화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중·고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5년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검정고시는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협력하여 담당하고 있다. 정책개발, 법령구축, 학력인정 기준설정 등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4월과 8월에 공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를 발표하며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0). 시험과목은 초·중학교 6과목, 고등학교 7과목이며(<표 III-4>) 결시과목 없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해당 학력의 취득이 가능하다(김주훈, 김기철, 박지현, 2012).

2012년 검정고시 지원자들의 연령을 보면(<표 III-5>) 중·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지원자의 88.9%와 70.7%가 19세 이하로 나타나 검정고시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표 III-4 검정고시 과목

구분	고시과목		
초졸	필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	총 6과목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중졸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총 6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고졸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총 7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표 III-5 2012년 검정고시 연령별 지원자 및 합격자 수

(단위: 명, %)

급별	연령별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대비 합격률 (%)
		남	여	합계	총 지원자 대비 비율 (%)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초등학교 졸업	12세 이하	240	223	463	38.2	237	218	455	235	216	451	99.1
	13~19세	302	263	565	46.7	284	254	538	281	251	532	98.9
	20~29세	44	139	183	15.1	41	114	155	35	101	136	87.7
	총 지원자	586	625	1,211	100.0	562	586	1,148	551	568	1,119	97.5
중학교 졸업	12세 이하	41	44	85	0.8	41	43	84	36	41	77	91.7
	13~19세	4,875	5,119	9,994	88.1	4,313	4,515	8,828	3,626	3,816	7,442	84.3
	20~29세	545	714	1,259	11.1	403	538	941	313	398	711	75.6
	총 지원자	5,461	5,877	11,338	100.0	4,757	5,096	9,853	3,975	4,255	8,230	83.5
고등학교 졸업	12세 이하	4	4	8	0.0	4	4	8	3	3	6	75.0
	13~19세	22,357	17,589	39,946	70.7	19,180	15,247	34,427	13,061	10,800	23,861	69.3
	20~29세	11,124	5,406	16,530	29.3	8,555	3,795	12,350	4,889	2,433	7,322	59.3
	총 지원자	33,485	22,999	56,484	100.0	27,739	19,046	46,785	17,953	13,236	31,189	66.7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2).

들에게 학력취득의 기회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검정고시 지원자 및 합격자는 모두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학교생활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중에는 교육과정을 제 나이보다 좀 더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이들이나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다양한 학교에 다니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지할 필요도 있다.

(3) 대안교육 지원 정책

대안교육은 제도권 내의 학교에서 행해지는 공교육이 가진 모순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안학교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7년 간디청소년학교라는 전일제 대안교육 시설을 설립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듬해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및 학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간디학교를 비롯하여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총 6개 학교에 대해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인가를 내주었다(교육인적자

원부, 2007). 2002년에는 특성화 중학교도 설립되어 2015년 현재 특성화 중학교는 총 12개교¹³⁾(공립 3개교, 사립 9개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총 25개교(공립 4개교, 사립 21개교)가 설립되어 정부로부터 일부 재정적 지원¹⁴⁾을 받고 있다(교육부, 2014). 특성화학교는 정부가 대안교육을 법제화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성화학교 외에 정부에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대안교육제도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및 인가형 대안학교가 있다. 우선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은 중고등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소속학교에 학적을 두고 원하는 교육기관에 출석하여 과정을 모두 마치면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역시 대안교육 지원 정책의 하나이며 2001년부터 서울시교육청¹⁵⁾에서 시작한 이후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위탁기간은 보통 1년이며 위탁 기관장과 소속 학교장의 협의 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2015년 현재 위탁형 대안학교의 수는 238개교(수용 가능 인원은 6,945명)이며, 현재 위탁학생 수는 초등학교과과정에 137명, 중학교과과정에 1,091명, 고등학교과과정에 1,748명으로 총 2,976명이다(교육부, 2015b).

다음으로 인가형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3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설립」에 의거하여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의미한다. 2015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인가형 대안학교는 전국에 총 24개교(공립 6개교, 사립 18개교)가 있다(교육부, 2015a). 이 중 공립 대안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이나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2015년 4월 기준 이들 대안학교 및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정원을 살펴보면 대안학교 4,306명, 특성화 중학교 1,541명, 특성화 고등학교 3,215명이다. 또한 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은 대안학교 70.5%(3,038명), 특성화 중학교 84.5%(1,303명), 특성화 고등학교 87.3%(2,806명)이다(교육부, 2015b).

한편 교육부의 대안교육 지원정책 대상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일반 학교 적응에 있어서 경험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안교육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적이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았을 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속해 있거나 한 때

13) 2016년부터는 남해 상주 중학교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으로 특성화중학교는 총13개교가 된다.

14) 정부의 지원은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지원액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고 지원액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지방비 지원액은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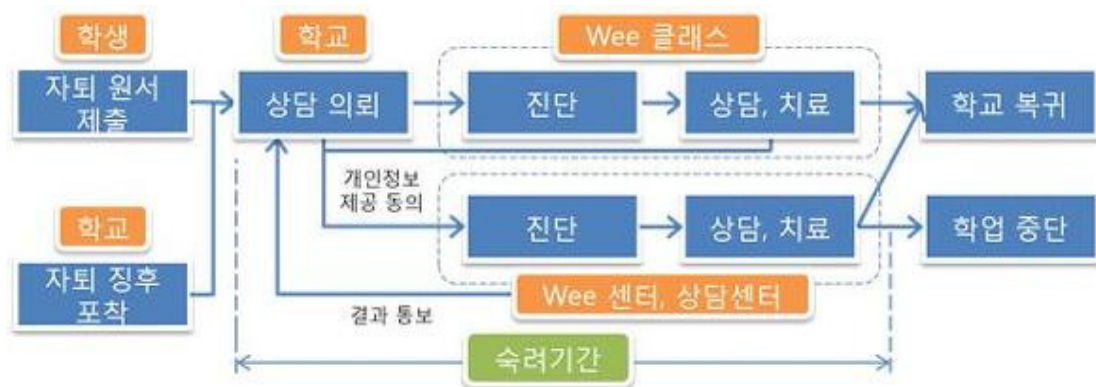
15) 서울시에서는 위탁형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속했던 이들이므로 이 정책이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학업중단예방정책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시를 들 수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를 보이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으며 최소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2012년 도입하였고 2013년 두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해 수립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다(교육부, 2014.2.27).

상담 내용은 주로 학업복귀 권고 및 학업중단 이후 상황안내와 진로정보 제공이다. 운영 절차¹⁶⁾는 다음과 같다([그림 III-5]). 우선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Wee 클래스(전문상담교사)에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한 후 외부 상담기관(Wee 센터, 상담센터)과의 연계를 위해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상담 신청서를 받아 숙려기간동안 상담을 한다. 상담 종료 후에도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계속 보인다면 학교 밖 진로 정보 제공을 위해 상담센터로 연계한다. 숙려 기간이 종료된 후 학교로 복귀한 학생은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교내에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6. 24). 보도자료, p.2

【그림 III-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

1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운영절차는 교육부 웹진 행복한 교육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97&nttlId=1937)(검색일: 2015.4.10.)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자퇴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자퇴 처리한다.

2014년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4만 5천 여 명이며 그 중 3만 7천 여 명(82%)이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 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보다는 학업중단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려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 학교와 상담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이들이 사회적 보호체계로부터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도 학업중단예방 정책 중 하나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직장인 등이 멘토가 되어 학교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위기 극복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각 시·도별 교육청 단위로 운영한다(교육부, 2014.2.27). 또한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멘토단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멘토단 운영기법 교육 및 연수, 맞춤형 멘토링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멘토단 현장활동지원을 위한 멘토수첩 제작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⁷⁾. 멘토들은 멘티들과 일대일, 일대다수, 다수대다수 등의 형태로 연결되어 상담, 학습, 진로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활동 등을 함께 하기도 한다. 2014년에는 총 2,760명이 멘토로 위촉되었다(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멘토들의 활동 시작시기가 길지 않아 이들의 활동이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멘토 활동을 통해 향후 과제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멘토들의 학교 및 담임 교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멘티들의 학업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의 연계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복지원에 대한 방지 등이 그것들이다(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5) 기타 학업복귀지원정책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업복귀지원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교육청의 관할 아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카페형식의 센터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복지

17) http://www.gotoschool.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7&menu_nix=9U9TSug (검색일: 2015.4.14).

표 I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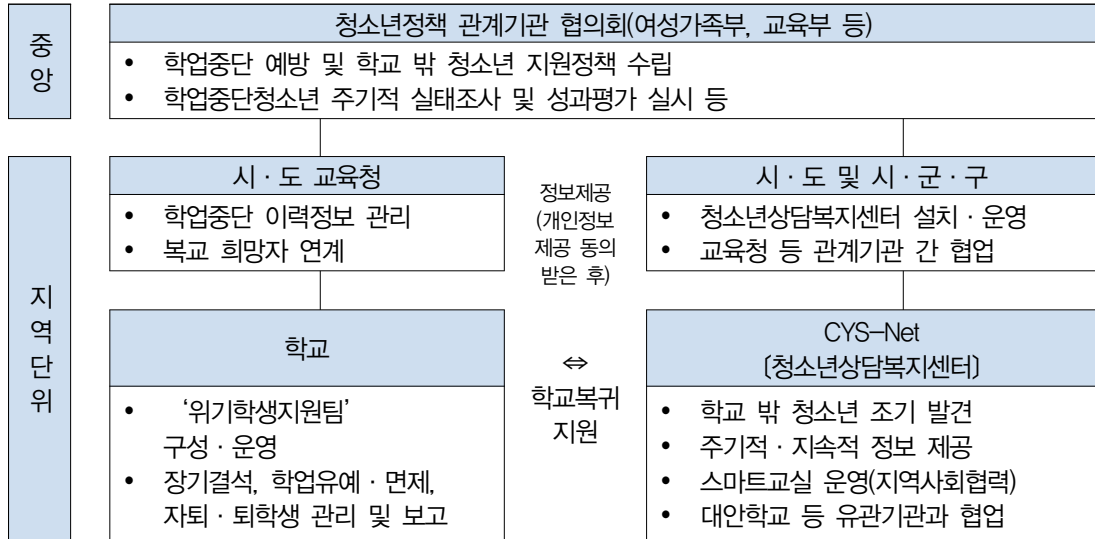
「친구랑」 각 지점별 운영계획

지점	서울	대구	강원
위치	관악구 신림동	중구 변화가	춘천 시내
지원 내용	- 간식거리 제공 - 컴퓨터 및 도서 비치 - 맞춤형 진로 컨설팅 -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 경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복지 서비스	- 휴게실 제공 - 위기청소년 쉼터와의 연계 - Wee센터 2차 상담과 연계 - 검정고시 등의 프로그램 제공	- 끼니 서비스 - 또래 청소년 멘토를 통한 학교생활 정보 제공 - 꿈키움 멘토와의 연결을 통한 학습 부진 해소 - 진로체험 진단도구 비치 - 외부 자원 연계 문화활동 - 체육·야외활동 서비스

지원,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이들의 학업복귀를 지원한다. 현장형 Wee센터라고도 할 수 있는 「친구랑」은 2014년에 서울, 대구, 강원 지역에 3개소를 개소하였다. 각 지점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표 III-6>과 같다(교육부, 2014.5.28.). 센터의 이용 인원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하루 평균 20~50명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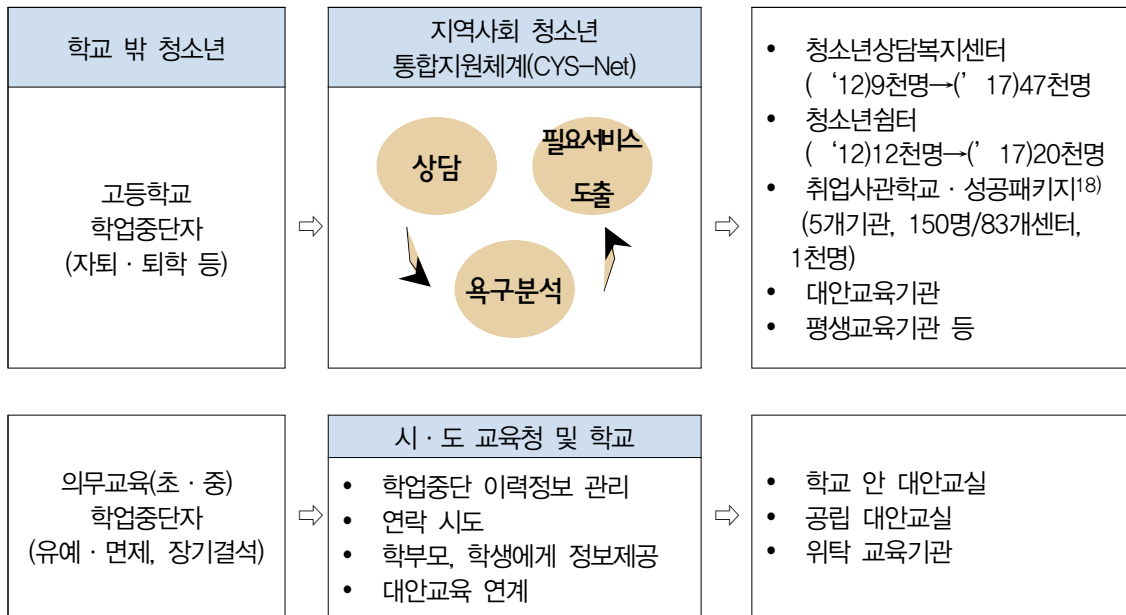
그 외에 체험형 힐링치유 캠프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를 실시함으로써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캠프는 산림청 및 코레일과 연계하여 2014년 약 500명, 즉 한 회당 약 50명 내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2015년 15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교육부, 2015a).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도 당일형과 1박2일형, 두 가지로(윤철경, 김혁진, 김범구, 하시연, 이연희, 2014) 그 기간이 짧아 일회성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시작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청, 산림청, 코레일 등 협력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학생 및 멘토 모집 및 운영, 열차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이 제기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교육부, 대구교육청, 2015).

앞서 서술했듯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부처 간 협업을 하고 있으며 협업추진체계는 [그림 III-6]과 같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지역단위로 내려가면 각 시·도별로 관할 교육청에서 학업중단자에 대한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련 지원센터 및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출처: 교육부, 여성가족부(2013). p.17

【그림 III-6】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체계 구축 방안



출처: 교육부, 여성가족부(2013). p.18

【그림 III-7】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18) 취업사관학교·성공패키지는 3) 고용노동부의 지원 정책 현황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단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함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들의 정보를 지원센터에 전달하여 학업 중단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의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5. 12).

한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는 [그림 III-7]과 같다(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전달체계가 원활히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제시한 전달체계와는 달리 고등학교를 중단한 청소년 중에는 학업에 복귀하는 청소년도 있을 뿐 아니라 초·중학교 학업 중단자 중에는 교육청 및 학교의 관리 하에 대안교육기관으로 가는 청소년 뿐 아니라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이나 취업훈련을 받는 청소년도 있기 때문이다.

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부서의 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취업사관학교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취업인턴제가 있다.

(1) 취업사관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취업사관학교¹⁹⁾는 학업중단이나 가출, 범죄 및 일탈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심리적 안정 및 자립이 필요한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운영기관을 모집·관리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게는 훈련비용, 즉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교육생에게는 자립장려금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훈련직종은 운영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신청한 직종이며 훈련은 6개월 700시간 이상 실시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 6개 지역이다. <표 III-7>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에는 경남산업직

19) <http://www.moel.go.kr/policyinfo/reclamation/view.jsp?cate=3&sec=3> (검색일: 2015.5.6.)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 III-7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

(단위: 명, %)

소재지	운영기관명	훈련직종	배정	모집	수료	취업	취업률
서울 (1)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	50	53	42	42	92.9
강원 (1)	춘천YMCA	피부미용	20	21	14	12	85.7
충남 (1)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정밀가공	30	23	11	4	18.1
전남 (1)	광양만권 HRD센터	특수용접	30	31	23	18	78.3
경남 (2)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	뷰티아티스트	20	20	15	9	60.0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건축시공	-	-	-	-	-
계			150	148	105	85	79.0

※ 취업률: 취업인원/수료인원 (단, 조기취업인원은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취업자에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2015a).

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 총 5개 기관에서 위탁·시행되어 총 148명이 참여하였으며 수료자는 총 105명이다. 훈련수료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85명으로 수료인원 대비 약 79%의 취업률을 보였다(고용노동부, 2015a). 한편 2015년 4월 현재는 총 150명 배정에 135명이 모집되었고 129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다(고용노동부, 2015a).

(2) 취업성공패키지²⁰⁾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만 18세~64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및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유형에 따라 I과 II로 구분되며 취업성공패키지 I의 대상자는 만18세~64세 구직자이지만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청소년이 지원 가능하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II의 대상자는 만18세~64세 구직자 중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도 해당되므로 부분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정책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전국 87개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바탕으로 '진단 및 경로설정→의욕 및 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이후 취업에 성공한 이들에

20) <http://www.work.go.kr/pkg/index.do> (검색일: 2015.5.6.)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한하여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1단계인 진단 및 경로설정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수립 후에는 최대 20~2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단계인 의욕 및 능력증진 단계에서는 취업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해 1단계에서 세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으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훈련소요비용을 자부담 없이 전액을,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를 제외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훈련참여자들은 훈련기간 내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씩 최대 월 284,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는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3단계인 집중 취업알선단계에서는 '동행면접' 실시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을 알선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 I의 참여자가 1단계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얻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취업 후 동일한 직장에서 1개월 근무 시 20만원, 3개월 근무 시 30만원, 6개월 근무 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표 III-8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현황

(단위: 명, %)

연도	참여유형	참여자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2014	취업성공패키지 I 위기청소년	1,575	886	339	38.3
	취업성공패키지 II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25,308	16,907	10,369	61.3
2015	취업성공패키지 I 위기청소년	382	32	10	30.3
	취업성공패키지 II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10,218	921	772	83.8

※ 2015년은 4월 현재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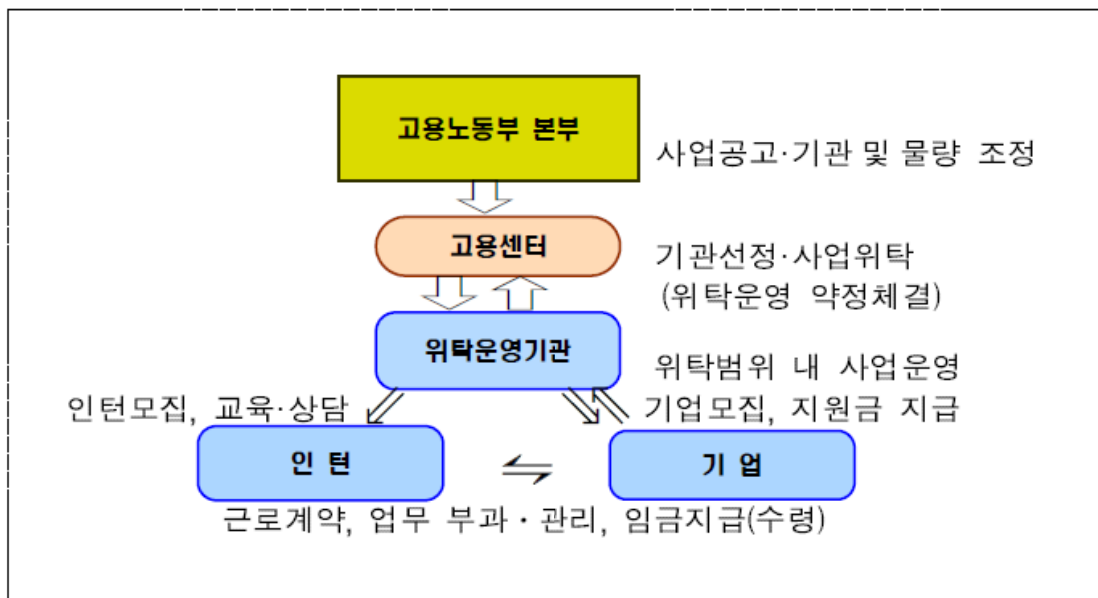
※ 취업률: 취(창)업자 수/종료자 수

출처: 고용노동부(2015a)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 현황을 보면(<표 III-8>) 취업성공패키지 I(위기청소년)의 경우 총 1,575명의 참여자 중 886명이 과정을 마쳤으며 과정 종료자 대비 취업자율은 38.3%(339명)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II(만 24세 이하, 고졸 이하 미취업 청소년)의 경우는 참여자의 규모가 훨씬 컸다. 즉, 총 25,308명의 참여자 중 16,907명이 과정을 마쳤으며 과정 종료자 대비 취업률은 61.3%(10,369명)이다(고용노동부, 2015a).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와 연관하여 이들의 취업률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취업지속기간이나 취업에 대한 만족도, 직종의 미래 전망 등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발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취업인턴제²¹⁾

청년취업인턴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소년 및 청소년 중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직업체험을 하고 직무 능력을 배양하여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때 인턴기간은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인턴의 임금수준은 월 128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턴으로



출처: 고용노동부(2015b), 2015년도 중소기업 청소년인턴제 시행지침(p.2).

【그림 III-8】 청년취업인턴제 서비스 전달체계

21) http://www.work.go.kr/intern/busi/emp_businfo.do (검색일: 2015.6.26.)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지원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6조에 의거하여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턴제 실시 기업에 대해 약정 임금이 128만 원 이상인 경우 약정기간(3개월 이내)동안 월 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간 기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III-8]과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고용센터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인턴 및 인턴을 고용할 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하는 형태를 지닌다. 인턴제의 진행절차는 개인이 온라인 등으로 인턴을 신청하면 일정 자격 심사 후 취업 상담 및 매칭, 사전 직무 교육을 거쳐 해당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 법무부

법무부가 지원하는 청소년들은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들이 주를 이룬다. 법무부의 정책대상자로서의 소년범과 비행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의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 지원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들을 위해 법무부는 학업숙려제 및 지원센터로의 연계 등 타 부처와의 협조사업에 참여할 뿐 아니라 법무부의 단독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독사업으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한국소년보호협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자립생활관, 창업보육사업, 사회정착지원센터 등이 있다.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 초기단계에 있거나 일탈행동을 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을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대외적으로는 ‘청소년꿈키움센터’²²⁾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요 역할은 법원·검찰청·학교 등에서 의뢰한

22) 기존에는 ‘대안교육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2013년에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변경하였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교육 실시,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비행청소년의 상담조사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다. 2007년 6개소의 신설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법무부, 2015).

(2)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안양·의왕·대전·광주·대구·부산·전주·춘천 등지에 총 8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시설의 정원은 시설에 따라 12~20명 정도이며 총 8개 시설에 입소 가능한 인원은 모두 130명이다. 입소 대상자는 만 12~22세 이하의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 지역 내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청소년으로 입주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이다. 자립생활관에 입주한 청소년들은 무료숙식 및 심리상담 등과 같은 기본 지원 이외에도 학업연계지원, 취업활동지원, 현장체험지원, 재능기부자 연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표 III-9>).²³⁾ 이 정책의 지원수혜 정도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기준 입소자는 총 113명(총 정원 126명 대비 약 90%)이었으며 2015년 5월 현재 입소자는 총 107명(총 정원 130명 대비 약 82%)이다(법무부, 2015). 그러나 이 정책의 주요 대상은 위기 청소년들로 이 정책의 수혜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단 2014년 12월 기준 총 113명 중 중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51명이었으며, 초졸, 중졸, 고등학교 중퇴자가 43명, 중학교 재학생이 10명, 기타가 9명으로(법무부, 2015) 적어도 38% 내외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측된다.

한편 2014년 일 년 간 생활관을 통한 사회정착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자립지원은 235명(279명

표 III-9 청소년 자립생활관 지원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기본지원	무료숙식 제공 및 청소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학업연계지원	학원 및 과외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 지원
취업활동지원	진로 및 직업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미용·제과제빵·컴퓨터 등 취업기술 지원
현장체험지원	문화체험·스포츠체험·봉사활동·캠프지원을 통한 인성교육 실시
재능기부자 연계지원	음악·그림·사진 등 개인의 특기를 발굴하고 전문가와 연계를 통해 대학진학 및 취업 지원

출처: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kjpa.or.kr/sub.asp?cate1=2&cate2=2> (검색일: 2015.5.7.)의 내용을 표로 구성

23) <http://kjpa.or.kr/sub.asp?cate1=2> (검색일: 2015.5.7.)

목표 대비 약 84%), 취업 및 학업지원은 363명(784명 목표 대비 약 46%), 문화 및 심성활동지원은 6,578명(6,277명 목표 대비 105%)이 받았다(법무부, 2015). 이 같은 결과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취업 및 학업지원이 다른 지원에 비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취업 및 학업지원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취업 및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관련 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희망드림 하우스 및 비즈니스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생활관 퇴소 및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자립생활관에서 사업장을 직접 관리·운영함으로써 보육생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대인관계 훈련 및 용돈벌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7월 현재 4명의 청소년에게 민간의 후원금을 활용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였고 대구에 사업장 1개소를 개설하여 3명의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전국 8개 자립생활관별 희망드림 하우스 2개소 및 희망드림 비즈니스 1개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법무부, 2015).

(3) 창업보육사업

창업보육사업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취업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창업 보육사업의 종류로는 베이커리 카페(오션 베이커리), 광고 및 인쇄물 제작(엔씨위즈)이 있다.²⁴⁾ 2014년까지 총 보육인원을 보면 엔씨위즈 2명, 오션베이커리 17명으로 그 규모가 작고 2015년 현재 재직 중인 경우는 오션베이커리에 2명이 전부이다. 이들의 직업체험을 지원하고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제로 첫 3개월을 근무하면 이후 2년 계약직으로,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제도화하였으나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없고 2015년 5월 현재 오션베이커리 보육생 1명을 소년보호협회 정직원으로 채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법무부, 2015).

(4) 사회정착지원센터

사회정착지원센터(YES센터: Youth Education Service Center)는 2014년 12월 경기도 화성시에 문을 열었으며 소년원을 졸업한 22세 이하 청소년들 중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정착 지원기관이다. 예스센터에서는 자동차정비과,

24) <http://kjpa.or.kr/sub.asp?cate1=2> (검색일: 2015.5.7.)

정보기술(IT)과, 용접과, 골프매니지먼트과 등 4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1년(연간 42주 이상, 수업시수 1,470시간 이상), 정원은 60명이다(한국소년보호협회 예스센터, 2015.7). 2015년 3월 현재 실습 중인 청소년은 21명이며(법률신문, 2015. 3. 17), 취업실적을 보면 골프매니지먼트과에서 5명이 취업하였으며 자동차정비과에서 3명이 일주일 과정 현장 인턴으로 취업하였다(한국소년보호협회 예스센터, 2015.7).

5) 보건복지부

(1)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보건복지부에서 1997년 자활지원센터 부설 청소년 교실 10개소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27개소가 산재해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목적은 당초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및 빈곤 청소년의 자원구축 및 자립지원을 돕는 것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자활인큐베이팅 사업²⁵⁾은 18세~24세의 학교중퇴 및 비취업청소년 중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취업이나 창업, 직업훈련으로의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자활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그림 III-9]).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별로 저소득 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가 모두 여성가족부로 이전

1 자활동기강화 프로그램	2 교육훈련 프로그램	3 선택직종 근로체험
- 직업흥미 및 적성에 대한 전문검사 및 진단 - 심리치료 및 내면자존감 강화활동 - 고나심직종의 다양한 전문가 인터뷰 활동	- 선택직종에 대한 지역내 교육기관 연계 및 기관내 강사섭외 형태로 진행 -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획득	- 지역내 근로체험 가능한 업체 발굴 및 체험 - 근로를 통한 사회진출 경험 및 평가 - 사회진출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출처: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youthjahwal.org/bbs/board.php?bo_table=sub01_02 (검색일: 2015.5.8.)

【그림 III-9】 청소년자활인큐베이팅 사업 내용

25) http://www.youthjahwal.org/bbs/board.php?bo_table=sub01_02 (검색일: 2015.5.8.)

중이어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아동자립지원서비스²⁶⁾

한국보건복지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에서는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 및 보호가

표 Ⅲ-10 학교 밖 청소년 주요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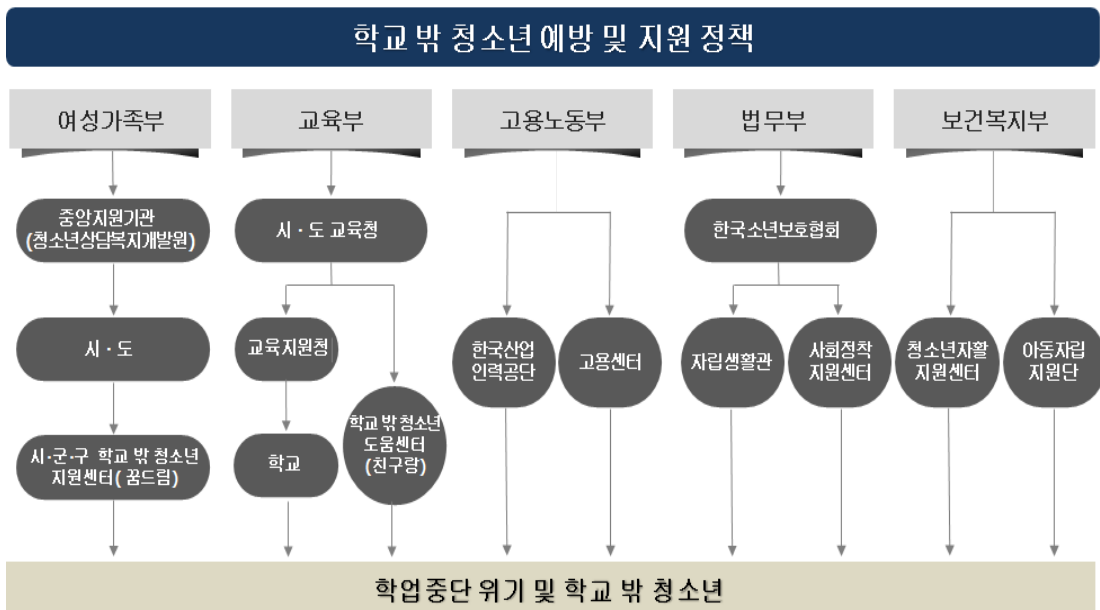
담당부처	주요대상	주요 사업	지원 내용	운영기관
여성 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업·취업· 자립 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자립·자활(경제적) 지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	자립·자활 지원	
		CYS-net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위기지원	
	중·고위험군 위기청소년	청소년동반자	일대일 사례관리	
	가출 청소년	청소년 쉼터	주거 및 생활지원	청소년 쉼터
교육부	학업 중단 청소년	방송통신 중·고교	교육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센터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친구랑(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학업복귀 지원	관할 교육청
	(잠재적) 학업중단·복귀 청소년	대안학교	학업중단 예방 및 복귀 지원	대안교육기관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예방	Wee 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꿈기움 멘토링	멘토링을 통한 학업중단예방	시·도교육청
고용 노동부	학교 밖 청소년	취업사관학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
	미취업 청소년	청년취업인턴제		
법무부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자립생활관	자립·자활 지원	한국소년보호협회
		창업보육사업	취업 지원	
		사회정착지원센터	직업 훈련	
보건 복지부	저소득층 청소년	청소년자활지원	청소년자활 및 취업지원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아동자립 지원서비스	시설 및 위탁 가정 청소년 자립 지원	주거지원 및 진학지원	아동자립지원단

26) <http://www.jarip.or.kr/userSite/index.asp> (검색일: 2015.5.8.)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종결된 18세 이상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지원서비스에는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으나 그 외에 주거지원이나 자립정착금 지원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주거지원은 대상자격에 따라 자립생활관이나 공동생활가정, 영구임대주택, 전세주택 등에 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중 자립생활관은 전국에 12개소가 있어 각 시설 당 30~40명씩 총 385명이 거주할 수 있다.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상 시설 및 위탁가정 퇴소 및 종결 청소년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지 및 생활용품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중 특히 주거지원이나 자립정착금 지원과 같은 경우는 시설 및 위탁가정 거주 후 퇴소 청소년들 중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3년 양육시설 퇴소아동의 최종학력을 볼 때 고졸이상은 약 90%에 가깝게 나타난 반면 고교중퇴 이하는 전체 퇴소아동의 3.3%(35명)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4). 이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지원혜택을 받은 청소년의 규모가 작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들을 종합해 보면 <표 III-10>과 같다. 또한 각 정책들의 주요 전달체계는 [그림 III-10]과 같다.



【그림 III-10】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 정책 전달 체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주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되었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로 들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으로 인해 학업중단 사전 예방을 비롯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가 수립되었으며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억 원이 증가한 총 11,316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전체 예산(36,438백만 원)의 약 31%를 차지하게 되는 등(여성가족부, 2015c) 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졌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및 이들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정책수행 및 전달과정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여러 부처별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고 한 부처에서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나누어 수행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원화로 인해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 대상자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은 그 첫 번째 한계점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특성으로 볼 때 위기 청소년에 포함될 수 있다. 사회적 통념상 위기 청소년은 현재 비행이나 일탈, 정서적 어려움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으로만 인식하기 쉬우나 위기 청소년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개념화되어 있다. 예로써 구본용(2005)은 위기청소년을 현재 개인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에서 벗어나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단순히 학업 중단의 문제 뿐 아니라 빈곤, 가정해체, 심리정서상의 문제, 비행, 가출 등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 명의 학생이 여러 부처 및 부서의 정책 수혜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업지원 뿐 아니라 진로지원, 취업지원, 건강지원, 심리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빈곤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비행 및 가출 경험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력 취득을 위한 학업지원과 학업지속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취업 알선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 비행 및 범죄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멘토 및 심리적 지원이나 긴급구조,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생활기술지원 등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필요하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위기 청소년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이들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고 정책이 추진되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분리되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을 특정하여 지원을 할 경우 이들을 위한 지원은 위기 청소년 지원과의 중복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학업 중단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다루게 되는 등 지원상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히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이라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위기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이들이 지닌 특성을 먼저 파악한 후 이에 대응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란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들의 학업중단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분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를 적용하여 이들을 지원한다면 지원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학교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육부가, 학교 밖으로 나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면 여성가족부가 이들을 지원한다고 할 때 이 청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절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름이나 주소 등과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선일보, 2015.8.28.).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인해

파생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숙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정부 부처의 전달체계에서 나타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의 시군구 단위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운영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각 부처 및 부서에 따라 각자의 전달체계 내에서 수행됨으로써 지원정책의 분절화 양상을 보인다. 즉 각 부처들은 해당 부처의 고유 기능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정 지원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학력취득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행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법무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들의 자립 및 자활 지원을, 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및 아동보호시설 청소년들의 복지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한다. 단 여성가족부만이 대상자 중심의 사업,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학업지원, 정서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여성가족부는 정책대상자 중심으로, 그 외의 부처들은 업무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면서 여성가족부와 타 부처 간 업무의 중복성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은 지원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면에서 그 역할이 중복된다. 이처럼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면에서 중복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비효율적 측면뿐만 아니라 각 부처 간 경쟁이 유발되어 공조체제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각 부처 및 부서별 사업 전달체계가 각기 다르다 보니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 및 시설 간 정보의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한 부처의 일이라 하더라도 사업에 따라 각기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가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며 교육부에서 대안학교와 검정고시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다. 이처럼 부처 및 부서별 담당사업 및 전달체계가 각자 다를 경우 모든 사업은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정보공유가 부족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사업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업중단자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고 정확한 교육부 산하 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발굴이 어렵다. 마찬가지로 기관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들 역시 해당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일부 정책에서 목표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인원이 목표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정보공유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지적한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과 비학생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학교 안에서부터 학교 밖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계획되고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부처의 기능에 맞는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어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각 부처 및 부서의 전문성에 맞춰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정책의 전달은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이를 통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업무공조체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처와 전달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부분적으로 교육부로부터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서술했듯이, 본인의 동의 없이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차선택으로 청소년기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에 있어서 위기를 맞은 이들은 학업 위기 청소년으로 보고 학교 안에서부터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시작하고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간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부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맞게 청소년들이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지원, 고용지원, 자활지원 등의 정책을 수행하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책전달에 있어서 부처 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 IV 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사례
2. 영국 사례
3. 일본 사례
4. 호주 사례

제 IV 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해외의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살펴본 해외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비교적 일찍이 깨닫고 각국의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정책화를 시도한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사례가 포함되었다²⁷⁾.

1. 미국사례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미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출 청소년(runaway youth)과 거리 청소년(homeless youth)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출 청소년(runaway youth)은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양육 및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나가 24시간 이상 들어오지 않는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가출 청소년이 일시적으로 또는 반(半)항구적으로 가정이나 양육 및 보호시설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거리 청소년(homeless youth)은 가족 해체나 빈곤, 학대 등으로 인해 이들에게 법적으로 양육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보호자가 부재함에 따라 항구적으로 거처할 집이나 양육 및 보호시설이 없어서 노숙을 해야 하는 청소년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27) 이 장에서 미국사례는 송민경(경기대학교), 영국사례는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일본사례는 최현주(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가 집필한 것으로 이 내용들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세미나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세미나집 자료」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며, 호주사례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5). 호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이슈리포트 제1호」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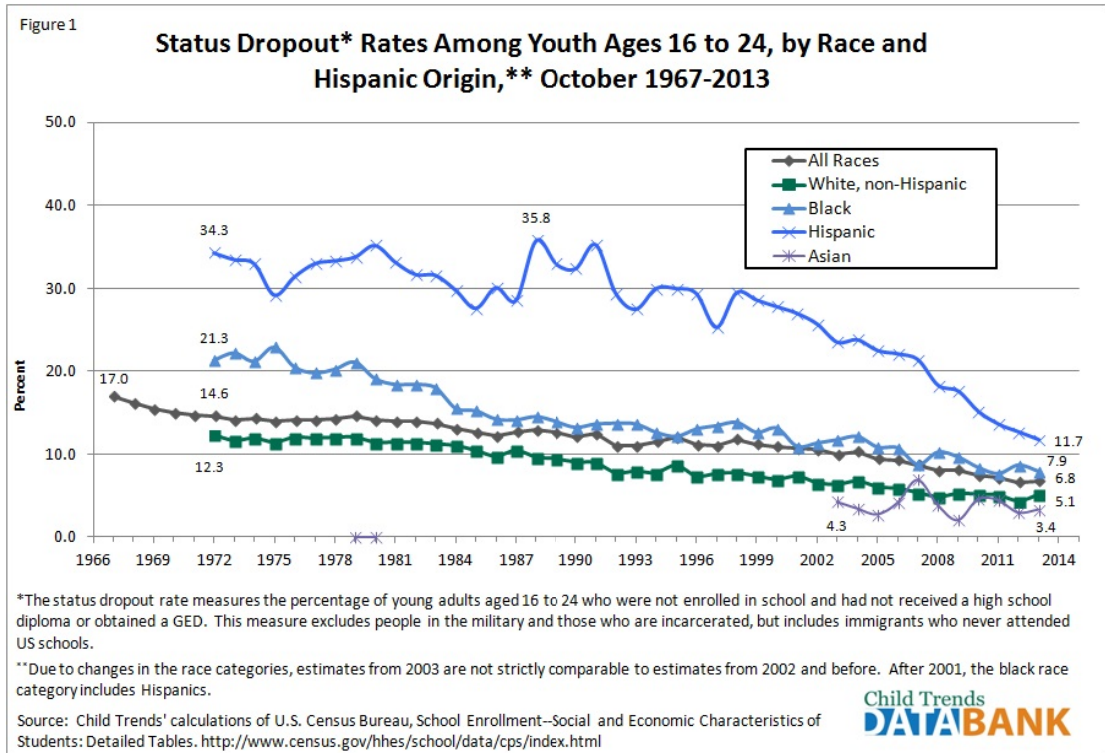
미국사회에서는 정책적으로 또한 전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dropout student/youth)에 대해 가출 청소년 또는 거리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역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2차적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강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국가가 승인한 정규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가출 및 거리 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는 시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접근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시각이나 노력은 한국사회의 정책적 시각이나 접근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생(students in school)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있거나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이해하며 빈곤이나 학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집단, 즉 가출 청소년이나 거리 청소년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 미국사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가출이나 빈곤, 학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어쩔 수 없이 학교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이 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국가가 승인한 정규학교, 특히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 두는 중도탈락 청소년(dropout student/youth)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1967년 연간 17%에 달하는 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이 2013년에는 7%가량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인종이나 외국 출신(이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이 강하게 제기된다(Child trends data bank, 2015).

(2)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Americas Promise Alliance²⁸⁾(2015)에 의하면, 매년 고등학교를 중퇴(drop-out)하는 학생이 1.1백만 명으로 매 26초당 한 명꼴로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흑인(African American)과 히스패닉계(Hispanic) 고등학생의 절반가량이 제 때에 졸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 가난의 굴레에 빠질 확률이 2배, 실업 가능성은 3배, 범죄 가능성은 약 8배에 가깝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http://www.ncsl.org/print/educ/Sptorum08Wells.pdf> (검색일: 2015. 6. 8)



출처: Child trends data bank(2015). High school dropout rates.

http://www.childtrends.org/wp-content/uploads/2012/10/01_Fig1.jpg (검색일: 2015. 6. 15.)

【그림 IV-1】 미국 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의 변동 추이

미국은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 및 학력, 즉 만 16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발생하는 정규 교육과정(고등학교 및 대학교 과정) 등록률 대비 중도 탈락률을 매년 보고하고 있다(그림 IV-1).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서는 장기 무단결석, 부모의 낮은 학력, 취업 또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비행 및 범죄, 전학, 낮은 학업 성취도 등을 언급하고 있다(Child trends data bank, 2015). 특히 고등학교를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비숙련 노동에 집중된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 높은 실업률, 고용 불안, 취약한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학업 중단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편 the National Runaway Switchboard(2015)²⁹⁾에 의하면 10세에서 18세의 청소년 중 가출 청소년은 7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의 75%가 여자 청소년으로 이들 중

29)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homeless-and-runaway-youth.aspx> (검색일: 2015. 6. 8)

약 6~22%가 임신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가출 및 거리 청소년의 75%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가출을 하거나 거리 청소년으로 전락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는 학대, 가족해체, 가족문제 등의 가족 기능의 문제, 대리 양육(foster care) 내지 항구적인 보호 및 양육서비스의 부재, 경제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2) 주요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지원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정책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정부 전달체계는 Family & Youth Services Bureau(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복지부)와 Department of Education(교육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과 복지부는 기초적인 생계 보장을 비롯한 주거 안정, 정신 건강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대학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교사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보호자 또는 부모가 대학 학력을 가지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 최초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나 군복무 후 제대한 청년들(veterans)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법령은 연방(the federal)정부와 주(the state)정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법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만들어 공포하고 시행하기도 하지만 주 정부와 예산을 나누어서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간으로 연방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한 연방법과 정책으로는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 The Fostering Connection Act of 2008,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P.L. 110-378) of 2013,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RHYTPA) of 2014, The Chaf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등이 있다(NCSL, 2015)³⁰⁾. 이들 법령은 주로 빈곤이나 학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개입방안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중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Title VII of the Act)은 연방

30) <http://www.ncsl.org/print/educ/Sptorum08Wells.pdf> (검색일: 2015. 6. 8)

정부 차원에서 거리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등록 및 학업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는 거리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에 통학하기 위한 교통수단(transportation)을 제공하고 거리 아동 및 청소년과 그의 가족 간에 긴밀한 연락 및 접촉을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The Fostering Connection Act of 2008은 연방 정부차원에서 주정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에는 위탁아동 및 청소년이 21세가 되기까지 학교등록 및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업 및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안정화 서비스 제공(educational stability provisions), 주거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vocational help) 또는 대학진학을 위한 비용지원, 상담 및 지도,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health oversight and coordination plan provision) 등을 포함한다. 또한,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업수행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연방정부는 The 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C CRA Act) and the Higher Educational Opportunity Act(HEOA) of 2008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the Federal TRIO program³¹⁾과 Gaining Early Awareness and Readiness for Undergraduate Programs(GEAR-UP)를 추진하고 있다. Gaining Early Awareness and Readiness for Undergraduate Programs(GEAR-UP)는 연방정부에서 1998년에 통과된 the Higher Education Amendments of 1998(Public Law 105-244)을 근간으로 1999년 클린턴 정부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총 120만 달러를 바탕으로 21개 주정부와 164개 대학 및 중·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결정하여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GEAR-UP 프로그램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이 중·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학진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는 The Uninterrupted Scholars Act를 제정하여 The Fostering Connection Act와 연동한 위탁 및 빈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안정화 및 학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주정부에서는 이렇게 제정된 연방법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한 주정부 법안을 주의회를 통하여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California 주정부에서는 2012년 9월에 Senate Bill(SB) No. 1568을 제안하였다. 이는 원가정을 떠나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이 위탁보호가 결정된 이후에 거주지가 변동되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가지 않고 위탁 아동·청소년이 원가정에서 다니던 학교에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상급학교 진학 및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방 교육청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을 골자로 제안된 법안이다. 같은 맥락으로 Maryland

31)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주정부에서는 Senate Bill 605를 제안하여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이 원한다면 학교의 위치에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학 및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며, 필요시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Oklahoma 주정부의 Department of Human Services(DHS)는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의료, 보건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여권을 발급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HB 1734를 제안하였다.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P.L. 110-378) of 2013 및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RHYTPA) of 2014은 연고가 없는(unaccompanied) 거리 및 가출 청소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두 법은 연방 정부가 최초로 1974년에 연고가 없는 청소년을 위해 제정된 법을 개정한 연방법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개정 및 확대를 거듭하였다. 여기에는 the Basic Center Program(가출 및 거리 청소년을 위한 기초 센터 프로그램), Transitional Living and Maternity Group Home Program(과도기적 주거 및 그룹홈 프로그램), Street Outreach Program(위기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RHYA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나 성범죄, 청소년 노동 착취나 부정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예산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주정부에서는 거리 청소년의 주거안정과 고용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Illinois 주정부의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 아동 및 가족국(the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과 (청)소년 법원(the Juvenile Court)에서는 21세 이하 위탁 및 거리 청소년(교정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포함)의 성공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diana 주정부 역시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를 중심으로 거리 및 빈곤 청소년을 위한 임시 보호소(emergency shelter)와 지원 서비스(a shelter care facility)를 제공하고 있다. Minnesota 주정부의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보건복지부),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경제기획국)에서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지원을 위해 매년 4백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2015년에는 5,238,000달러의 재정지원을 통해 21세 이하 위기 청소년 및 거리 청소년의 주거 안정, 생계지원, 정신보건, 교통지원, 의료 및 치과 서비스지원 등을 포함한 생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The Chaf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은 위탁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18~21세 동안 위탁보호에서 자립 내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표 IV-1

연방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프로그램 I (복지부를 중심으로)- 예시

연방 법/관련 주 법령	주요 대상, 목적 및 내용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Title VII of the Act)	- 주요 대상: 거리 아동 및 청소년 - 주요 목적: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학업수행 및 상급학교 진학을 통한 안정적인 이고 독립적인 자립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학교 지원 학비 및 생활 지원 통학을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 가족이나 부모와의 유대 지속을 위한 서비스 제공
The Fostering Connection Act of 2008/ The 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CCRAA) and the Higher Educational Opportunity Act(HEOA) of 2008/ The Uninterrupted Scholars Act	- 주요 대상: 위탁 및 빈곤 아동·청소년 - 주요 목적: 기존의 18세 이하였던 혜택대상자 연령을 21세로 상향조정하여 위탁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기술, 건강, 주거안정 등을 확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주거지원 교육 안정화 및 학업지원 서비스 취업 및 대학진학 지원 건강 및 의료 혜택 친인척보호를 위한 지원 형제자매의 위탁 보호지역/보호자에 대한 인위적인 분리금지 서비스³²⁾ 위탁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위탁보호: 21세까지 위탁보호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립과 독립을 도모함.
관련 주 정부 법령/프로그램	California: SB 1568 - 지방 교육청은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이 상급학교 진학 및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함. Maryland: SB 605 -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이 원한다면 학교의 위치에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학 및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며, 필요시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함. Oklahoma: HB 1734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DHS)는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의료, 보건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여권을 발급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P.L. 110-378) of 2013/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 주요 대상: 무연고·가출·거리 아동 및 청소년 - 주요 목적: 기초적인 생활 및 주거안정, 학업지원, 건강 및 의료지원 - 주요 내용(필수): 기초센터 프로그램 과도기적 주거 및 그룹홈 프로그램 아웃리치 프로그램 - 주요 내용(선택): 조기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

연방 법/관련 주 법령	주요 대상, 목적 및 내용
Act(RHYTPA) of 2014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거리 청소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Intervene with Already-Homeless Youth) 독립거주지 선택 프로그램(Independent Housing Options) 청소년 교정 및 위탁보호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Juvenile Corrections and Foster Care Programs)
관련 주 정부 법령/프로그램	Illinois - 21세 이하 위탁 및 거리 청소년(교정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포함)의 성공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주요 지원부처는 아동 및 가족국(the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과 (청)소년 법원(the Juvenile Court)임. Indiana - 거리 및 빈곤 청소년을 위한 임시 보호소(emergency shelter)와 지원 서비스(a shelter care facility)를 제공함. Minnesota -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자원을 위해 매년 4백만 달러를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함.
The Chaf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CFCIP)	- 주요 대상: 현재 위탁보호 중이거나 과거 위탁보호를 경험한 18세~21세 청소년 - 주요 목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지원 및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성장 지원 - 주요 내용: 교육 및 훈련 바우처 제공(The Educational and Training Vouchers Program, ETV)

출처: Committee on ways and Means(2014). Child welfare legislative histor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greenbook.waysandmeans.house.gov/book/export/html/303>(검색일: 2015. 6. 5.);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13). Educating children in foster care: State legislation, 2008-2012. <http://www.ncsl.org>(검색일: 2015. 6. 5.); NCSL.(2015). Fostering connections act: State action.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fostering-connections-state-action.aspx>(검색일: 2015. 6. 5.)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함.

여기에는 주거, 교육, 자립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위탁아동이나 청소년, 시설보호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18세까지만 위탁보호나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며, 19세 이후에는 위탁보호나 시설보호를 받을 수 없고 독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 청소년들이 법적인 독립은 가능하더라도 경제적 독립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32) 형제자매의 위탁 보호지역/보호자에 대한 인위적인 분리금지 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이 원부모와 헤어져서 위탁보호가 결정될 때, 원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주(state)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위탁 보호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탁 부모와 원부모가 사는 거주지역이 동일한 경우를 우선으로 지정한다. 또한,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의 형제, 자매가 모두 위탁보호가 결정될 경우에는 동일 주정부 내에서 위탁보호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세에서 21세까지 위탁보호나 시설보호에 있던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 취업, 재정관리, 거주, 정서적 측면 등에서의 지원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훈련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매년 5,000달러 상당의 바우처(voucher)를 각 해당 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표 IV-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는 TRIO programs와 CCAMPIS program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the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TRIO programs는 프로파일 형태로 실행되는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TRIO programs로는 Upward Bound, Talent Search,

표 IV-2 연방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프로그램 II-TRIO programs (교육부를 중심으로)-예시

연방 법	프로그램 명	주요 대상, 목적 및 내용
the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Upward Bound	- 지원 대상: 만 13세~19세 저소득 청소년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지원하는 학생이 가족 내에서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 운영신청 기관: 대학교육 관련 담당자, 민간/사설 기관 및 조직, 고등학교 - 목적: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진학 준비 - 주요 지원내용: 학업지원(읽기, 쓰기, 학습방법) 학업 및 재정 관련 상담 및 워크숍 개별 학습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참여 지원 고등교육과정 및 대학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제공 대학입학 및 재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대학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지원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Talent Search	- 지원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자 - 운영신청 기관: 대학교육 관련 담당자, 민간/사설 기관 및 조직, 고등학교 - 목적: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진학 준비 - 주요 지원내용: 고등학교 재등록/재입학 또는 대학진학을 위한 학업, 재정, 경력 및 진로 상담, 개인 상담

연방 법	프로그램 명	주요 대상, 목적 및 내용
		경력/진로탐색 및 적성 검사 개별 학습지원 2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 관련한 정보제공 대학캠퍼스 탐문 학생 재정지원에 대한 정보제공(대학입학 및 재정에 관한 지원 포함)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지원 멘토링 고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에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의 참여기회 제공 및 가족을 위한 워크숍
	the Training Program for Federal TRIO program	– 지원 대상: TRIO programs를 직접 수행하는 지도자 및 교사, 프로젝트 책임자 및 관련 운영자 – 운영신청 기관: 공공 내지 민간 비영리 기관 또는 조직, 대학 기관 – 목적: TRIO programs를 직접 수행하는 지도자 및 교사 등의 관련 지식 및 기술,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함 – 주요 지원 내용: 컨설팅 서비스 TRIO programs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스트/검사 지원 서비스 특수한 TRIO programs 참여자와의 공동 연대활동 법률적 및 행정적 요건 및 절차 수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평가 대상 학생의 적절한 재정지원을 위한 노력 TRIO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지원 직원/관련 운영자를 위한 직무훈련/연수지원 교수법/교육공학 활용을 위한 지원서비스 적절한 인적 및 예산운영을 위한 지원

출처: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Network.(2015). [http:// dropoutprevention.org/services-certifications/partner-lead-agency for grants](http://dropoutprevention.org/services-certifications/partner-lead-agency-for-grants) (검색일: 2015. 6. 5.); ETS(2015). Dropping out of high school: Prevalence, risk factors, and remediation strategies. <http://www.ets.org> (검색일: 2015. 6. 5.); PCCY.(2014). How does access to childcare affect high school completion in Philadelphia's multiple pathways to graduation programs? Philadelphia, PA: PCCY.; U.S. Department of Education, & Federal Trio Programs(2008). A profile of the Federal TRIO programs and child care access means parents in school program. <http://www.edpubs.org>. www.ed.gov/ope/trio/. (검색일: 2015. 6. 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12). Facing the school dropout dilemma. Washington, DC. [http://www.aps.org/pi /families/resources/school-dropout-prevention.aspx](http://www.aps.org/pi/families/resources/school-dropout-prevention.aspx)(검색일: 2015. 6. 5.)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함.

Student Support Services(SSS)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며,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 터 대학교 4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는 것과 전문대학 내지 4년제 대학교에서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습득 지원을 목표로 한다. Upward Bound program은 1964년 저소득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진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기점으로 1965년에는 중등교육과정(중학교 및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Talent Search program이 추가되었다. 또한 1968년부터 Student Support Services(SSS)를 개발하여 취약계층 고등학생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업지원을 비롯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표 IV-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방 프로그램의 하나인 Child Care Access Means Parents in School(CCAMPIS) program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 캠퍼스 내에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졸업을 지원한다. 또한 각 주(State)정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중도탈락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갖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CCAMPIS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2000년 이후부터는 CCAMPIS의 기본운영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대 청소년 부모에게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들에게 보육서비스와 학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한편 재등록률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와 학업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성공적인 사례로는 필라델피아의 Project U-Turn을 들 수 있다. 필라델피아 U-Turn 프로젝트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Public Citizens for Children's and Youth(PCCY)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1980년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 시작한 PCCY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되었다. 이후 아동복지 및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는데 1987년에는 지역사회를 결집한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의료보건 향상을 추진성 과로 나타내었다. 1990년에 Philadelphia Youth Network(PYN)(필라델피아 청소년 연계망)를 구성하여 필라델피아시 정부(city government)의 필라델피아 청소년국(Philadelphia Youth Commission)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비영리기관 및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거리 청소년을 비롯하여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필라델피아 정부와 필라델피아 청소년 연계망(the Philadelphia Youth Network, PYN)은 2006년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을 막고 학교 중도탈락률 감소 및 학교 재등록률 향상을 위하여 지역단위 비영리기관과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Education Leading to Employment and Career Training, ELECT), 사례관리, 부모교육, 가정방문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캠퍼스 내 보육 서비스, 자녀양육 정보(Child Care Information Services, CCIS) 제공, 자녀양육을 위한 단기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률이 2006년 52%에서 2012년 64%로 상승되었다(PCCY, 2014, p.6). 또한 필라델피아 U-Tur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Multiple Pathways to Graduation(MPS) program도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를 중도탈락한 만 18세~21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정서지원, 사례관리,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3) 시사점

미국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정책들은 가정해체, 빈곤, 학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보호 또는 위기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건강 및 의료지원, 주거 지원, 기초생활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주요 지원 대상자는 위탁·가출·거리 아동 및 청소년이다. 이는 정책대상을 학생 신분의 유지 여부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drop-out children & youths in school)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지원하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정책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지원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와 달리 가정해체 및 빈곤,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 밖으로 밀려난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위탁보호를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특히 위탁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노숙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등 극빈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노숙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쉼터 형태보다는 성인이 될 때까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주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노숙이나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쉼터와 같이 단기적 주거지원보다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미국사회의 시각을 잘 드러낸다.

또한 미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학업중단 후 처방적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교통 및 기초생활 지원, 의료 및 보건 지원 등 통합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들이 성공적이고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 및 지원책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중·고등학교(the secondary education) 중도 탈락률 감소 및 재입학을 향상, 대학(the higher education) 진학을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 개선, 보육서비스 제공, 정신보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할 뿐 아니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업지원, 개별 과외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고등학교 중도 탈락의 주요 원인이 빈곤, 외국 출신 또는 비백인계 인종, 낮은 학업 수행 능력 등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Census Bureau, 2014, Child trends data bank, 2015 재인용).

이와 더불어 진로 개발 차원에서의 정책도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등교육이나 직업 전문화교육을 통해 학교 중도탈락 이후에도 숙련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 발생한 임신 및 출산에 따른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양육 및 보육을 위한 현금지원, 대학 캠퍼스 내 보육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내 보육 및 양육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강화는 미국사회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하는 여자 청소년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생계문제, 저임금 취업 등으로 학업중단이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주요했기 때문이다(ETS, 2015).

이러한 미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이나 개입 방안이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청소년 시기의 학업중단은 향후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배출하고 개인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 조치로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주정부, 연방정부가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하여

정책을 추진할 뿐 아니라 각 부처마다 개별화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별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이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ublic Citizens for Children's and Youth(PCCY)와 같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순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필라델피아 시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이와 같은 정책목표와 예산지원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들은 지원정책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P.L. 110-378) of 2013,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RHYTPA) of 2014의 연방법에 의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Illinois 주정부와 Minnesota 주정부와 같이 도시가 발달한 주의 경우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주거 및 고용지원, 생활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Indiana주의 경우는 거리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임시보호소나 단기숙터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50개주 모두가 똑같이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도시를 위주로 하는 주정부와 농·어촌을 위주로 하는 주정부 간에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의제나 성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주정부 차원의 개별적인 정책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와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차원의 개별적인 정책성과와 주요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는 것이 주요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의무교육 연한은 중학교 교육까지이지만 미국사회는 고등학교 교육까지이다. 모두 중등교육(the secondary education)으로 분류되지만, 미국사회의 평균적인 고등학교 졸업률이나 대학 진학률은 한국사회와 비교하여 낮으며 그 차이가 크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의 높은 고등학교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은 미국 정부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이에 반해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정부 부처 간에 또한 지역 간에 한시적이거나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방안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Census Bureau의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이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주요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 분석을 기초로 정책 및 개입방안 마련과 성과분석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정책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즉 앞서 [그림 IV-1]에서 제시한 미국 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의 변동추이 분석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nsus Bureau를 통해 추계된 자료를 Child Trends Data Bank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주제에 대한 여타 기초 통계자료를 함께 통합하여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아동 추세 자료를 생산하고 축적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빅 데이터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뿐 만 아니라 통계를 유추하기 힘든 거리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이며 세부적인 통계분석이나 연구분석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빅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식은 한국사회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영국사례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청소년을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 영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주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영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생겨나는 사회적 배경과 원인, 종류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여러 지원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배경

런던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이유에는 단지 학교에 가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 교육청은 청소년이 학교에 최대한 다닐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힘쓰는 한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Local

Government Ombudsman, 2011:1). 이러한 의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만약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했을 경우 다양한 지원과 조치를 통해 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학교교육으로의 복귀를 강조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정규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의 교육은 다음 발달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영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초교육과정(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졸업장이나 교육경험이 없이는 직업의 세계로의 진입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2011년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각 지방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부여는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Local Government Ombudsman, 2011).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육관련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진다.

(2) 학교 밖 청소년 발생원인 및 현황

① 일반적인 원인

Dearden, Emmerson, Frayne, & Meghir(2011)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며 미국과 영국의 비교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교육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EMA)으로 인해 학교 재학률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당은 연간 소득 3만 파운드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주당 30파운드, 20파운드, 10파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때 해당 연령은 16세~19세이며, 전일제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영국은 2010년 잉글랜드가 교육수당을 철회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여전히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잉글랜드는 교육수당이 학교 재학률을 높이는데 그다지 높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수당이 학교 밖 청소년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본 것이다(Dearden et al., 2011). 잉글랜드의 경우 기존 교육수당이 청소년에게 직접 전달되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는 청소년이 속한 학교에 간접적으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나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예방이나 학교 재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삭감된 교육예산에 대한 변명이라는 비판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런던지역 청소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보고되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5).

- 이사를 와서 새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결원이 없어 전학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 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퇴학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학대 같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한 학습지원이 요구되나 학교가 그러한 지원을 하지 못하여 학교에 재학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이유들 중에서 첫 번째인 학교에 결원이 없어 전학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퇴학과 재입학으로 생겨난 학교 관련 문제나, 가정폭력 같은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학습능력이나 학교부적응의 문제는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② 니트족 청소년

런던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원인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자 했다고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또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경우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즉 청소년 스스로가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위의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니트족 청소년의 숫자가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니트족 청소년의 숫자는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5).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받아야 할 청소년이 구직활동이나 직업교육을 받지 않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적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각 지방정부가 니트족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교육참여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DfE, 2014). 니트족 중에서도 특히 의무교육이 끝난 16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25세 미만의 학습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후기 청소년의 교육참여를 강조하여 안전한 성인기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방정부가 니트족 청소년이 학교나 교육과정으로 복귀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예산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니트족 청소년의 학교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DfE, 2014).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업수당을 줄이고 경제적 창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확보와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조사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6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중 943,000명(청소년 인구의 13%)이 니트족에 해당된다고 보고되었다. 이 수치는 2014년 12월과 비교하면 20,000명(0.3%)이 감소한 것이고 2014년 초와 비교하면 45,000명(0.5%)이 감소한 것이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5). 니트족 중 46%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정작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체 니트족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즉 취업의사도 없으면서 학교에 재학 중이지도 않은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약 7%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결코 낮지 않은 비율로서 영국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2)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지원 정책

(1) 교육법(Education Act 1996)³³⁾

1996년 교육법은 5세에서 16세의 의무교육 기간에 놓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질병이나 퇴학, 기타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은 학교나 혹은 다른 기관, 예를 들면 대안학교 또는 가정에서라도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 필요한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적합한 교육’이란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학습능력 및 태도, 신체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일제(full time basis)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전일제 수업 시간은 <표 IV-3>과 같다.

3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56/contents> (검색일: 2015. 6.25)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 IV-3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전일제 수업 시간

학년	시간(주당)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5세 ~ 7세)	21시간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7세 ~ 11세)	23.5 시간
중등학교 7학년 ~ 10학년(11세 ~ 15세)	24 시간
중등학교 11학년(15세 ~ 16세)	24 시간

1996년 교육법 제 436조 A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취학대상을 파악하여 실제로 취학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교육법에 의해 취학 중에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논의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방정부 법정 지침(Children missing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³⁴⁾

① 법정 지침의 배경

2015년 1월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교육을 놓치고 있는 아동·청소년(Children missing education: CME,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 지침은 2013년에 제시된 지침을 보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책임이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지침은 1996년 교육법 제436조 A항의 내용과 2006년 교육과 감사에 관한 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 제4조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정 의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의무 지침이지만, 학교 운영자 및 교직원, 관련 학자, 소년사범 기관, 공립학교, 보건당국과 경찰서 등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연령, 능력, 적성, 장애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전일제(full-time)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Children are missing education: CMC)은 학습발달상의 문제를 갖게 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대의 위험에

34) Department for Education(2015). Children missing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Department for Education, 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처할 확률도 높다. 또한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후기 청소년기에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이들이 학교에 다시 복귀하는 적응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5년 교육부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방정부 법정 지침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② 학부모에 대한 책임 부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정 지침에는 학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자녀를 홈스쿨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취학대상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홈스쿨링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홈스쿨링에 대한 모니터링의 책임이 있다.

③ 학교에 대한 책임 강화

학교의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학교는 매일의 출석 점검을 통해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제대로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10일 이상 결석한 경우나 학교의 허락 없이 그 이상 결석한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어떤 이유론든 그 학교에 더 이상 재학하지 않는 경우나 학교 출석률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2002년 개정된 교육법 제175조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학교의 의무를 명시하며 안전을 보장하고 지키는 차원에서 무단결석에 대하여 학교로 하여금 그 이유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결석의 이유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학을 내리는 경우에도 6일째 되는 날부터는 학교 징계 규정(school exclusions guidance)에 의해 정학을 받은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학교의 의무이다.

④ 기타 지방정부의 의무

이상의 의무 외에도 지방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정학 6일차부터 전일제 수업 및 교육 제공
-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점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학교를 결석하는 아동·청소년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을 때 학교출석 명령을 발행
-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고소 및 벌금 부여

⑤ 상황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

○ 학대나 방임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

학대나 방임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 결석 이유가 학대나 방임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면 지방정부 내 아동·청소년 보호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차원에서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경찰이 개입되어야 하며 이 경우 교육부의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2013)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집시(Gypsy) 청소년

유럽에는 집시의 삶을 선택하여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초등학교까지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이후에는 학교 재학률이 떨어진다.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지역을 옮기거나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에 이런 집시 아동이나 청소년이 발견될 경우 지방정부 내 집시(여행객) 교육지원 서비스(Traveller Education Service: TES)를 활용하여 최대한 의무교육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원격교육이나 이러닝(e-learning)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군 자녀(Families of Armed Force)

부모가 군대에 복무중인 경우는 직업의 특성상 영국 내와 해외로 잦은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특수한 환경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지방정부가 교육적 책임을 직접 지기보다는 중앙정부와 군차원에서 교육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이러한 아동·청소년이 지역 내에 있음을 보고하고 서비스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

○ 실종 아동·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

실종이나 가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각종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 지방정부는 실종이나 가출로 신고된 아동·청소년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을 찾아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년사법

8세에서 18세의 소년사법 제도 하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이들이 수감 중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원이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지방정부는 소년원이 적절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교육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별다른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아동·청소년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결석이 잦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방정부는 그 사례와 이유를 분석하고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에 재학하고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지방정부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아동·청소년의 가족의 이사로 부득이 하게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지방정부는 새로 이사 가는 집 주소지 관할 학교에 전학이 완료되어 오랫동안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재학이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school2school'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전학을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청소년이 건강상의 이유나 거주지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 재학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의료시설과 연계하여 지원하거나 주택지원 부서, 소년사법팀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3) 민간 지원 정책 사례 : Centrepont³⁵⁾

다음은 민간차원에서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생활을 돕는 단체인 Centrepont의 지원과 실제 활동사례에 대한 소개이다.

(1) 주거지원

Centrepont는 런던 전역과 영국 북동부에서 매년 8,4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주거지원을 해오고 있다. 가출로 인한 노숙생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응급 야간쉼터, 9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쉼터,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중장기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Centrepont의 주거지원을 받는 청소년들 중에는 미혼부모와 소년원 출신의 청소년 등 다양한 문제와 필요를 가진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

쉼터 외에도 보다 장기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하여 Centrepont에서는 영국 북쪽 지역에 비어있는(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헌 집을 직접 개조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35) <http://centrepont.org.uk/about-us/what-we-do> (검색일 2015. 6.25)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정부의 'Empty Homes Community Grant Fund'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영국 전역의 5개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Centrepoint의 목표는 최종 74개의 빈 집을 호스텔이나 혹은 공동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가출 청소년이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건축회사가 기술과 훈련, 인턴십 기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집수리와 개조와 관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주거문제를 해결 할 뿐만 아니라 주택 개조 및 건축에 관련된 직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주거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학교 밖 청소년, 혹은 니트족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이어야 한다.

(2) 건강지원

가출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지 못할 확률이 높다. Centrepoint의 자체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노숙자 쉼터를 이용할 확률이 8배 이상 높으며, 쉼터도 아니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아무 곳이나 떠돌며 생활할 확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11배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Centrepoint는 입소하는 청소년에게 신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즉 스트레스 지수가 높거나, 우울, 불안, 자살충동, 무기력증이 발견되는 경우는 중장기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운동치료가 병행된다. 약물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워크숍을 운영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는 수업도 병행된다. 성교육과 인간관계에 관한 훈련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으며 정서적 지원을 위한 멘토링이 운영되기도 한다.

2015년 현재 Centrepoint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33%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되지만 이들 중 7%만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진단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가출청소년의 신체건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The Homeless Link Health Audit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69%가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하며 가출 청소년 중 단지 4%의 청소년이 영국 청소년에게 권장되고 있는 하루 5가지 야채와 과일을 먹는 생활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 36%의 청소년은 마약류의 약물을 섭취하기도 하며 34%는 과다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치의 및 병원, 스포츠 시설과의 연결 및 지원을 통해 가출 청소년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학습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공교육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학습지원은 Centrepoin의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지원 및 학습지원, 직업체험을 바탕으로 한 직업교육 제공, 디지털 문해교육,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교육, 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술교육, 경제교육 등이 학습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부족한 학습지원 이외에도 이력서 작성, 인터뷰 기술, 직업정보 탐색 및 지원서 작성, 직업박람회 참가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세계로의 건강한 이행과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제공되고 있다. 특히 6주에 걸쳐 진행되는 ‘Workwise’ 라는 집중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하면 실제 고등학교 졸업수준에서 요구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직업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4) 독립지원

Centrepoin에서의 거주기간이 종료된 후 독립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혼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안정적인 독립생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소기간이 끝난 뒤에도 6개월 정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지하기도 한다. 특히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당 청구나 공과금 처리 방법, 구직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또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아 보증금을 내고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대여하는 등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Lifewise라는 워크숍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재정관리나 건강관리 등에 대해 미리 준비시키도록 하는데 이는 퇴소 이후에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으로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5) Centrepoin 의회 운영

Centrepoin 의회는 Centrepoin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입주해 있는 16세에서 25세의 청소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12개월이며 또래의 필요를 대리하고 또래들에 의해 선출된다. 선출 된 후에는 약 8주의 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들은 Centrepoin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거나 지역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Centrepoin 의회 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례모임을 가지며 Centrepont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행 중인 캠페인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노숙자나 학교 밖 시설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Centrepont가 이렇게 유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가출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공적으로 의견 수렴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6) 파트너십 구축

Centrepont는 영국 전역의 가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이다. 각 지역에서 청소년 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전문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와 정책, 서비스 전달에 대한 평가와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의 실무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전국적으로 비슷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8,400명이 넘는 가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하다.

(7) 정책반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

Centrepont는 가출 청소년이나 노숙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교육 및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고용, 가족에 대한 지원, 건강, 그리고 지원금 및 개인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관련부처의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 지역 시·의원 등을 만나 법의 재정이나 개정에 대한 요구, 부처별 지원 방안,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와 캠페인을 위해 주요 대학과의 공동연구와 기관의 자체연구를 통해 근거 자료와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가출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가 개인의 필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Centrepont 의회와 더불어 정책제시나 캠페인으로 해결된 성과들이 있으며 이로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혜택을 입기도 하였다.

성과의 예는 첫째, 21세가 되는 생일이 되면 중단되던 수입지원금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훈련기관에 등록하여 실제로 직업훈련중인 경우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연장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그 결과 2012년 4월부터는 가출이나 독립으로 인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21세가 지난 이후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직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노숙자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가 25세 미만에게 지원되던 주택 지원금을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Centrepont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지속적으로 25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택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8,000명의 장애 청소년과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총 385,000명의 청소년이 주거지원금을 계속 받게 되었다. 또 204,000명은 이미 자녀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주택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은 것은 가출이나 독립생활 이후 돌아갈 원가정이 없는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세 번째 성과는 1996부터 시행되어오던 25세 미만자의 월세 임대에 관한 권한을 2011년부터 35세 이후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보수연합당의 정책을 철회시킨 것이다. 35세 이상만이 월세를 임대할 수 있게 되면 매년 약 19,200명의 25세에서 34세의 인구가 월세 임대와 관련한 재정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를 사전에 막은 것은 Centrepont의 중요한 업적이다.

네 번째 성과는 교육수당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잉글랜드 주는 다른 주들과 달리 보수연합당이 집권하면서 교육수당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2011년 Centrepont와 관련 정치인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16세 이후 의무교육이 끝난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보수연합정부는 1억 5천만 파운드를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수당으로 배정하여 매년 23,000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의 성과는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주거비 지원에 관한 것이다. 2011년 정부가 1년 이상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되던 주거비 지원의 10%를 삭감하려던 것도 관련 단체들 및 Centrepont의 노력으로 철회되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Centrepont만의 단독 성과라 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의 지지와 노동당 소속 정치인들의 도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출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대표적인 성과 외에도 Centrepont는 지방정부를 설득하여 16세~17세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쉼터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긴급 우선지원, 청소년 친화적 아웃리치의 확대 및 활성화, 지방정부의 가출 청소년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대책 수립, 가출 청소년 대상 건강지원 서비스 체계의 정비,

관련 교육기관과 청소년 간의 연계, 각종 법률지원 서비스 등 가출 이후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을 도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4) 시사점

영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의 열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제수준의 차이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한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출석률이 좋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결석의 이유를 분명히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장기결석이나 학교중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한국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 수준과 적성에 맞는 학교수업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의 예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 외에도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학교 배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각 원인에 따른 대응책을 개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와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학업 능력의 부족,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환경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 진단과 분석을 통해 이들의 학교 및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대상에는 이민자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영국은 지방정부에게 집시 아동·청소년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국민은 아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모든 아동·청소년에게는 보편적인 발달권과 참여권이 있음을 인식하고 영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다문화가정청소년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이민자 자녀, 장기 한국 체류 자녀, 또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 등 자칫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의 확장은 개인의 삶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이나 위험한 청소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들이 학교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경우가 더 많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과 도움이 뒤따른다면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로의 복귀나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가 병원이나 지역기관 등과 연계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가진 청소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증진하려는 입장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 사례로 소개된 Centrepoin의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활성화하려는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Centrepoin는 학교 밖 청소년을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시키려는 노력 대신 이들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더 이상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최저임금의 상향과 안심알바센터의 적극적인 운영만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Centrepoin가 지적하는 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비행을 저지르게 되거나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지원할 예산의 확보 및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 의료시설, 소년사법팀,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각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폭력이나 비행 등의 피·가해자가 되거나 지원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청소년이 일시적으로 학교를 벗어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Centrepoin는 중앙정부의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대상 복지 예산 감축에 맞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대변하고 옹호하여 복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단체 및 정치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수연합정부의 청소년에 관한 복지예산 축소를 막아내기도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정부 주도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도 필요하지만 민간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시설이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양방향식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민간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오랜 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차원에서부터 지원정책이 기획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이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민간단체 간 연대 및 공조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정책기조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연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연합이나 쉼터의 연합, 혹은 청소년시설들이 함께 연대하고 공동의 사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단체 혼자의 힘으로 정부에게 예산 지원을 요구하거나 정책 철회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Centrepoint의 사례는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고 있다. 한국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를 직접 경청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당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즉 20대 초·중반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우리의 대학생 정도에 해당하는 20대 중반의 후기 청소년 세대에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즉 정규교육과정에 있지 않으면서 주거가 불안정하고 직업이 없는 20대 초반 후기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은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사실상 혜택을 받거나 청소년 지원정책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경우도 만 24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20대의 청소년은 지원대상자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서 이런 후기 청소년들이 성인의 삶으로 전환하기까지 필요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자원 투자이자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영국처럼 후기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직업교육의 기회제공 및 구직수당 제공 등은 한국의 후기 청소년인 20대 초·중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자신의 미래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3. 일본사례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 부등교 및 중도퇴학자의 개념

일본에서는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부등교(不登校), 고등학교 중도퇴학자(高等學校 中途退學者)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의무교육기간은 초·중학교 교육기간인 9년으로 의무교육 시기인 초·중학교에서는 학업중단이 아닌 부등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중도퇴학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부등교 학생이란 ‘어떠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혹은 사회적 요인이나 배경으로 인해 등교를 하지 않는, 혹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연간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단 질병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학생은 제외)’을 뜻하는 용어이다(文部科學省, 2003). 1992년 당시 문부성(현재 문부과학성)은 등교거부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가치판단이 포함되지 않는 ‘부등교’를 해당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牟田武生, 2005; 황순길·여인중·남재량·장미경·허묘연·권해수·박정민·손재환·홍지영, 2005; 서정아, 2006에서 재인용). 한편, 고등학생에게 주로 적용되는 중도퇴학자라는 용어는 해당 학년도 중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징계처분을 받아 퇴학당한 자를 뜻한다. 단 다른 학교로의 전학자 및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는 제외하였다(文部科學省, 2013).

일본에서 부등교 학생 관련 보고는 195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중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부등교 학생에 대한 통계는 제외되어왔다. 그러던 중 2005년부터 고등학교 부등교생의 규모를 문부과학성 조사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2004년도 학생지도상의 각 문제 현상에 대해’라는 조사에서 밝혀진 부등교 고등학생의 실태를 보면 2004년에는 고등학교 부등교생 중 36.6%가, 2005년에는 36.8%가 중도퇴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등교가 고등학교 중도퇴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北村陽英, 2007) 부등교와 중도퇴학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등교에 대한 일본 사회의 기본인식은 다음과 같다³⁶⁾. 첫째, 특정 아동에게 특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동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에 대한

36) 이 문단은 「文部科學省(2003). 不登校への対応について」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부등교라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진로와 사회적 자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부등교의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상 과제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부등교생과 중도퇴학생에 대해 '특정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겨 왔지만, 1989년 문부과학성이 '학교 부적응 대책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를 발족시키면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어떤 아동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사회적 자립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차 이들이 고용과 노동환경의 불이익을 겪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의 문제와도 연결 지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

(2) 부등교 및 중도퇴학자의 현황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표하는 '아동학생 문제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각 문제에 관한 조사'(文部科學省, 2013)에 따르면 부등교 및 고등학교 중도퇴학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등교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의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표 IV-4>와 같다. 초·중학생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부등교 학생 중 많은 수가 중도퇴학을 선택하고 있으나 통계상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에서 부등교 학생과 중도퇴학자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부등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시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다시 2013년에 감소하고 있어 감소와 증가의 반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文部科學省, 2013).

표 IV-4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생의 부등교 수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초·중학생	126,805 (1.18)	122,432 (1.15)	119,891 (1.13)	117,458 (1.12)	112,689 (1.09)	119,617 (1.17)
고등학생	53,024 (1.58)	51,728 (1.55)	55,776 (1.66)	56,361 (1.68)	57,664 (1.72)	55,657 (1.67)

출처: 文部科學省(2013). 平成 25 年度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p60, 72 '부등교 학생 수'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IV-5 초·중·고등학생의 부등교 이유

(단위: %)

분류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학교 합계	고등학교
학교 내 문제	따돌림	1.7	1.6	1.6	0.3
	따돌림을 제외한 친구관계 문제	11.2	15.9	15.0	8.7
	교직원과의 관계 문제	3.7	1.6	2.0	0.6
	학업 부진	7.1	9.2	8.8	7.5
	진로에 대한 불안	0.4	1.5	1.3	3.5
	클럽 및 동아리 활동 부적응	0.1	2.1	1.7	1.4
	학교 규칙 관련 문제	0.6	2.0	1.7	2.0
	입학, 전입, 편입학, 진로 시 부적응	2.3	2.9	2.8	5.1
가정 내 문제	가정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9.6	4.5	5.5	2.9
	부모와의 관계 문제	19.1	8.8	10.9	4.7
	가정 내 불화	4.8	3.6	3.8	2.2
본인 문제	질병에 의한 결석	9.6	7.5	7.9	7.8
	비행	1.1	10.3	8.4	12.3
	무기력	23.0	26.2	25.6	30.3
	불안 등 정신적 혼란	35.3	26.2	28.1	16.5
	의도적 거부	4.9	4.8	4.8	5.1
	기타 본인 관련 문제	5.3	4.9	4.9	4.2
기타		5.4	1.5	2.3	2.1
불명		1.6	1.6	1.6	2.8

출처: 文部科学省(2013). 平成 25 年度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p63, 76 '부등교 사유를 바탕으로 재구성

초·중·고등학생들의 부등교 이유는 <표 IV-5>와 같다. 먼저 초·중학교에서는 '불안 등 정신적 혼란'이 2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무기력'이 25.6%, '따돌림을 제외한 친구관계 문제'가 15.0%, '부모와의 관계 문제'가 10.9%로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에서는 '무기력'이 30.3%로 가장 많았고, '불안 등 정신적 혼란' 16.5%, '비행' 12.3%, '학업부진' 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학교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고등학교 부등교 대책마련 시 비행과 학업부진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³⁷⁾(文部科学省, 2013).

37) 참고 : 고등학교의 이유별 장기결석자 현황(인원수-비율)

표 IV-6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중도퇴학자의 수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6,243	56,947	55,415	53,869	51,781	59,742
(2.0)	(1.7)	(1.6)	(1.6)	(1.5)	(1.7)

출처: 文部科学省(2013). 平成 25 年度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p85 '중도퇴학자수 및 중도퇴학을 추이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IV-7 초·중·고등학생의 부등교 이유

(단위: 명, %)

내용		아동 수	비율
학업부진		4,845	8.1
학교생활, 학업부적응	원래 고등학교 생활에 열의가 없었다	8,742	14.6
	수업에 흥미가 없다	3,447	5.8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3,726	6.2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	2,799	4.7
	기타	3,012	5.0
	합계	21,726	36.4
진로변경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할 희망	6,764	11.3
	전수학교, 각종학교 입학할 희망	787	1.3
	취직을 희망	7,602	12.7
	고등학교졸업정도인정시험 수험 희망	1,590	2.7
	기타	2,925	4.9
	합계	19,668	32.9
질병, 부상, 사망		2,245	3.8
경제적 이유		1,337	2.2
가정 사정		2,541	4.3
문제행동 등		2,874	4.8
기타		4,506	7.5
합계		59,742	100.0

출처: 文部科学省(2013). 平成 25 年度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p86 '사유별 중도퇴학자 수'를 바탕으로 재구성

구분	부등교	경제적 이유	질병	기타	합계
2013년	55,657(1.67)	2,281(0.07)	12,792(0.38)	13,235(0.40)	83,965(2.53)

출처: 文部科学省(2013). 平成 25 年度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p.72. '고등학교 장기 결석자수 (사유별)'

한편 고등학교 중도퇴학자의 추이를 살펴보면(<표 IV-6>), 2008년 2.0%였던 비율이 2009년부터 1%대로 떨어져 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1.7%로 소폭 증가하였다(文部科學省, 2013). 중도퇴학자들의 사유를 분류해 보면, ‘원래 고등학교 생활에 열의가 없었다’는 응답이 14.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순서대로 ‘취직을 희망해서’가 12.7%, ‘다른 고등학교 입학할 희망해서’가 11.3%, ‘학업부진’이 8.1%로 나타났다. 한편 중도퇴학의 이유를 살펴보면, 취직이나 전학을 중도퇴학의 이유로 꼽은 경우도 상당하여(<표 IV-7>), 고등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교육 지원에 대한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文部科學省, 2013).

2) 관계 법령: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³⁸⁾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³⁹⁾은 2009년 7월 1일에 성립, 7월 8일에 공포되어 2010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배경으로는 첫째, 유해정보 범람 등과 같이 아동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의 악화, 둘째, 니트·은둔형 외톨이·등교거부·발달장애 등과 같이 행동·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년의 증가, 셋째, 기존의 개별분야에 대한 종단적 대응이 가지는 한계가 상호작용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이 법은 일본 최초로 아동·청년 지원과 관련해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재생보호, 고용 등 각 관련 분야별 시책의 종합화를 도모하고 있어 관련 부처 간의 협력에 따른 종합적 지원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은 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연결망을 정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조직, 제도의 개요, 지역 내 계획과 윈스톱 상담창구 등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교교육법, 아동복지법, 고용대책법 등 관계 법률을 아우르는 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을 추진하였다.

법률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곤란을 겪는 아동·청년’(제1조)에 대한 지원이며 특히 법의 성립과정에서 고등학교 중도퇴학자의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東京都教

38)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에 차이가 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만20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만18세 미만,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법 사업인 '아동꿈기금'에서는 청소년을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는 만20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통일된 기준은 없다. 새로 제정된 이 법안에서는 '아동과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해 영유아기부터 30대까지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육성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아동·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9)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내용에 대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law_s2.pdf#search='%E5%85%90%E7%AB%A5%E8%8B%A5%E8%80%85%E8%82%B2%E6%88%90' (검색일: 2015. 6. 5).

育委員會, 2013). 일본에서도 아동·청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아동·청년이 당면하는 어려움의 유형⁴⁰⁾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0년 7월 23일에는 이 법에 근거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차원의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을 책정했다⁴¹⁾. ‘아동·청년비전’은 세 가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꼽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 어려움에 맞춘 지원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은 아동·청년육성지원의 네트워크 정비 차원으로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역 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개별분야에 대한 시책과 지견을 수집한 후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사례는 <표 IV-8>과 같이 고용, 보건·의료, 교육, 복지, 교정,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단체와 전문가가 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되며, 복수분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표 IV-8 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사례

분야	단체	개인
고용	지역청년서포터스데이션사업, 합숙형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PO 등의 법인·단체, 헬로워크, 직업훈련기관, 잡카페	커리어 컨설턴트
보건, 의료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보건센터, 병원, 진료소, 심리상담소	의사, 간호사, 보건사, 심리직, 정신보건복지사
교육	교육위원회(교육청에 해당), 교육센터, 학교(대학 포함)	교장, 기타 교원,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상담사, 특별지원교육코디네이터
복지	복지사무소(가정아동상담실 포함), 사회복지시설, 아동상담소, 발달장애지원센터,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보육사, 가정상담원, 민생위원·아동위원, 사회복지사
교정, 갱생보호	보호관찰소, 소년감별소, 소년서포터센터	보호사

출처 : 内閣府(2010). 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設置・運営指針. 平成 22年 2月 23日. pp5-6.

40) 곤란의 유형으로는 ①니트, 은둔형 외톨이, 등교거부, ②장애, ③비행·범죄, ④빈곤, ⑤불안정한 거주지(요보호, 비행소년) ⑥소수 집단의 문제(성동일성장애, 심대부모, 혼외 자녀 등 포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1) 아동·청년비전 내용에 대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law_s2.pdf#search=%E5%85%B0%E7%AB%A5%E8%8B%A5%E8%80%85%E8%82%B2%E6%88%90 (검색일: 2015. 6. 5).

3) 지원 정책

(1) 관련 조사 실시를 통한 현황 파악(부등교, 고등학교중도퇴학자)

일본에서는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앞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표 IV-9>). 이 중 ‘학생의 문제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각 문제 관련 조사’(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는 문부과학성에 의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조사이다(文部科学省, 2013).

표 IV-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조사

주관기관(부서)	제목	연도
도쿄도 교육위원회	도립고등학교중도퇴학자 등 추적조사 보고서(都立高校中途退学者等追跡調査 報告書)	2013년 3월 (平成 25 年 3 月)
문부과학성	학생의 문제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각 문제 관련 조사(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매년
내각부 (공생사회정책 담당)	청년 의식에 관한 조사(고등학교중도퇴학자 의식에 관한 조사)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高等学校中途退学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	2010년 (平成22年度)
	'곤란을 겪는 아동·청년 지원자 조사' (「困難を有する子ども・若者の支援者調査」)	2011년 (平成23年度)
	'곤란을 겪는 아동·청년 및 가족 대상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困難を有する子ども・若者及び家族への支援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12년 (平成24年度)
	'청년 인식에 대한 조사'(니트, 은둔형외톨이, 부등교 아동·청년 지원 등에 관한 조사)(「若者の考え方についての調査」(ニート' ひきこもり' 不登校の子ども・若者への支援等に関する調査))	2012년 (平成24年度)
	'곤란을 겪는 아동·청년 및 가족 대상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困難を有する子ども・若者及び家族への支援に関する調査研究)	2013년 (平成25年度)

(2) 부등교 지원⁴²⁾

① 부등교 지원의 관점

문부과학성(우리나라 교육부에 해당)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관점에서 부등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다. 부등교는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진로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각 학교 차원에서 진로형성에 필요한 학습지원,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는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의 중요성이다.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과 다양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지역, 가정이 밀접한 연계를 취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행정기관, 민간시설, NPO 등과의 적극적 연계·협력을 취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립을 위한 학교교육의 의의와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의 학교는(초등학교, 중학교) 사회적 육성과 학습지원의 장으로써 중요한 의의와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변과의 접촉·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부등교생의 주체적인 사회적 자립과 학교복귀를 위해 주변 사람은 상황을 주의 깊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와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 지원을 위해 자유로운 상담이 가능한 창구를 설치하고 보호자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호자와 학교관계자 사이에서도 상호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② 부등교 관련 주요 정책⁴³⁾

문부과학성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의 정비

교육위원회는 부등교 학생의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⁴⁴⁾. 부등교 학생의 집단생활 적응, 정서안정, 기초학력 보충, 기본적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해 주로 상담·적응 지도를 실시한다. 지도원의 비상근 비율이 높아(2007년 기준 73.4%) 충분한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상근직원의 배치, 상담전문가

42) 이 절의 내용은 http://www.mext.go.jp/a_menu/shotou/tutoukou/main.htm (검색일: 2015. 6. 5)에 제시된 不登校への対応についての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3) 이 정책의 내용은 「문부과학성(2009). 不登校の児童生徒への支援について. 初等中等教育分科会(第66回) 配付資料4(その2)」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이에 대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siryo/attach/1286947.htm (검색일: 2015. 6. 5)

44) 2010년 기준 1,265곳이 설치되었으며 초·중학교 부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많지만 고등학교 부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도 있다.

등 전문가 배치, 지도원 연수 내실화 등이 해결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 지도요록(指導要録)⁴⁵⁾상 출석 인정 조치

부등교 학생 중에는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나 프리스쿨 등 학교 밖 시설에서 상담·지도를 받는 사례도 있다. 학생의 노력을 학교가 적절히 평가하고 학교복귀 등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부등교 학생이 학교 밖 기관에서 지도를 받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으로부터의 지도요록(학교생활기록부) 상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통학정기승차권제도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부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교육위원회, 학교, 학교밖 공적기관 및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IT 등을 활용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⁴⁶⁾. 이 지원책은 부등교 학생 중에는 가정 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부등교로 인해 발생한 학습지연이 향후 학교 복귀 및 중학교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IT 등을 활용한 학습활동이 학교 복귀를 위한 첫걸음이며 부등교 학생의 자립을 위해 유효·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지도요록(指導要録)상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일례로 2007년에는 초등학교 43명, 중학교 176명의 학생이 자택에서 IT 등을 활용해 학습활동을 실시하여 출석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2009년 3월 12일자 초·중등교육부장통지에 의해 부등교 학생이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 민간시설 등 학교 밖 기관에서 지도 등을 받을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은 지도요록상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 부등교 학생 대상의 학교 설치 관련 교육과정의 탄력화

2005년 7월 6일,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구조개혁특별구역법(構造改革特別區域法)에 따른 특례 조치로 전국적으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학교적응이 어려워 상당 기간 초·중·고등학교 및 중등교육기관을 결석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문부과학대사가 인정할 경우 현행 교육과정 기준을 따르지 않는 특별 교육과정 편성의 교육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09년 6월 현재, 10개교가 문부과학대사의 인가를 받아 부등교 학생의 학습상황에 맞춘 소집단 지도, 성취수준별 지도, 개별 지원,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활용 등

45)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46) 이하의 절에 서술된 내용은 「부등교 학생이 자택에서 IT 등을 활용한 학습활동을 실시할 경우의 지도요록상 출석 인정 등에 대해(통지) 2005년 7월 6일 (不登校児童生徒が自宅においてIT等を活用した学習活動を行った場合の指導要録上の出欠の取扱い等について (通知) 平成17年7月6日)」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출처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4121502/06041201.htm (검색일: 2015. 6. 5)

특별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중학교 졸업인정시험의 수험자격 확대 및 고등학교 입학시험 배려

부등교로 인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같은 연령의 학생보다 뒤처지는 일 없이 고등학교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중학교 졸업인정시험의 수험자격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고등학교 입학생 선발 시, 부등교 학생에 대해 지원서 이외의 기타 선발자료를 활용해 지원자의 학교생활이 아닌 다른 활동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선발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기타

이 밖에도 학교 내에 ‘학교 상담사’와 ‘학교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내에 고도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학교 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24시간 전화상담을 실시해 교육상담체제 정비를 지원하며 상담사와는 별개로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해 학생이 놓인 다양한 환경에 개입하고 지원을 실시할 학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교육상담체제의 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스쿨링 서포트 네트워크 정비사업(SSN)의 실시를 통해 부등교 학생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을 비롯해 한층 더 세심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과 지도원의 연수, 가정 방문지도 등 부등교 대책에 관한 핵심기능(스쿨링 서포트 센터)을 내실화하고, 학교-가정-관계기관이 연계한 지역 내 서포트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③ 후생노동성 부등교 지원⁴⁷⁾: 지원 관련 시설 설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에서도 부등교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센터, 아동가정지원센터 등을 지역사회 내에 설치해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는 ‘모두의 멘탈헬스 종합 사이트’(みんなのメンタルヘルス総合サイト)⁴⁸⁾와 ‘마음도 점검해요-청년을 지원하는 멘탈헬스 사이트’(こころもメンテしよう～若者を支えるメンタルヘルスサイト)⁴⁹⁾ 라는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을 들 수 있다.

47) 이에 관한 내용은 http://www.mhlw.go.jp/kokoro/youth/consultation/window/window_02.html (검색일: 2015. 6. 5)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8) <http://www.mhlw.go.jp/kokoro/> (검색일: 2015. 6. 5)

49) <http://www.mhlw.go.jp/kokoro/youth/> (검색일: 2015. 6. 5)

④ “다양한 교육기회 확보법”(가칭) 제정 움직임

2015년 5월 27일자 일본의 각 언론에 따르면 부등교 대책으로 ‘학교 밖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현재 초·중학교로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의무교육 영역을 프리스쿨과 같이 초·중학교 이외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15년 7월 중 국회제출 및 201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이 5월 27일에 총회를 열고 승인하였는데 법안의 이름은 “다양한 교육기회 확보법”(多様な教育機会確保法, 가칭)이며 부등교 등을 이유로 보호자와 아동이 학교 밖에서의 학습을 희망하는 경우, 그것을 제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아사히신문 2015-05-27, 学校外での義務教育認める法案、7月にも國會提出へ⁵⁰⁾).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가정에서 ‘개별학습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교육위원회에 신청한 후 교육위원회에 설치된 ‘교육지원위원회’로부터 계획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출계획이 인정되면 교육위원회 직원과 학교 상담복지사 등의 정기적 방문을 통해 학습조언을 받게 되고 학습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도 계획되어 있다.

(3) 고등학교 중도퇴학자 지원⁵¹⁾

① 지원의 기본적 관점⁵²⁾

문부과학성이 가지는 고등학교 중도퇴학자 지원의 관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다양하고 개성적인 학생의 실태를 반영해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유연화, 개성화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중도퇴학의 이유와 원인은 학생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각 학교 지도의 내실화와 학교-가정간의 연계에 의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진로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지도가 중요하다. 셋째, 개인별 지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 관심, 진로 수준 등에 맞춰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실시하는 등 학습지도의 개선 및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육상담의 내실화, 보호자와의 밀접한 연계가

50) 이하 이 문단의 내용은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528-00000020-asahi-pol> (검색일: 2015. 6. 5)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1) 内閣府(2011). 平成23年版 子ども・若者白書 特集 高等学校中途退学者の意識と求められる支援. 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52) 文部省(1993). 高等学校中途退学問題への対応について. 文部省 初等中等教育局長通知 1993년 4월 23일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출처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4121502/025.htm (검색일: 2015. 6. 5)

중요하며, 교장의 지도력 아래 모든 교직원이 협력해 대처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지도의 개선 및 내실화에 있어서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의욕을 촉진하며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참여하는 수업’, ‘알기 쉬운 수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취직, 전학 등 적극적인 진로변경에 따른 중도퇴학 등 새로운 진로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자기실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심한 지도를 펼쳐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의 적극적 진로변경이 가능하도록 열린 학교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고등학교 중도퇴학자 관련 문부과학성 주요 정책

중도퇴학자를 지원하는 문부과학성의 주요 정책은 앞서 서술한 관점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유연화, 개성화 추진

먼저 고등학교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통해 선택의 폭이 넓은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근로·봉사 관련 체험을 중시하며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학습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교 진로지도의 개선 및 내실화를 도모하며 중·고등학교 간 상호연계 진로지도, 각 지역별 연합협의회 개설, 체험입학 등도 추진해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개인별 세심한 지도 실시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지도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교칙위반 등과 같은 상황에서 단순한 제재로만 그치지 않고 진정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도하고 배려한다. 또한 ‘참여하는 수업’, ‘알기 쉬운 수업’ 등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도방법을 개선하고 충실히 한다.

○ 열린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 정비

학생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해 고등학교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편입학의 적극적 수용을 추진하며 전학·전과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탄력적으로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학·편입학 제도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진로변경시의 취직과 전학 등에 대한 적극적 상담 등을 통해 중도퇴학자의 사후지도도 내실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③ 교육위원회(교육청) 및 정부의 중점적 대책

문부과학성의 지원과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 교육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유연화, 개성화를 추진하며 특히 선발방법의 다양화, 선발척도의 다원화 등을 통해 입시경쟁을 완화한다. 또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유연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각 학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는 교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중도퇴학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를 배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도퇴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내실화 및 취학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학·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학상담 등 각 학교의 사후지도가 이뤄지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며 학교 측의 수용체제를 충실히 갖추기 위해 전학·편입학의 특별정원전형을 설정하는 등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을 지원한다.

④ 지역 내 지원사업

○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을 활용한 지원사업⁵³⁾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업은 지역 내 고등학교 중도퇴학자를 고립시키지 않고 사회와의 접점을 유지하며 새로운 취학, 취업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다. 후생노동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하여 청년층의 자립을 목표로 청년지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해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을 설치(2011년 기준 전국 110개소)하고 있다.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에서는 커리어 컨설팅과 같은 전문적 상담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중도퇴자 등 아웃리치 사업’(2011년 기준 전국 60개소에서 실시)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1년 이내의 고등학교 중도퇴학자(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조기 자립·진로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문지원 담당자가 자택 방문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단절 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업을 통해 취직 등 진로를 결정한 청년은 2010년도 6,742명, 2011년도 12,165명, 2012년도에는 14,713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53) (2014년 2월 24일 제7회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 점검 평가회의 배부자료 1-3 중 ‘니트·고등학교중도퇴학자 지원’ 관련 관계 부처 제출 자료(文部科学省 厚生労働省(2014. 2. 24).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点検・評価会議(第7回)資料1-3 「ニート・高校中退の若者への支援」に係る関係府省提出資料.)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⑤ 도쿄도 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도쿄도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제공과 상담실시

고등학교 중도퇴학자들은 아무래도 학교를 통해서 진로선택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에 도쿄도(東京都)에서는 학교 및 관계기관을 통해 중도퇴학자와 보호자에게 리플릿 ‘발견하자! 찾고싶다! 앞으로의 새로운 길!’(「みつけよう! みつけたい! これからの新たな道」)을 배부하고 있다. 향후 진로선택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진학, 기술·기능 습득, 취업, 취학자금 등과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상담기관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 ‘청소년 리스타트 플레이스’ 설치

도쿄도 교육상담센터(도쿄도립 교육상담기관)에서는 2005년 4월에 ‘청소년 리스타트 플레이스⁵⁴⁾’를 설치하였다. 고등학교 중도퇴학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학지원 및 취업지원을 펼치며, 진로 선택 및 변경 등에 대한 전화상담과 내원상담 외에도 ‘진로상담회’, ‘취업서포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정신보건복지센터, 도쿄직업센터 등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원도 펼치고 있다. 2010년도의 상담건수는 총 833건이다.

⑥ 민간 지원 정책: 비영리단체 등 민간지원 단체를 통한 학습기회 제공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거나, 자립을 돕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등의 민간지원단체가 중도퇴학자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로 비영리단체 법인 하코자키 자유학사 에스페란자(箱崎自由學舎ESPERANZA, 이하 에스페란자)⁵⁵⁾를 들 수 있다. 에스페란자는 일본 규슈지역의 후쿠오카시(福岡市)에서 활동하는 프리스쿨로 부등교를 비롯해 진학, 중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중도퇴학자를 대상으로 기초학습을 실시하며 대상자 대부분이 통신 고등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또 다른 비영리단체 법인인 토이박스(トイボックス)는 오사카부 이케다시(大阪府・池田市)에서 2003년부터 ‘스마일 팩토리⁵⁶⁾’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일 팩토리’는 부등교, 은둔형 외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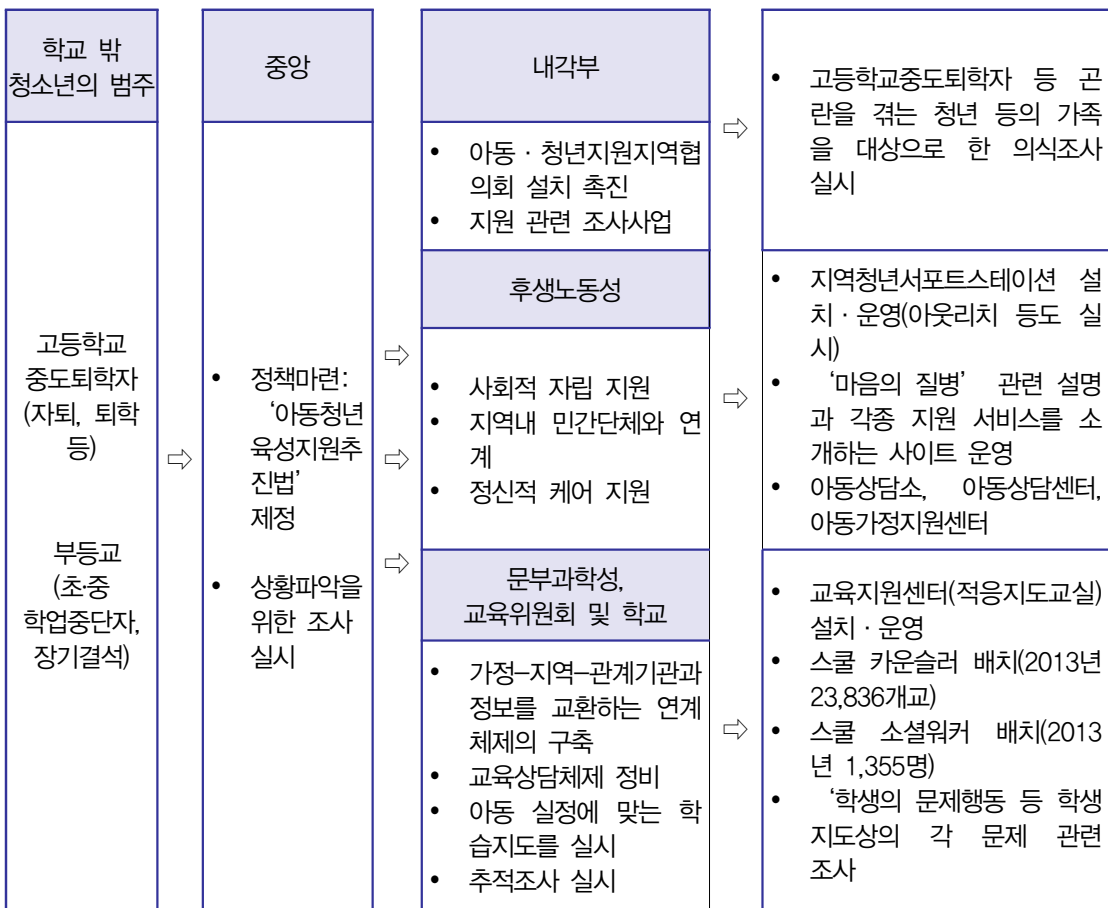
54) 청소년 리스타트 플레이스 관련 내용은 <http://www.e-sodan.metro.tokyo.jp/works/restart/index.html> (검색일: 2015. 6. 5)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55) 에스페란자 관련 내용은 <http://www.esperanzahp.jp/> (검색일: 2015. 6. 5)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56) 스마일 팩토리 관련 내용은 <http://www.npotoybox.jp/> (검색일: 2015. 6. 5)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발달장애, 자폐증 등의 문제를 가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단체는 이케다시 교육위원회와 사업위탁을 통해 밀접히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케다시 내 초등학생, 중학생이 스마일 팩토리에 다닐 경우 지도요록 상 재적 중인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007년부터는 통신 고등학교와 연계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스마일 팩토리 하이스쿨’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 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IV-2]는 이러한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IV-2] 일본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4)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당장의 학업 문제뿐 아니라 장차 예상되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앞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 내각부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즉 향후 고용시장과 경제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이 매년 '아동학생 문제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각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는 것 외에도 지자체별로 각종 추적·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계획·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꾸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는 적절한 사회적 제도 마련의 기틀을 다질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지원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학교교육에서 민간의 지원단체로 이어지는 이행의 연결고리가 점차 견고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케다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받는 학교 밖에서의 교육과 학습활동이 민간단체와 교육당국의 연계를 통해 정규학교의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접근성이 높은 민간단체의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립에 필요한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적 고립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단 학교와 민간지원단체 간의 연계에서 상호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학생과 보호자 등의 개인정보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진학지도의 강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한 개인의 '진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부등교와 학업중단은 향후 진로선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 진로형성에 필요한 학습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선택과 정착을 위해 학교안팎에서 상담, 정보제공, 체험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시행되어야 하며, 진로를 선택하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가장 강조하는 것 또한 학교-지역-가정의 연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역밀착형 지원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복귀 및 진로선택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과 연계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지원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4. 호주사례

호주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학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는 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절에서는 이러한 호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호주 내에서도 가장 도시화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빅토리아 주정부는 6세~17세까지 약 12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탈하는 청소년은 매년 약 1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9학년~11학년 중 매년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만 명 이상이며, 이에 더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system)에서 12개월 이내에 이탈하는 경우는 약 6천 명, 15세~24세 전체 호주 청소년 중 12.5%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ok, 2014)⁵⁷⁾. 이처럼 교육기관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57) Cook, H.(2014). 10000 children dropping out of school, available from <http://www.theage.com.au/victoria/10000-children-dropping-out-of-school-20140511-zr9me.html> (검색일: 2015. 5.26)

2) 정부의 지원 정책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정의하는 ‘교육으로부터 이탈되었다’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탈, 즉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이탈을 의미한다. 행동적 측면에서의 이탈은 학교의 수업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정서적 측면에서의 이탈은 교실이나 학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없음, 즉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이 없음을 의미한다. 인지적 측면에서의 이탈은 학업에 대한 개인적 노력이나 내적 동기 등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육으로부터 이탈되어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특히 상급학교 전환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학업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8학년~10학년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업중단의 위험신호를 보이는 이들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세심한 감독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에서 이탈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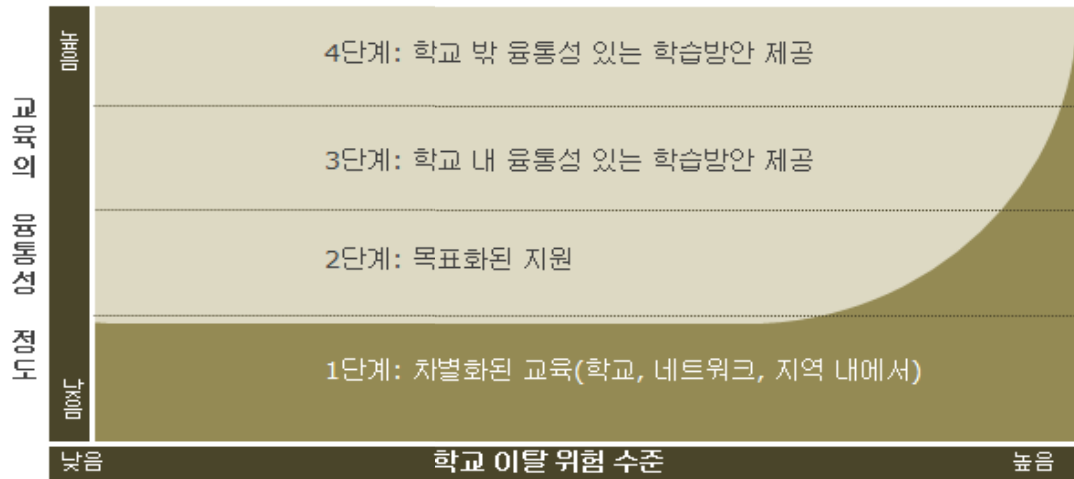
(1) 융통성 있는 학습방안(Flexible Learning Options)의 제시⁵⁸⁾

빅토리아 주정부당국은 학업중단의 위험 요인으로 보호시설거주자, 가정 밖 청소년, 원주민, 비행 청소년, 초기 이주자 및 난민, 장애 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 저연령층 부모를 가진 청소년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학업중단 위험요소들의 누적적 효과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델에 따라 학업중단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보다 융통성 있는 학습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융통성 있는 학습방안은 개인이 속한 위험군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개입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단계일수록 교육의 융통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IV-3]). 학생의 위험수준이 낮은 1~3단계의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험수준이 높은 4단계에 속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청소년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첫 번째 단계는 차별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정책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 개개인의 성취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58)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0). Pathways to re-engagement through flexible learning options: A policy direction for consultation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출처: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0). Pathways to re-engagement through flexible learning options: A policy direction for consultation(p. 14).

【그림 IV-3】 호주 Flexible Learning Options 체계도

이 단계는 학생과 학교 간 연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과도 관련이 있다. 많은 경우 개별 학교를 단위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지원가능하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내 몇몇 중학교가 특정한 학생들이 주목할 만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화된 지원단계로 학교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보다 다양한 위험요소에 직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상황에서 개인적 요구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학교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사회 학교과건 프로그램, 학교지원서비스, 특별서비스 위탁, 학교기반 개인교습 프로그램, 아침식사 클럽 및 숙제 클럽 등과 같이 학습과 학교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학업중단의 위험요소를 감소시켜 학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학교 내에서 융통성 있는 학습방안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속한 아동 및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주의집중도 및 자존감이 낮고 학습상 어려움이나 문제행동 등 학업중단의 위험요소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경우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 내 일반 교실이 아닌 곳에서 단기 집중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안적으로 학교생활 중 일부는 일반교실에서 생활하고 일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있다. 이 단계 역시 개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학교가 연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학교 밖에서 융통성 있는 학습방안을 제공하는 단계로 학교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의 학업복귀를 위해 보다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 단계에 속한 아동 및 청소년은 약 2%에 해당되는데 이들 중에는 상당기간 학교로부터 단절되거나 배제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1~3단계는 학업중단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예방지원인 반면 4단계는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4단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단계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NETschool Bendigo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학업 복귀 의사가 있는 15세~20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00명의 학생들이 NETschool에 참가한다. NETschool은 Bendigo Senior Secondary College의 부설기관으로 이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상에서 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학습을 함으로써 학습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들이 NETschool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15세~20세에 해당할 것, 학업을 중단했으나 학교에 출석가능한 상태일 것, 그리고 지지적인 성인 및 안정적인 숙식이 가능할 것 등이다. NETschool은 보다 개별적이고 융통성 있는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학생은 NETschool 멘토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상황에 맞춰 개별적인 학습 계획을 설정하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포부와 기대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성공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므로 전통적인 또는 좁은 의미의 성공은 NETschool 학습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겪은 어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성공을 정의할 때 이러한 상황적 어려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10%의 참가자가 자신의 학업을 마쳤고 15%의 참가자가 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으로 복귀하였으며 45%의 참여자가 다른 NETschool에 재등록, 7%의 참여자가 취업을 한데 비해 9%에 다소 못 미치는 이들만이 학교에서 이탈되거나 구직 상태에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이러한 성과는 학생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목표의 설정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기관의 지원 등이 밀접하게 상호연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또한 학업 중단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융통성 있는 학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울트라넷(Ultrahnet)으로 명명된 온라인 학습환경을 지원해 왔다. Ultrahnet은 보호자를 청소년 학습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뿐 아니라 또래압력에서 벗어나 학습과 관련한 지역사회 및 사회망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새롭고 융통성 있는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학교로부터의 이탈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는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학습 뿐 아니라 비정부 기관 및 민간 학교와의 협력 아래 직업교육

표 IV-10 공동책임체제에서 각 주체의 역할

지원주체	주요 역할
중앙 부처	• 학교이탈 예방과 처치를 위한 정책계획안 개발 및 시행 • 주 단위의 질 높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융통성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 및 시행 • 학교이탈 아동·청소년의 결과에 대한 책임 보장
지자체	• 지역 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을 위한 융통성 학습 선택 기회 확보 • 지역요구 부응 프로그램과 모델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 지역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에 자금 조달 •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협동서비스 및 파트너십 지원 • 공동 책임 강화를 위한 정부부처와 기관의 노력 지원 • 지역 전반의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 활성화
학교 네트워크	• 융통성 학습 선택 지도구축 협업 및 수요조사와 계획 마련 • 이탈 학생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내 학교 역량강화 지원 • 이탈 학생을 위한 자원의 공유와 적절한 활용 활성화
학교단위	• 학생들의 학습 수요 충족 • 위험군 학생 파악 및 학생수요에 대해 네트워크와의 협력 • 적절한 지원 서비스와 해당 학생 연계 • 아동·청소년 학습과 발달 지원을 위해 가족과 파트너십 구축
가정 및 보호자	• 아동·청소년과 가족지원 능력을 갖춘 지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 개발 및 유지 • 아동·청소년의 개별 욕구에 부합하는 양육환경 제공 • 규칙적인 등교 및 정상적 학교생활을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 • 문제가능 아동·청소년 정보를 학교에 조기 제공 • 아동·청소년의 학교 복귀 계획수립에 참여 • 가장 적절한 융통성 학습 선택 파악을 위한 학교와의 협력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 이탈 위험에 놓인 학생 파악 보조 시 학교와 협력 • 학교 이탈 아동·청소년의 학교 복귀 지원 • 학교복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학교와 파트너십 개발·유지

※ 출처: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0). Pathways to re-engagement through flexible learning options: A policy direction for consultation(pp. 18-19).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 성인교육(Adult Community Education, ACE), 학업 복귀 프로그램, 대안교육 등도 다양하게 제시해 왔다.

융통성 있는 학습방안 지원체제의 핵심은 공동 책임체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네트워크, 개별 학교, 가족(보호자),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이 공동으로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체제를 이루고 있다. 각 기관 및 단체, 개인들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표 IV-10>과 같다.

(2) 학교이탈 위험 청소년 관리체제 마련

① 빅토리아 학생 번호(Victorian Student Number)제도의 도입⁵⁹⁾

한국과 마찬가지로 빅토리아주에서도 학교이탈 청소년들의 경로추적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규모와 경로, 학습상태 등에 대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빅토리아 학생번호(Victorian Student Number)제도를 도입하였다. 빅토리아 학생번호란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주정부에 의해 학생 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다. 빅토리아주 교육부는 보다 정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개별 학생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의무교육 대상자인 17세 이하 학생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교육 및 훈련 시스템에서 이탈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2009년부터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과 25세 이하 교육 및 훈련 과정에 등록한 청소년들은 총 9개의 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름, 성별, 출생일 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학생의 전학 상황, 학교 복귀여부, 직업교육 및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등 교육 제도 내에서 학생의 경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Cook, 2014).

② SMT(Student Mapping Tool)⁶⁰⁾

빅토리아주 교육부는 학업이탈 위험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조기개입을 통해 학교이탈을 예방하고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위기학생 진단도구인 SMT(Student Mapping Tool)를 개발하였다. SMT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59) <http://www.vcaa.vic.edu.au/pages/schooladmin/vsn/index.aspx> (검색일: 2015. 5.28)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60) <http://www.education.vic.gov.au/school/teachers/support/Pages/tell.aspx> (검색일: 2015.5.27.)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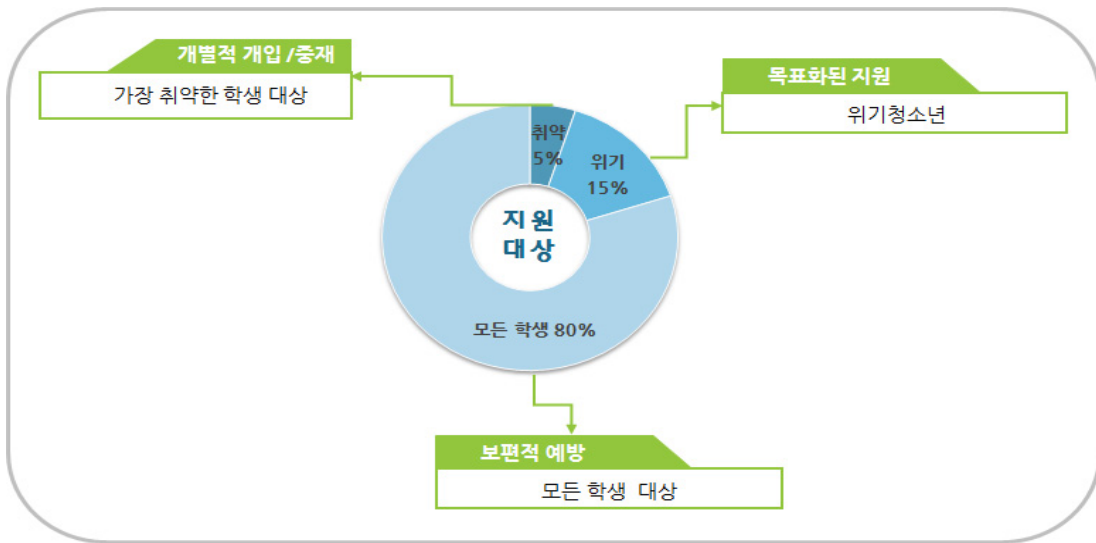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개별 학생의 학교이탈 위기수준의 증감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학생의 위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는 부모의 직업이나 건강, 복지혜택 여부 같은 가정배경 자료, 출석률 및 수학/문해 능력 같은 학교생활 자료,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관찰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이탈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각 개인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조기개입 프로그램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이탈률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중에 있다.

(3) School Focused Youth Service(학교중심 청소년 서비스)⁶¹⁾

학교중심 청소년 서비스(SFYS)의 목적은 위기 청소년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원활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위기요인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고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토리아주의 교육·아동발달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 기관을 연계하고 공공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의 학습, 발달, 건강 등과 관련된 복잡한 요구를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즉 학교중심 청소년 서비스(SFYS)의 핵심적 특징은 학교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간의 연결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 위기청소년들의 학업지속을 위한 보다 큰 규모의 지역사회 내 협약 촉진 지원모델의 개발, 유관기관 간의 협력사례의 활용, 위기 청소년 대상 고용기회의 제공이나 학업복귀를 위한 중재시스템의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학교중심 청소년 서비스(SFYS)의 대상 집단은 10세~18세의 위기학생들 중 학교에서 조기 또는 집중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들로 3단계의 위기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그림 IV-4] 참조).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개입(약 5% 해당), 두 번째 단계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화된 개입(15%), 세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 지원(80%)이 그것이다. 학교중심 청소년 서비스(SFYS)는 취약청소년(5%)과 위기청소년(15%)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초기 목표화된 개입이 필요한 15%의 위기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61)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3). School Focused Youth Service: Supporting the engagement and re-engagement of at risk young people in learning Guidelines 2013 - 2015.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출처: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3), School Focused Youth Service: Supporting the engagement and re-engagement of at risk young people in learning Guidelines 2013 - 2015. (p.4)의 그림을 토대로 구성

【그림 IV-4】 SFYS 지원 대상

지원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학교중심 청소년 서비스(SFYS)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지원기관들이 학교와 밀착하여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중심 청소년 서비스(SFYS) 기관들은 질적 자료 및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전략을 세워야 하며, 측정 가능한 결과들을 통해 엄정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지표로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학업 및 취업 상황의 개선 정도, 취약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체계의 개선 정도 등이 포함된다.

3) 시사점

호주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규정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의 원칙과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서 한걸음 더 나아가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이탈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공동책임체제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책임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는 인식 아래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그 특색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네트워크 및 개별 학교 뿐 아니라 가족(보호자)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이 상호 연계 하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도록 독려한다. 특히 가족의 지원이 없이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가족(보호자)을 지원기관 안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나라 지원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통된 원칙과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관련 기관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망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해외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인 모범사례들을 수집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학교중심 청소년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연결망을 맵(Map)으로 작성하여 활용한다면 느슨하게 운영되던 기존의 CYS-Net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체제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들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호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들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학생번호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규모와 이동경로, 학습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관리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진입하기 이전의 경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관리체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 단위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단위 활동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민간 지원단체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번호를 도입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획득은 용이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이탈 위기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는 SMT(Student Mapping Tool)의 개발을 통해 학생의 학교이탈 위기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위기수준에 맞추어 조기개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의 주관 아래 현실성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양적 지표는 물론 담당 교사, 보호자, 관련 지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질적 지표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이탈 위험군 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예방 및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정책을 위기수준 단계별로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V 장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원정책의 실태

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연구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분석

제 V 장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원정책의 실태

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연구⁶²⁾

이 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경험 및 사회적 지원경험을 비롯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들의 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한 일들을 이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밖 경험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경험 등을 파악하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1) 조사 대상 및 방법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관을 이용 혹은 입소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에 연구 목적을 밝히고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중 자발적으로 면접에 동의한 45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의 면접 결과를 제외하고 4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참여자 현황은 <표 V-1>에 제시되어 있다.

인터뷰 내용을 얻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팀의 합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접은 연구자와 박사재학 중인 연구보조원 4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로 실시하였고, 개별 면접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 후 전사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고

62) 이 절은 송미경(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다.

표 V-1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면접대상	유형	성별	나이	학업중단 시기	비고
A01	학업형	여	19	중3	
A02		여	20	고2	검정고시 합격
A03		여	18	고1	
A04		여	18	고1	
A05		여	19	고2	검정고시합격 / 수능준비중
A06		여	17	고1	
A07		남	18	고1	검정고시합격
A08		남	13	중1	중학교 진학 포기
A09		남	15	중2	
A10		남	19	고1	검정고시합격
A11		여	17	고	
A12		남	17	고1	
A13		여	15	중1	
A14		남	21	고1	고등학교 진학 포기
A15		여	18	고2	
A16		남	18	고1	고등학교 진학 포기
A17	유예형	남	19	고2	
A18		남	16	중1	
A19		남	19	중2	
A20		남	20	고1	
A21		여	20	고2	검정고시 합격
A22		남	19	고1	
A23		여	19	고1	
A24		남	18	중학교 진학포기	
A25		남	17	고1	
A26		여	17	고1	
A27	비행형	여	19	중2	
A28		여	18	고	
A29		여	19	중2	검정고시합격
A30		여	19	중	검정고시합격 (중졸 자격)
A31		여	18	고1	검정고시 합격
A32		남	17	고1	중2 중퇴 검정고시/고 입학후 다시 중퇴
A33		남	18	고1	
A34		남	16	고	검정고시 합격
A35	근로형	여	20	고2	
A36		남	18	고1	
A37		남	19	고2	
A38		여	19	중2	검정고시 합격
A39		남	20	고2	
A40		여	18	고1	
A41	비행+학업	여	18	고1	검정고시 합격
A42	비행+유예	여	19	중3	
A43	비행+근로	남	19	중2	검정고시합격 (중졸 자격)
A44	비행+유예	여	18	중3	검정고시 합격 (중졸 자격)

수집된 자료는 질적 분석과정인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후 CQR)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CQR은 근거이론과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Hill 등(1997, 2005)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다수의 연구자가 분석팀을 구성하고 분석팀 안에서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연구대상의 경험을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고 그 경험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양미진, 이영희, 2006, 재인용). 이러한 특성상 특수한 대상들만의 경험을 분석하여 보다 풍부한 내용을 얻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분석 과정에서 각 사례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하는데 이는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이 가지는 한계, 즉 객관성과 엄격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지승희,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 이론의 구성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피면접자의 경험을 통하여 현상을 탐색하는 것과 동시에 한 명의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분석팀이 상호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CQR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5명의 합의팀과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합의팀은 모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심리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상담 및 임상심리관련 박사재학생 4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평균 상담경력은 15년이다. 감수자는 현직 심리학 관련 교수이자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및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상담경험과 연구경력을 지닌 자를 선정하였다. 감수자는 또한 본 연구 이전에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의 연구에서 합의팀으로 세 번, 감수팀으로 네 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

질적 분석에서 합의 도달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우선 합의팀은 면접용 질문을 기초로 하여 모든 면접사례에 대한 각각의 축어록마다 동일한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후, 각각의 사례 2개씩으로 묶어 이를 함께 읽고 영역을 만든 후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영역을 결정하였다. 나머지 사례도 모두 같은 합의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표 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영역을 결정하였고 각 영역에 대한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에서 지적된 내용은 합의팀의 토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교차분석 후에는 교차분석에서 제외되었던 2개의 사례를 검토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는 Hill 등(2005)의 제안을 따라, 44사례 중 모든 사례 혹은 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general)', 23~42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 4~22사

표 V-2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 질문 영역

질문영역	상세질문
학업중단 경로	1)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학업중단을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3) 학교는 언제, 어떤 경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4) 학업을 중단한 직후의 계획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학업중단 경험	1) 학업중단 이후 경험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2) 학업중단 이후 경험했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요? 3) 학업중단 후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4) 학업중단 후 경험한 부정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5) 학교를 그만 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1) 학교를 그만두면서 향후 생활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었습니까? 2)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였다면,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은 무엇입니까? 지원서비스를 받기 전과 받은 후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3)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례에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variant)', 2~3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rare)'이라고 표시하였다. 각 영역과 범주에서 1사례인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2) 조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면접결과를 통하여 그들의 학업중단 경험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경험,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학업중단 경로

학업중단 경로에 있어서 영역과 범주는 <표 V-3>과 같다.

①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로는 '친구관계의 어려움'(변동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친구관계의 어려움은 친구의 무시나 왕따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학교폭력까지를

표 V-3 학업중단 경로 영역 및 범주

영역	범주	응답빈도
학업중단 이유	친구관계의 어려움(왕따, 학교폭력)	변동적 (13)
	학교가 재미없고 규칙이 싫어서	변동적 (10)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변동적 (8)
	학업 스트레스	변동적 (6)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나빠져서	변동적 (5)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변동적 (5)
	놀고 싶어서	변동적 (4)
	출석일수 부족	드문 (3)
	교사의 차별 및 편견	드문 (2)
	주변에 검정고시 한 사람들의 영향	드문 (2)
학업중단 결정을 주저하게 한 요인	전혀 망설이지 않았음	변동적 (12)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변동적 (12)
	부모님 때문에	변동적 (10)
	친구들이 좋아서	변동적 (10)
	교복을 입고 싶어서	드문 (3)
	학교가 재미있어서	드문 (2)
학업중단 결정 경로	그냥 학교를 가지 않음	변동적 (18)
	담임과 상담(숙려상담제 이용)	변동적 (12)
	부모님과 상의	변동적 (12)
	가출	드문 (2)
	징계 받음	드문 (2)
학업중단직후의 계획이나 생각	검정고시 준비	변동적 (18)
	아무 계획이 없었음	변동적 (14)
	기술 배우기(자격증 취득)	변동적 (9)
	돈 벌기	변동적 (8)
	놀이 위해 아르바이트 하기	드문 (3)
	공무원 시험 준비	드문 (2)

포함하는 다소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반응 예시는 아래와 같다.

사례 4: “제가 중 2 때도 그렇게 안 좋은 친구 문제 땀에 뒤통수도 많이 당해봤고 전학 와서 남자애들한테 욕 많이… 말을 심하게 되게 잘하더라고요, 창녀부터 시작해서…”

사례 7: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음… 초등학교 때부터… 음… 뽕 뜯는 애들도 있었고요, 뽕 뜯는 애들도 생겼지, 거기에다가… 라이터 있는지 물어보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할 때… 애들이 저한테 누명을 씌운다든지 후… 그리고 지가 해놓고선 내 탓이라고 한다든지… 에이! 진짜!”

사례 12: “친구랑 싸운 것 중에 회장선거 문제가 있었는데… 언제 숙제를 한번 건어가겠대요. 제가 그날 그걸 못해줬어요. 내가 못해서 미안한데 내 것은 못 냈다고 하고 넘겨달라고 했는데… 아, 그럼 왜 안 해놓고 있었냐고… 너 때문에, 우리 반에서 너만 안냈다고… 싸웠는데 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서 개네들 무리한테 욕을 먹었어요. 그게 좀 컸어요.”

사례 37: “반에서 친한 친구, 친한 친구가 없고… 그냥 친구들이랑 친해지지 못하다보니까 들어가서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똘,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그냥 거의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있어서…”

그 다음으로는 ‘학교가 재미없고 규칙이 싫어서’(변동적),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변동적)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 스트레스’(변동적)와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변동적)와 더불어 진로지도 및 학교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결과이다. 그 뒤를 이어서는 ‘놀고 싶어서’(변동적), ‘출석일수의 부족’(드문), ‘교사의 차별과 편견’(드문), ‘주변에 검정고시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드문)라는 응답이 보고되었다. 그 외에 한 사례에서만 나타나 분석에서는 제외된 응답 중에는 ‘가출을 한 결과로 학교를 못 가게 되어’, ‘학업을 중단할 의사가 없었지만 우연한 사건에 연루되어’, ‘충동적으로’ 등과 같은 응답이 포함되었다. 각 학업중단 이유에 대한 반응 예시는 아래와 같다.

○ 학교가 재미없고 규칙이 싫어서

사례 13: “그냥 뭐라고 해야 하지? 옷도 일단 규정이 딱 있잖아요.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규정이 되게 심했어요. 막 손톱도 진짜 이 흰 부분이 안 보일 때까지 잘라야 되고…. 갈색 머리가 조금만 있으면 염색 다시 해오라 하고…. 그런 거 규정도 싫고…”

사례 16: “요즘 보통 의무, 자율, 자율학습하면서 막 강제로 가둬놓잖아요, 학교에. 그러면서 국영수 이렇게 공부시키는 거 그런 게 맘에 안 드는데…”

사례 22: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요, 버스타고 가는 것도 싫고요. 그 다음에 가도 하는 것도 없고…”

사례 28: “간헐 거 같잖아요. 되게 공부…. 무조건 이거 안하면 혼나고 그리고 좀 빠썬 학교를 들어가면은 자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버티요?”

○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사례 6: “그때 특성화 다닐 당시…. 특성화…. 그 특성화가 정보특성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학교가기 전에는 간호장교 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경찰로 마음을 잡았거든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니다 지쳐서…”

사례 11: “학교를 안 다니고 많이 배우러 다니려고, 제가 재봉도 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면 배울게 너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바리스타도 배우고 있거든요.”

사례 37: “맨 처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연기자였는데 학교 과를 잘못 선택하다보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동아리를 만들어서 진행하던 중에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고…. 원래는 올해 복학을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학교를 나와서 제가 사회적 극단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고…. 정말 밖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배우는 게 저한테 이득이 되고 좀 더 빠르고…. 이제 학교를 그만, 아니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사례 8: “어… 창피하지만 그거 밖에 없네요. 아, 창피하지만 시험이 두려운 거죠. 전국의 학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례 31: “선생님들의 수업…. 제가 중학교 때도 밥 먹고 참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요.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하려면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했으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나빠져서

사례 1: “조울증이었어서 안정제랑 이런 거 먹었어요. 기복이 심해서…. 우울할 때는 너무 우울해서 자살시도도 많이 하고, 유서도 써보고…. 괜히 막 웃다가도 우울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저도 그 스스로가, 자체가 그 모습이 너무 싫으니까….”

사례 20: “우울증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재미가 없었어요. 굳이 가기 싫은 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 그게 켈 컸던 거 같아요.”

사례 21: “저는 애들하고 별로 시간도 못 보내서 학교에 잘 가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학교에도 얼굴만 찍고 나오고 병원가고 이래서…. 아파서 그만 둔거라 병원에 계속 있었어요. 그때 제가 휠체어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고1 때는 아파서 병원 들락날락 거리고 고2 때는 거의 학교생활 못하다시피 병원에 계속 있고 이래서…. 그때 당시로는 다시 나올 그것도 안보이고 이래서, 못 다닐 것 같아서….”

○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사례 15: “저희 가정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학교를 들어갈 때 인문계를 들어가면 학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성적우수자로 특성화를 들어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꿈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례 38: “밖에서는 센터를 다니면서 센터에서 제가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학교는 저보고 뭘 하라고만 시키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만 하고 로봇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미 없어요.”

② 학업중단을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한 요인

면접에 응한 44명의 청소년들 중 12명은 학업을 중단함에 있어서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나 나머지 32명은 학업중단을 결정할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업중단을 결정하는데 망설이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변동적)였으며 ‘부모님 때문에’(변동적), ‘친구들이 좋아서’(변동적)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학업중단을 결심하게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친구관계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업중단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역시 친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복을 입고 싶어서’(드문), ‘학교가 재미있어서’(드문)과 같은 이유로 학업중단을 망설이기도 하였다. 학업 중단을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한 요인들의 각 범주에 속하는 반응 예시는 아래와 같다.

○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사례 1: “아무래도 가장 크게 이야기하면... 중학교 졸업을 안 하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고...”

사례 21: “그냥 그대로 그만두면... 그냥 다른 애들 다 졸업할 때 저만 막 뒤쳐질 것 같고, 그런 게 제일 컸던 거 같아요.”

사례 36: “아무래도 내 자신의 미래. 미래가, 꿈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이루지 못하고 내 꿈에서도 더 멀리 갈까봐...”

사례 43: “미래죠. 네. 그 주위 사람들에서 얘기 들려오는 게 있었잖아요. 너 학교 다니지 않으면 나중에 뭐할래? 학교를 다녀야지 나중에 뭐든 할 수 있다. 지금 와서야 깨달은 거지만, 애네도 다 학교 다니기 싫어할텐데 왜 다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다닐까? 왜 다니지? 하다가 나중에 미래 때문에 다녀야 되는 데...”

○ 부모님 때문에

사례 15: “부모님은 그런 거 아예 몰랐어요. 그냥 학교 잘 다니는 줄 알고 그래서 아 또 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례 23: “아빠. 아빠의 입장을 좀 생각했었거든요. 만약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어디 다니더라 하면 아빠가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본 적도 있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자기 자식이. 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지 않나, 검정고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

사례 35: “그냥 엄마한테 미안하고... 뭔가 선뜻 실천 못하는 그런 거... 가장 컸던 건 엄마였던 거 같아요. 엄마가 많이 울까봐.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제가 다 보고 살아왔어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무용을 했었는데 엄마가 사람들에게

자랑을 대개 많이 했어요.”

사례 38: “그냥 부모님 때문에. 강요는 안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부모님한테 자퇴하겠다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두려웠죠.”

○ 친구들이 좋아서

사례 2: “애들이 절 굉장히 많이 말렸어요. 제가 안 좋은 일 생겼을 때도…. 애들도 다 제 편 되어 주었고 저한테도 제가 자퇴하고 싶다고 하면 애들이 ‘왜 그러냐, 너 없으면 학교 재미없다’ 이렇게 말해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잘 버틸 수 있었거든요.”

사례 39: “친구도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못 만나고…. 애들은 학교 다니니까요. 시간이 되면 만나긴 하는데 이제 자주 못 만나니까요.”

③ 학업중단의 결정 경로

학업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냥 학교를 가지 않아’(변동적) 학업이 중단되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이와 같이 응답한 청소년들은 어차피 수업일수가 모자라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안 가다 보니 다시 가기가 머쓱하고 귀찮았다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담임교사와 상담’(변동적)하거나, ‘부모님과 상의’(변동적)를 통해 학업중단을 결정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학업중단 결정 경로에 있어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그냥 학교를 가지 않음

사례 27: “음…. 3월 한 달은 잘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빠졌어요. 하하…. 또 귀찮아서…. 그렇게 해서 9월 24일이예요. 학교 안 갔으니까 유예처리가 됐겠지 했어요. 학교 가서 뭐 써야 되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안 가서…”

사례 28: “4월 달부터 그냥 무작정 학교를 안 나갔어요. 무작정 안 나가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자퇴한다고 말하고 절차 밟을 수 있을 때 그때 학교를 가서 그날 하루 간 다음에 끝났어요.”

사례 29: “그냥 안 갔어요, 그냥…. 계속 안 갔어요. 계속 쭈욱 안 갔어요. 근데 중

학교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가는 방법 밖에는 없던 것 같아요.”

사례 33: “무조건 일방적으로 안 나가서 자동적으로 유예가 됐어요.”

○ 담임과 상담(숙려 상담제를 이용)

사례 6: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요, 학교를 안 다니면 안 되겠냐고. 자퇴하기 전.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1학기까지 더 다녀보자, 안되면 그만두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상담해 가지고…”

사례 17: “담임선생님이 계속 말렸어요. 학교에서 상담 받았어요. 학교는 안 다니면서 가끔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상담만 갔었어요. 네, 상담만 하고, 그러다가 자퇴한다고 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사례 37: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자퇴수속을 밟아서 자퇴하게 됐죠. 막 한동안 점심시간에 가서 수업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어느 날은 이제 저랑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왜 학교 안 나오냐, 아, 그러면 니가 하고 싶은게 뭐냐… 그래서 저는 저의 진로 계획을 말씀드리고 내년엔 재입학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는 좋다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랑…”

○ 부모님과 상의

사례 4: “처음에 자퇴를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엄청 말리더라고요. 4월 달에 엄청 말렸어요. 5월 달에도 말리고, 6월 달에도 말리고 방학 때도 전화해서 말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엄마한테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나 진짜 학교가기 싫다고, 진짜 진짜 가기 싫다고 하니까 엄마가 한숨 딱 쉬면서 어쩔 수 없다고… 엄마가 담임선생님 면담을 해주셨어요.”

사례 25: “아빠한테 자퇴하고 싶다고 말해서 아빠가 하라고 했어요. 니 말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는 좋아요, 엄청. 제가 힘들어하고, 또 요리 쪽으로 나갈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사례 40: “중학교는 자퇴가 없는데… 사실 학교보다 친구가 더 좋기 때문에 친구를 따라갔던 거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피해의식에… 나보다 어린 애들과 다녀야 한다는 그 실감이… 그 느낌이 실감되게… 그때부터 망설여서 부모님과 말을 하고 부모님이 선생님이랑 말을 하고 왔다고 그래서 학교 안가도 된다고 됐다…”

④ 학업중단 직후의 계획이나 생각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직후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나 생각은 다양하였으나 그 중 ‘검정고시 준비’(변동적)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한편으로는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무 계획이 없었다(변동적)’는 응답도 있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고민 없이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청소년들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은 ‘기술배우기’(변동적), ‘돈 벌기’(변동적)와 같이 학업이 아니라 다른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비록 정규학업과정은 중단하였지만 대안학교로의 진학을 계획하기도 하였고 그냥 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들도 있었다. 학업중단 직후 계획이나 생각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검정고시 준비

사례 5: “원래 제가 계획을 세우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일단은 계속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니까 수능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사례 11: “일단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려고 했어요. 검정고시 학원 다니고 18세 이전에 학교 들어가고 재봉공부도 열심히 하고 컴 관련 자격증 따놓으려고 했어요. 대학은 패션디자인학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사례 41: “음…. 검정고시를 우선으로 뒀고요. 먼저 검정고시 따고 그 다음에 그때는 수능 생각 없었고요. 그냥 자격증 여러 개 따서 취업하려고…”

○ 아무 계획이 없었음

사례 18: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사례 20: “딱히 뭐 계획이란 걸 정한 거 아니었고, 자퇴하고 나서 뭘 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퇴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랬다기보다는 자퇴하고 나서 뭘 할까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례 23: “나는 자퇴하고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야 아, 뭔가 해야겠구나. 2-3개월 정도 그냥 놀고 막 계속 놀다가 갑자기 또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례 34: “별다른 계획은 없었어요. 지금도 여기서 그냥 시험만 보고 여기 있으면요 학교 출석이 되요.”

○ 기술 배우기(자격증 취득하기)

사례 2: “저는 제가 이렇게 살지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휴학을 하고 2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과제빵을 하거나 상업고등학교, 그런 전문적인 데를 가서 기술을 배워서... 생각했는데...”

사례30: “어... 자격증 따고 그 자격증 따서 그 업종 분야에 취업하는거요. 제과제빵이요.”

사례 41: “한식 자격증을 따고요, 자원봉사 같은 거 하러 다니거든요. 자격증, 유아교육자격증 그런 거랑 사회복지사 자격증...”

○ 돈 벌기

사례 17: “그냥 일단 저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전 중 2때부터 엄마 돈 안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 돈 벌었어요. 일단은 학교를 그만두면서는 돈 버는 것부터 먼저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 31: “일하면서 저 혼자 알바를 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어요.”

사례 32: “일이나 해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고등학교는 돈이 없어서 그만둔 거니까... 처음에는 주차일 했어요. 제가 쓸 돈은 제가 벌어야 하니까...”

사례 44: “차라리 제가 아빠, 아빠가 그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돈이나 일찍 벌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나 공장 그런데 들어가서 돈이나 벌겠다고. 그냥 그러면서 돈 모을 생각으로... 돈을 일찍 벌어야 되는, 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었죠.”

(2) 학업중단 경험

학업중단 경험에 있어서 영역과 범주는 <표 V-4>와 같다.

① 학업중단 이후 경험했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경험했던 어려움으로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편견과 시선’(변동적)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의 시선이 싫어 학교를 그만두었으면서도 학업중단 후 또 다시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힘들어 하는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학업중단 이후 경험했던 어려움 중 외부의 시선과 편견에 대한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표 V-4 학업중단 경험의 영역 및 범주

영역	범주	응답빈도
학업중단 이후의 어려움	외부의 편견과 시선	변동적 (9)
	용돈과 생활비의 부족	변동적 (9)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	변동적 (7)
	가족과의 트러블	변동적 (6)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마음	변동적 (6)
	외로움과 소외감	변동적 (4)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드문 (3)
	무시당함	드문 (2)
	우울함과 무기력감을 느낌	드문 (2)
학업중단 이후 긍정적인 경험	규칙이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짐	변동적 (13)
	마음이 편해짐	변동적 (9)
	목표가 생기고 자기탐색을 하게 됨	변동적 (7)
	돈을 벌었음	변동적 (7)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었음	변동적 (5)
	없음	드문 (3)
학업중단 이후 긍정적인 변화	자신감과 의지력이 생김	변동적 (17)
	심리적으로 안정됨	변동적 (15)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됨	변동적 (10)
	자기관리를 하게 됨(시간, 건강 등)	변동적 (8)
	미래를 계획하게 됨	변동적 (6)
	자퇴한 친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뀜	드문 (3)
	기쁘고 즐거움	드문 (3)
	현실감이 생김	드문 (2)
학업중단 이후 부정적 변화	불규칙한 생활	변동적 (18)
	미래에 대해 불안해짐	변동적 (10)
	짜증과 화가 늘었음	변동적 (7)
학업중단이 나에게 갖는 의미	성장	변동적 (16)
	후회와 안 좋은 기억	변동적 (7)
	자유로움과 해방감	변동적 (5)
	인생의 포기	드문 (3)
	별 의미 없음	드문 (3)
	인생의 전환점	드문 (2)
	쉽	드문 (2)

사례 11: “제가 학교 안 다니니까 어렵게 보는 것도 있었고, 어른들도 안 좋게 보는 것처럼 느꼈고…”

사례 23: “뭐라 해야 하나? 그냥, 그냥 시선들이 안 좋다고 해야하나? 시선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죠. 뭐라고 표현해야할까, 이거를. 시선이 따갑고 차갑게 느껴졌죠. 그래서 내 마음은 뭐라 해야 돼? 뭐라 해야 하지? 기분이 뭔가,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랬죠.”

사례 28: “그냥 막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거나 남친을 소개를 받거나 뭐 그러면은 학교 어디 다니냐 물어보면 애 자퇴했다 그러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게…. 막 사람들이, 막 일진이었냐, 막 양아치였냐, 그런 말이 오가잖아요. 그게 싫어요.”

사례 36: “뭐라 해야 되지 눈치가 너무 보였어요. 대부분 이 시간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갈 텐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초반엔 너무 심했어요. 안 좋게 볼 것 같았어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으니까. 사람들 생각은 학교를 그만두면 나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안 좋게 볼까봐 그게 너무 신경 쓰여 가지고…”

사례 39: “남들 학교 가는데 나는 일하고 어디 가서 있을 곳도 없고, 안 좋은 애로 생각할까봐 불편했죠.”

그 외의 어려움으로는 학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반대했던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지 않게 되거나 학생신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할인 등을 받지 못하는 것 등으로 인해 ‘용돈과 생활비의 부족’(변동적)이 제기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변동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의견도 보고되었다. 무언가 결정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과의 트러블’(변동적)이 잦아지고 이러한 가운데 ‘자신에 대한 한심함’(변동적)이나 ‘외로움과 소외감’(변동적) 등도 학업중단 이후 겪는 힘든 요인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용돈과 생활비의 부족

사례 1: “학교를 안 다니니까 컴퓨터에서 나오게 되니까 내가 공과금, 핸드폰비 등도 다 처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별거 아니어도 저한테는 큰 금액이니까 사고 싶은 거 못살 때 아쉽기도 하고 먹는 거 사는 것도 허덕이면서 사니까.”

사례 21: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주는 게 있었어요, 매달. 매달 주기도 했고 몇 개월에 한 번씩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생계를 많이 유지하

고... 학교를 안다니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끊기고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 35: “제가 취업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차비를 달라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어떤 때는 걸어 다닌 적도 되게 많고 지금은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

○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

사례 3: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방향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알았는데 또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내가 미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 눈엔 그게 못할 거 같았어요.”

사례 6: “어... 줌, 학교라는, 저 혼자 남으니까 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너 인생 너가 살아라 이런 식이었고 조금... 혼자 남을까봐 조금... 나태해질까 봐... 마음이 불안했던 적이 있는데...”

사례 19: “나중에 어떻게 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거... 심리적인 고민을 하는 거.”

○ 가족과의 트러블

사례 5: “솔직히 뭐 부모님이 달가워하시지 않으셨죠. 그냥 그 자체가 어려움 아닐까요? 달가워하시지 않으심. 약간 그 시선이 어쨌든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부모님인데 뭔가 저를 믿지 못하시고 계속 그런 시선을 받다보면 솔직히 저도 지치죠.”

사례 34: “엄마 아빠 때문에. 특하면 돈 안 벌면 저놈한테 끌고 간다... 아, 그때는 제가 설득을 했어요, 믿어달라고. 제가 그때는 특하면 사고 치니까 나를 안 믿는구나 싶어 이해했는데 지금은 사고 안친지도 2년이 넘었고 엄마 부탁대로 검정고시도 났고 쪽은 아니지만 계속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엄마 아빠는 제가 어디 나가서 술 먹고 놀고 나쁜 짓 하는 줄 알고 대구 내려오라느니 마라느니,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사례 36: “자퇴란 걸, 분명 집안에서는 분명 ‘니 맘대로 해라’ 고 했는데 어른들은 너무 이해를 안 해주시고 안 좋게 보시니까 계속 학교를 다니라고 강요를 해서 짜증나 가지고 가족들이랑 많이 싸우고...”

사례 43: “힘들었죠. 그냥 부모님의 시야. 부모님이 저를 보는 시야요. 그런 거 있어요. 그니까 만일에 아버지가 저를 봤을 때 애는 100% 아들이다. 그렇게 봤는

데 중단하고 가니까 저한테 대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훨씬 안 좋게 해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시선이 안 좋게 느껴졌죠.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안 좋았죠.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나도 삶의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너무 날 이해해주지 않는 거 같다. 저는 그냥, 검정고시에만 집중하고 빨리 놀자하는 생각 뿐이었고 짜증났을 뿐이에요. 부모님 시선 때문에.”

○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마음

사례 11: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안 좋게 보는 것처럼 느꼈고 그렇게 보니까 화도 났었고, 화도 나면서도 저도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

사례 27: “일어나면 한 11시 일어나는데 애들 마치는 건 3-4시니까. 그때부터 심심하니까, 게임하니까…. 누워서 게임하고 누워서 밥 먹고 하니까 한심해 보였어요.”

사례 35: “난 안 돼…. 공부를 해도 난 안될 거 같아. 뭘 해도 난 안될 것 같아. 약간 그런 거랑 다른 애들은 취업, 대학 다 갔는데 난 이러고 있네. 나 자신을 비하한다고 해야 하나. 자신감이 옛날보다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 외로움과 소외감

사례 2: “그냥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외로웠고 외로웠어요. 힘들고…. 제가 힘들었을 때는 그래도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퇴를 하니까 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네들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다른 친구들 사귀다고 바빠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사례 4: “해밀도 잘 하다가 너무 외로워서 애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아, 그래서 다시 학교를 가야하나 그런 생각. 대안학교를 가야하나? 그래도 학교는 나 혼자 지내도 옆 반 친구라도 있었는데 해밀도 안가고 자퇴했으니까 혼자니까…. 혼자 뭐하고 노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례 18: “외롭고…. 어, 외롭고, 쓸쓸하고. 왜 여기 있는가 싶고…”

사례 38: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는데 저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낮에 만날 수는 없고…. 친구들은 낮에 학교 다니고 이제 저녁에 와서 나랑 노는 건데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는 거잖아요. 허탈하고 소외감도 들고.”

② 학업중단 이후의 긍정적인 경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으로 인해 어려운 점도 경험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이 보고한 긍정적인 경험으로는 ‘규칙이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짐’(변동적), ‘마음이 편해짐’(변동적), ‘목표가 생기고 자기탐색을 하게 됨’(변동적) 등이 포함되었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면서 자신의 취미나 적성에 맞지 않는 학교와 규칙과 규율이 있는 학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잘 따라가지 못함,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반응 등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목표가 생기는 경험을 한 것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돈을 벌었음’(변동적),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었음’(변동적)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 외에 한 사례여서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학교폭력에서 벗어남’을 가장 큰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보고한 청소년도 있었다. 반면에 학업을 중단한 이후 긍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음’(드문)을 보고한 청소년들도 3명이나 있었다. 학업 중단 이후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규칙이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짐

사례 1: “아, 그냥 편안했어요. 억압받지 않고 억지로 내가 불편한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고, 되게 편했고 자유로움.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머리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어요.”

사례 18: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학교의 친구들이나 이런 시선들.”

사례 21: “학교를 다닐 때보다 뭔가 얽매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 어떻게든 틀이 있고 막, 근데 그거를 학교를 안다니고부터 뭔가 스스로 해야 하고 이런 건 조금 어려웠는데 그냥 그렇게 혼자 해보고 막 시도해보고 하고 싶은 거 하다보니까 좀 자유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례 44: “자유로워져서…. 아 학교, 알바, 집, 학교, 알바, 집 이랬는데 그나마 그거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학교, 알바, 집이 아닌 그냥 놀다가 알바 가고 집 가고 놀다가 알바 가고 집 가고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통금 시간이 있어서 학교 끝나면 바로 거의 맨날 바로 와야 하고 그랬어요.”

○ 마음이 편해짐

사례 7: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사례 12: “예전에는 조금만 짜증나도 화가 나고 그랬는데 잘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사례 15: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된 것 같아요. 그니까 압박 같은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여유롭게…”

사례 29: “어려움 그런 거 없었어요.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뭔가 안가도 된다는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 목표가 생기고 자기탐색을 하게 됨

사례 3: “갑자기 깨닫는 게 생기더라고요. 머리에서 번쩍하듯이. 가장 도움을 준 거는 엄마인데…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나와서 ‘한번 도전해보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면 되지’, ‘그래, 내가 한심한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 그것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되고 결심이 생기니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사례 4: “긍정적인 면이요… 제가 제 스스로 공부하는 면을 찾았어요.”

사례 6: “그냥, 무의식적으로 뭔가, 저를 찾게 되는? 내가 누군지 계속 탐색하게 되는 생각… 그게 되게 오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좀 알게 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사례 20: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주변에 어른들이 없고 아이들도 없고, 거의 혼자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는 생각보다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 돈을 벌었음

사례 2: “알바, 알바 했는데 돈을 벌잖아요. 그게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사례 14: “애들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사례 30: “취업이요. 안 놀고 일하잖아요. 돈을 버니까.”

사례 41: “애들이 학교 다니는 사이에 알바를 하니까 돈 조금 더 모을 수 있고… 애들보다 한발 더 나아가는 것 같고…”

○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었음

사례 13: “그 뭐라고 해야 하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고.”

사례 37: “그 극단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극단 00에서 하나의 연극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저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극을 하고 싶은 내 꿈...”

사례 38: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외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하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례 44: “딱 미용기술 그런 거 배우고 싶은데도 학교 다니느라 시간 안 되고, 그게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학교도 안 다니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미용이니까 미용실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 없음

사례 28: “긍정적인 면... 없어요. 없는 거 같은데... 어려웠죠.”

사례 35: “없는 거 같은데... 진짜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놀았을 때가 좋은데 놀 때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재밌었으니까 놀 때 빼고는 없는 거 같아요.”

③ 학업중단 이후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 자신의 생각과 심리상태, 혹은 일상생활 등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로 ‘자신감과 의지력이 생김’(변동적), ‘심리적으로 안정됨’(변동적)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예전과 달리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됨’(변동적), ‘자기 관리를 하게 됨’(변동적), ‘미래를 계획하게 됨’(변동적)의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구속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현실감이 생기게 되어 나타나게 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인다. 학업 중단 후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자신감과 의지력이 생김

사례 12: “그 확실히 자립감이 좀 생긴 느낌. 자신감은 확실히 생기고 있어요. 다른 애들보다 의상 실력이 월등히 높아가는 게 확실히 보이니까.”

사례 18: “뭔가 다양한 걸 해보자는 의지가 생겼어요.”

사례 21: “음... 그냥 그런 틀 없이도 내가 뭘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사례 22: “생활정신? 정신력이 세졌어요. 전에는 하기 싫으면 그냥 놔버렸거든요. 지금은 우선 버텨보려고요. 학교는 그만뒀으니까 그거는 못하더라도 하나는 계속 하자, 그런 마인드.”

사례 38: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때... 선생님들이랑 좀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싫었어요. 제가 왜 학교를 그만두고 이런 이야기... 누가 물어봐도, 근데 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 심리적으로 안정됨

사례 14: “옛날에는 제가 분노조절이 안됐거든요. 감정조절이 안됐는데 지금은 약간 침착해지고 그런 부분 좋아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참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동안 더 생각해볼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 16: “학교에서 좀 압박감이 있었으면 좀 이제 마음이 편해진 느낌?”

사례 25: “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해야 하지? 좀 지각하면 안 되고 뭐 놓고 오면 안 되고 뭐, 이런 근심걱정이 많았어요. 뭐만 넥타이만 안하고 와도 성찰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아무것도 안하고 하니까 좀 편해졌어요.”

사례 32: “심리적인 변화는 좀 더 밝아졌어요. 사람이 밝아지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이것저것 해보고... 보다 여유롭게 되어진 것 같아요.”

사례 36: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하고 행복도 느낄 수 있고, 막 긍정적인 생각 밖에는 안 들어요.”

○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됨

사례 39: “예전에는 철없이 생각하는 편이었고, 말하고 후회하는 편이었는데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 생각하는 게 철이 들고... 그런 거 같아요.”

사례 44: “그니까 예전엔 막 철없이 행동했는데 지금은 약간의 생각을 갖고 행동한다? 철들었다?”

○ 자기관리를 하게 됨

사례 7: “음... 따로 혼자 활동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또 운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느 정도 키도 커졌고요. 사실 제가 스트레스 땀에 키가 잘 안 컸거든요. 음... 그리고 여행도 갔고.”

사례 21: “시간 같은 걸 제가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사례 37: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졌고요. 어,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는 내가, 누군가가 무얼 시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정말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떨어진 거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연기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글도 써보고 공예를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실행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사람으로 변했고요...”

사례 38: “일단 하루일과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규칙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때 일어났으니까 이때까지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 미래를 계획하게 됨

사례 1: “원래 대학교 생각은 없었거든요. 원래 대학 안 하고 취업을 바로 할 거였거든요. 취업을 하면 내가 돈을 얼마는 벌겠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면 되겠지 하는 구체적인 틀도 약간...”

사례 9: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업을 찾겠구나 그냥 생각했는데 그 자퇴하고 그러니까 뭐할지 정해야 되겠구나는 생각도 들고...”

사례 23: “생각의 변화는... 예전엔 늘 생각 밖에는 안 했는데 이제는 미래라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검정고시를 해서 애들보다 빨리 졸업해서 애들보다 뭐 같은 걸 더 돈이라든가 뭐라든가 더 할 수 있는...”

④ 학업중단 이후 경험한 부정적인 변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힘들었던 학교를 그만두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변화된 모습도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후 경험한 부정적 변화로는 ‘불규칙한 생활’(변동적), ‘미래에 대해 불안해짐’(변동적) 등을 들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닐 때에도 등교시간을 맞추고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등 일정한 틀안에 갇힌 일과를 힘들어하였지만 학교를 그만 둔 다음에는 정해진 시간에 어디를 꼭 가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의 규율도 없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생활이 더욱 불규칙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불규칙한 생활은 예전에 비해 더 부정적인 측면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학업 중단 이후 얼마간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지만 이러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부모 및 가족들과 부딪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겹고 힘들었던 학교를 벗어나서 오는 편안함과 함께 ‘짜증과 화가 늘어남’(변동적)과 같은 심리적인 변화도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학업 중단 후 경험한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불규칙한 생활

사례 2: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자퇴하고 더 우울해졌어요.”

사례 35: “일단 밤낮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요, 아침 11시에 자잖아요. 그러면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그때 생활하고 그러다보니 밥을 제때 제때 못 먹어서 옛날보다 대개 잘 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빛을 안보니까 기분이 다운된다고 해야 된다…”

사례 38: “일단 낮밤이 없어졌다는 거죠. 일을 안 할 때는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고 그랬던 게 가장 불편했죠. 부모님도 안 좋아하죠. 동생도 같이 방을 썼어요. 제가 밤에 시끄럽게 떠들거나 그러면 동생이 잠을 깨요. 깨서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고 가족들이랑도 갈등이 생기고 그랬어요.”

사례 40: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초기에는 똑같이 게으르고 의지도 없고…. 학교 다닐 때는 뭐라도 움직이기라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만나고 그랬는데 집에서는 진짜 먹고 자고…. 그냥 방에, 방에서만.”

○ 미래에 대해 불안해짐

사례 15: “좀 불안한감이 있긴 있어요. 하게 되면은 나 혼자 스스로 해야 하는 거고 나 혼자해서 대학을 가야하고 그런 게. 하는 게 있으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중간에 내가 포기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사례 22: “내가 이렇게 자유가 생겼는데 미래가 걱정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우는 게 없는데 뭐를 할까….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사례 39: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더 빨리 학업에 충실해서 다른데 더 좋은데 알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사례 43: “두려움은 있죠. 두려움. 지금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정말 잘하면 될 텐데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 짜증과 화가 늘었음

사례 3: “가장 큰 문제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나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너져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지만 화나는 게…. 화나면 사소한 것에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생활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사례 10: “애들 학교 다닐 때 나는 사회에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교 다니고 싶다 그런 거, 부럽기도 하고 재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저러니까 짜증나죠.

사례 34. 네. 누가 뭐라면 짜증나요.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꼭 참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계점이 왔어요.”

사례 38: “좀 갑갑하고 화가 났어요, 되게. 청소년은 같은 청소년이잖아요. 나이가 20될 때까지 같은 청소년인데 왜 중고등학생이라고 표시를 해놔서 왜 학교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화나고 소외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⑤ 학업중단이 나에게 갖는 의미

학업중단이 나 자신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장’(변동적), ‘자유로움과 해방감’(변동적), ‘인생의 전환점’(드문), ‘쉽’(드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보고하기도 하였고, ‘후회와 안 좋은 기억’(변동적), ‘인생의 포기’(드문)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별 의미가 없음’(드문)과 같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반응으로 본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 자신의 결정 및 그로 인한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학업 중단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성장

사례 4: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을 갖는 의미…. 진짜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뭔가 환생했다고 해야 하나? 그 전에는 되게, 제가 봐도 비루한 고등학생인 것 같은 거예요.”

사례 9: “우물 안 개구리였는데 지금은 우물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크게 보이네요.”

사례 36: “서서히 빛이 보이는 단계인 거 같아요. 제 꿈을 향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례 37: “나는 이제 내가 내 삶을 개척하자라는 가치관에 첫 발을 내딛는 하나인 것 같아요. 남이 갔던 길이나 혹은 남들이 말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 후회와 안 좋은 기억

사례 2: “전 좀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네, 별로 안 좋은 의미예요.”

사례 22: “응, 우선 많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만뒀을까? 졸업 못 한 게 좀 그래요.”

사례 30: “음…. 끝. 끝이죠. 막 학교 다시 다니고 싶은 맘. 교복 다시 입고 싶고 그런 맘 있는데 다시 못하잖아요.”

사례 40: “그냥 안 좋은 것…. 안 좋은 추억이죠.”

○ 자유로움과 해방감

사례 1: “그만둔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해방. 말 그대로 그냥 해방. 자유로움 이런 거…. 그런데 지금은 다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 아쉬움….”

사례 7: “뭐, 지옥 같은 학교에서 그니까 지옥 같은 학교에서 해방됐다….”

사례 17: “뭐라 말해야하지? 자유로움. 뭐라고 더 설명할게 없는데.”

사례 34: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의미죠. 해방이 됐잖아요, 갇혀 있다가. 갑갑한 게 풀린 느낌?”

○ 인생의 포기

사례 23: “인생을 망쳤다. 일단, 뭐 안 좋고 좋은 점으로 치자면….”

사례 31: “인생의 반을 포기한 거죠, 그냥. 학생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전 이러고 있잖아요.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 별 의미 없음

사례 5: “딱히 큰 의미가 되진 못할 거 같아요. 그냥 학업중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사례 26: “글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없는데….”

사례 29: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의미라고 하기에는 좀…. 그때는 그냥 철없는 생각에 놀고 싶다는 마음에 그냥 학교를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미까진 없어요…. 그냥 지금 저는 만족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 열심히 만족하는 거 같아요.”

(3)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에 있어서 영역과 범주는 <표 V-5>와 같다.

① 사회적 지원서비스 정보 획득 경로

현재 받고 있는 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여타의 지원 서비스 정보를 획득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인, 친구들'(변동적)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험이 숙려제도를 포함한 정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등 교사와의 '상담과정을 통해'(변동적) 정보를 얻은 경험보다 많았다. 그 뒤로 자신들이 겪은 실제적인 경험인 '재판과정, 보호관찰 과정을 통해'(변동적) 정보를 얻거나 '검정고시 접수 시'(드문)에 정보를 획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표 V-5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의 영역 및 범주

영역		범주	응답빈도
사회적 지원서비스 정보를 알게된 경로		지인, 친구를 통해	변동적 (8)
		상담과정을 통해 (담임, 숙려제도 등)	변동적 (6)
		재판과정, 보호관찰과정을 통해	변동적 (5)
		기억이 안남	드문 (3)
		검정고시 접수 시	드문 (2)
		쉼터에서	드문 (2)
사회적 지원 서비스 이용	이용한 서비스	검정고시 지원	변동적 (13)
		경제적 지원 (교통비, 학원비)	변동적 (11)
		상담 및 심리검사	변동적 (8)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	변동적 (8)
		문화활동	변동적 (6)
		숙식 제공	변동적 (6)
	이용 후 소감	혼자하기 힘든 공부를 도와주어서 좋았음	변동적 (18)
		경제적 지원은 생활에 도움이 되었음	변동적 (7)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됨	드문 (3)
		친구가 생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됨	드문 (3)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이 너무 짧음	드문 (3)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음	드문 (2)
		같이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	드문 (2)
	이용 후 달라진 점	공부에 흥미와 의욕이 생김	변동적 (8)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김	드문 (3)
		사회성이 좋아짐	드문 (2)

영역	범주	응답빈도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정보를 몰라서	변동적 (16)
	귀찮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서	변동적 (8)
	당장 필요한 것들이 아니어서	변동적 (5)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경제적 지원	변동적 (16)
	검정고시 지원	변동적 (7)
	대학진학 정보	변동적 (5)
	취업	변동적 (5)
	심리상담	변동적 (4)
	진로 정보	드문 (3)
	기술훈련	드문 (2)
	놀 거리, 여가활동	드문 (2)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	경제적 지원 확대	변동적 (8)
	거주 문제 해결	변동적 (5)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확대	변동적 (5)
	일자리 제공	드문 (2)
	쉼터 규정 재정비	드문 (2)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드문 (2)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드문 (2)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안남(드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도 있었으나 이 같은 경우 정보를 들을 당시 관심이 없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더불어 실제 정보를 듣지 못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였다. 사회적 지원서비스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지인, 친구들을 통해

사례 1: “주변의 친구들이나 언니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사례 24: “자퇴할 땐 못 들었고, 나중에 친구하고 선배 소개로 알게 됐어요. 친구가 너 지금 공부 안 할거면 나중에 후회한다, 친구가 그러기에. 친구가 바래다줬어요.”

사례 35: “우리 반에 있던 복학생 오빠. 그런데 그 오빠가 또 자퇴를 했어요. 그 오빠한테 들었어요.”

○ 상담과정을 통해

사례 4: “많이 알려주세요, 선생님들이. 한 달 정도 상담하면서 뭐가 달라졌어 묻고

그것에 맞는 정보를 알려주시고 도움되는 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사례 10: “술 먹고 폭행하는 사건으로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게 됐죠. 상담을 받다가 선생님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줬어요.”

사례 12: “친척이 한 명 자퇴했어요. 근데 개는 여기서 제가 받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숙려제도 하면서 여기서 검정고시도 배울 수 있고 상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례 35: “자퇴할 때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때는 잘 못 알아듣고….”

○ 재판과정, 보호관찰과정 등을 통해서

사례 28: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쉼터를 처음 알게 된 것도 그 재판 상담선생님 때문이에요.”

사례 31: “소년원 갔다가 쉼터로 갔는데 또 사고 쳐서…. 또 들어갔는데 여기 관장님이 교육을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야기해서….”

○ 기억이 안남

사례 18: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정확히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사례 19: “자퇴서류 내려 내가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서서 나는 직접 들었던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례 36: “숙려제를 했어요. 2주간 상담 받았는데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제가 더 방황했던 거 같아요.”

②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과 이용 후 소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이용한 서비스를 분류해 보면 ‘검정고시 지원’(변동적), ‘교통비와 학원비 등의 지원’(변동적), ‘상담 및 심리검사’(변동적),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변동적), ‘문화활동’(변동적), ‘숙식제공’(변동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관련 기관들에서 교육지원, 진로 및 취업 관련 지원, 상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용기관에 따른 편차로 상대적인 불만감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각 서비스를 이용한 후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혼자하기 힘든 공부를 도와주어서 좋았음’(변동적), ‘경제적 지원은 생활에 도움이 되었음’(변동적),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됨’(드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소감과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이 너무 짧음’(드문),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짐’(드문), ‘같이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드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소감도 함께 보고되었다.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 후 소감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혼자하기 힘든 공부를 도와주어서 좋았음

사례 23: “공부도 막 도와주고, 여기는 1:1로 해주니까 이해가 더 잘돼요.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보다 여기 다니는 게 더 우월하죠. 항상 12시부터 전화해서 항상 케어하고 검정고시 합격해야 한다고 항상 케어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사례 27: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는 것... 좋았어요.”

사례 39: “공부하는 거. 일대일 면담식 공부하니까 쪽쪽 들어오고 잘 되고 어려워도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잘 알려주니까.”

○ 경제적 지원은 생활에 도움이 되었음

사례 2: “생필품 같은 거는 저희 집안 경제사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랬죠.”

사례 31: “요즘 세상에 공짜로 따뜻하게 밥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게 해주고 놀러가고... 어땠어요? 그런게 끝이죠. 완전 좋아!”

사례 35: “일단 돈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교통카드 2만원씩 충전하는 것은 매달 받고 있고... 이런데도 있구나... 원래 몰랐는데 직접 접해보니...”

사례 44: “밖에 살 때는 돈이 없을 때 아파도 끄끔 앓아야 되니까... 근데 돈 없어도 아플 때 얘기하면 되고...”

○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됨

사례 4: “제 또래를 많이 만나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좋아지고...”

사례 7: “뭐 맘이 안정되니까...”

○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간과 질에 대해 불만족스러움

사례 6: “좀 지루하다는 것. 제 성격이 좀 급하고... 이렇게 목적 지향적이라 가지고, 조금 빨리 빨리 안 나가서 좀 짜증났어요.”

사례 31: “안 좋은 점은요, 그게 너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도와주든지. 어떤 곳은 한 달 안에 모든 걸 다, 아니 일주일 안에 끝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례 37: “기회를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근데 그 문화체험할 때 그 질이 좀 떨어지는 게 아쉬웠죠. 그러니까 뮤지컬을 볼 때 그래도 좀 중간쯤은 볼 줄 알았는데 3층 맨 꼭대기에서 봐 가지고 뭔가 보는데 보는 것 같지 않은....”

③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 후 변화된 점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 후 자신이 변화된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부에 흥미와 의욕이 생김’(변동적),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김’(드문), ‘사회성이 좋아짐’(드문) 등을 보고하면서 학습지원 서비스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였던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 및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가르쳐 주는 기회였다고 회상하고 있었다. 또한 드문 반응이었지만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봄에서 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 후 변화된 점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공부에 흥미와 의욕이 생김

사례 13: “제가 원래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습을 해야겠구나 생각도 하고, 또 공부가 알고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쌤한테 프린트 뽑아달라 그래갖고 집에서 한 시간씩 공부하고 그래요.”

사례 18: “지금 여기 오게 된 이후 공부에 대한 의욕이 좀 더 커졌어요.”

사례 24: “크게 달라졌어요. 학교처럼 맨날 출석하고 공부를 하고....”

사례 39: “공부를 몇 번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니까 집중도 잘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좋고 공부해보면서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사례 44. 제가 미용사가 꿈인데 이런 걸 다 겪고 나니까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는 그런 거... “

○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김

사례 13: “어, 다니기 전에는 그냥 좀 막 나가는... 그냥 좀, 뭐, 어떻게 되겠지 이

런 생각으로 놀고 그랬는데 여기 다니고부터는 아, 내가 지금 학교를 어떻게 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신감 같은 거, 막, 막... 아, 난 이런 거 잘한데 이런 생각 있으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

사례 36: “공예 같은 건 만들잖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뿌듯하고 성취감도 있고...”

사례 38: “일단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었죠. 자신감도 생기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다니니까 많이 우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이나 언니오빠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전부 똑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잖아요. 같이 공부하니까 단합력도 생기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④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보를 몰라서’(변동적)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기관에서 정책서비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서비스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뒤로는 정보를 알긴 알았지만 ‘귀찮아서’(변동적), ‘당장 필요한 것들이 아니어서’(변동적), ‘관심이 없어서’(드문)로 답하였다.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 사례에서만 나타난 응답으로는 ‘시간이 안 맞아서’, ‘도움이 안 될 거란 생각에’, ‘마음에 안 들어서’가 있었다.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정보를 몰라서

사례 6: “다른 프로그램들은 들어본 게 없어가지고... 들어본 것만 다 참여를 해가지고. 안 들어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례 30: “추천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몰라요.”

사례 38: “아무래도 제가 몰랐을 거 같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만약에 제가 미리 알았다면 다 했을텐데...”

사례 40: “일단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있었는지도 몰랐고...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있는 줄 몰랐어요.”

○ 귀찮기도 하고 관심도 없어서

사례 20: “귀찮아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

사례 25: “전 복학을 하고 싶고 아직은 좀 더 놀고 싶어요. 그래 가지고 아직 마음이 없어요. 귀찮아요. 귀찮아서요.”

사례 44: “제가 그때 거절했었어요. 귀찮아서요.”

○ 당장 필요한 것들이 아니어서

사례 2: “그냥 별로 저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지금 저에게 당장 필요한지 아닌지 그거에 맞추니까...”

사례 8: “그때는 굳이... 그때는 그냥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중졸은. 그런데 고입은 와서 해야 하니까 학원도 다니고 그니까. 그때 그래서 찾았던 거 같아요.”

사례 9: “딱 필요한 것도 없어서요.”

사례 21: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주는 게 있었어요, 매달.”

⑤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경제적 지원’(변동적)을 꼽았다. 경제적 지원의 이유로는 대학을 진학하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한 미래 준비용, 현재 생활을 즐기기 위함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적 지원 다음으로는 실제적인 진로에 초점을 두어 ‘검정고시 지원’(변동적), ‘대학진학 정보’(변동적), ‘취업’(변동적) 등이 뒤따랐고, 이 외에 ‘심리상담’(드문), ‘놀이 거리와 여가활동’(드문) 등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예시는 아래와 같다.

○ 학업 지원(검정고시 지원)

사례 8: “학업지원이요. 지금 검정고시 지원.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더 의욕이 생길 것 같아요.”

사례 14: “제가 가장 절실한 것은 교육지원. 검정고시만 좀...”

사례 15: “저는 검정고시 지원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검정고시가 지금 상 황에선 제일 중요하니까. 대학 때문에...”

사례 28: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냥 저, 제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저한테 수준이 엄청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사례 35: “일단은 검정고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교통카드. 공부를 해야 하고 차비가 필요해요.”

○ 대학진학 정보

사례 4: “저는 대부분 입시 설명회, 대학 이런 거 많이 들었음 좋겠어요. 확실히 학교는 선생님들이 입시반 따로, 취업 담당선생님 따로 계셔서 애들이 되게 뽕뽕하게 알려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도 모르고 내가 알려면 개네들은 선생님이 다 알려주시는데 저는 제가 다 검색해봐야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아는 내용과 입시 내용이랑 다르더라고요.”

사례 5: “음… 대학진학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사례 7: “진학상담도 있고, 아니, 아니 진로상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어느 쪽이 맞을지도 봐야하고 또 어느 대학이 나에게 맞을까… 제대로 모르지 않으면 그런 게 불리할 것 같아요.”

○ 취업

사례 10: “음… 취업 같은 거? 그때 그냥 돈 벌기만 했는데 미리 취업교육을 제대로 받고 내 꿈이 원하는 거랑 같은지… 그런 자리에 가면…”

사례 30: “일자리요. 일해야 하니까…”

사례 38: “취업지원이겠쥬. 하루 종일 카페 알바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조그만 광고회사라도 제가 하고 싶었던 포토샵 하면서 편집 디자인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 심리상담

사례 5: “심리상담. 글썄요. 그냥 저도 모르는 제 생각을 알고 싶어요.”

사례 32: “심리상담도 받고 싶어요. 그냥 장래희망에 대해 알고 싶고, 나도 알고 싶고… 미래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요.”

사례 43: “저는 상담 및 정서지원 있잖아요. 이거요. 제가 있었던 일이나 힘들면 다 털어놓고 싶고 그래서요. 근데 저는 지금 없어서 도움 받고 싶어요.”

⑥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 확대’(변동적)를 가장 많이 보고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실생활과 관련하여 ‘거주 문제 해결’(변동적), ‘일자리 제공’(드문)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확대(변동적)에 대한 요구는 정보를 얻지 못하여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정책적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요구로 여겨진다. 이 외에 학업중단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드문)를 요구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에 대한 각 범주의 반응 예시는 아래와 같다.

○ 국비 지원 확대 (경제적 지원 확대)

사례 4: “국비 받아서 하는 거. 국비 이런 걸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메이크업 이고 좀 이런 걸 떠나서 외국어 학원이라든지, 뭐 컴퓨터 학원도 있나? 뭐, 그런 거라든지 좀 더 많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국비 지원이...”

사례 17: “지원금이요. 몰라요 그냥 돈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용돈 쓰듯이 쓰는 거죠.”

사례 22: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안 쪽 지원이든 뭐든 그냥. 뭐 인터넷 그거를 무료수강이라 해야 하나? 인터넷을 공짜 지원해준다든지 뭐, 컴퓨터를 해준다든지 못사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줘야지 우유 달라는 소리는 안했어요. 맨날 우유만 주고...”

사례 23: “애들이 생활비가 없으면 나이 어린 애들은 이상한 데로 빠지기 쉽잖아요. 돈을 지원해주고...”

사례 29: “일단은 애들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를 그만 둔 애들의 생각은 항상 ‘나는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엄청 많이 받았어요. 나도 배운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없어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 둔 애들 중에서도 되게 꿈이 많아요. 뭘 하고 싶다던가...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애들이 그런 거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 거주 문제 해결

사례 23: “집을 웬만하면 들어가면 좋은데 엄마아빠 이혼한 애들은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무슨 시설 같은 거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례 33: “가출청소년 도와주는 거. 거주 문제요.”

사례 44: “가출 청소년끼리 살 수 있는 그룹홈 같은 거. 선생님들 없이 그냥 그룹홈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확대

사례 24: “나라에서 지원해줘도 오는 사람만 와요. 나라에서 지원해줘도 개네들이 안와요. 모르니까. 나도 몰랐으니까... 알려야죠.”

사례 40: “근데 여기 안 알려진 도움이 많잖아요. 그것부터 좀 많이 알려줘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도 잘 안 알려져 있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힘든...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3) 소결

학교 밖 청소년들 안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이 유형에 따라 이들의 욕구와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은 다양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안타깝게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체계 및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심층적으로 면접하였고 면접자료를 CQR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44명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형 16명, 유예형 10명, 비행형 8명, 근로형 6명, 혼합형 4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학업형의 청소년들은 이미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수능을 준비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대부분 학력취득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5개 유형 중 유예형을 제외한 4개 유형에서 검정고시 합격을 한 청소년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유형에 상관없이 학력취득은 이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졸업장, 즉 학력이 한 사람의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주는 결과인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유형별 분류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사회 안에 통합되고 융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학력 위주의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장이 대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게 되는 요인과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 망설이게 되는 요인에는 '또래 친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친구관계였지만 학업중단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역시 친구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소한 다툼과 무시 뿐 만 아니라 따돌림, 더 나아가 학교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은 학업중단의 위험요인이 되지만 동시에 또래 관계에서의 친밀감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에게 학업 중단의 기로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보다 긍정적이고 친밀한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까운 가족이나 담임선생님과 의논하거나 숙려제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학교를 가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할 당시나 직후에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학교 대신 선택하는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자기성찰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이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해야 한다. 학업숙려제가 학업중단과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미래 진로 및 자신에 대한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자퇴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시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소외감과 심리적 불편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후회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지만 타율적인 생활을 하는 학교라는 조직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의 일을 처리해 나가며 목표가 생기는 긍정적인 측면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감과 의지력이 생겨 미래를 계획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학업중단이란 후회를 가져오는 안 좋은 기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과 자유로움, 인생의 전환점, 쉽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남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청소년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폭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학업중단이라는 위기를 자아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사나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통해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보다는 중단 후 지인을 통해 혹은 처벌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고 일선 학교나 관련 기관, 지역사회, 언론 등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는 담당자들의 성의 부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해 청소년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지원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라는 등의 이유로 가뉘어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의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정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을 보고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에 있어서도 경제적 지원의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대학을 진학하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한 미래 준비, 생계, 여가나 취미 등을 즐기기 위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경제적 지원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면 그 저변에 이들이 처한 상황적 요인이 어떠한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도록 하는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정책과 체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교 안에서 현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적, 법적 제도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4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각의 범주의 질문에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Hill 등(2005)의 분류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례 혹은 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일반적’인 응답인데 본 연구에 참여한 사례들은 ‘일반적’인 응답이 모든 범주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사례의 반

이상이 동일하게 응답하는 ‘전형적’인 반응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변동적’인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경로, 학업중단 경험,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업중단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정책과 지원방식은 매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각 유형의 특성을 일반화시켜 ‘이러할 것이다’라고 선부르게 판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서비스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왜 이러한 지원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후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분석⁶³⁾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이 조사는 조사 당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93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기관별로 팀장이나 실무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파악을 잘 하고 있는 한 명이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93개소에 배포되었으나 그 중 거절 및 미회수 등의 이유로 22개 기관이 제외되어 총 171개 기관의 종사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시도별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수는 <표 V-6>과 같고 지역규모별 참여 기관 수는 <표 V-7>과 같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은 80.7%(138명)로 남성(33명, 19.3%)에 비해 압도적으로

표 V-6 17개 시도별 센터

(단위: 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21	11	9	6	4	3	5	1	23	8	11	12	10	14	12	18	3	171

63) 이 절은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표 V-7 지역규모별 센터

(단위: 개소,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계
사도센터	5 (2.9)	9 (5.3)	0 (0)	14 (8.2)
사군구센터	49 (28.6)	66 (38.6)	42 (24.6)	157 (91.8)
전체	54 (31.6)	75 (43.9)	42 (24.6)	171 (100)

표 V-8 종사자 성별 및 연령 현황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원 (%)	10 (5.8)	49 (28.7)	59 (34.5)	17 (9.9)	44 (25.7)	61 (35.7)	4 (2.3)	38 (22.2)	42 (24.6)	2 (1.2)	7 (4.1)	9 (5.3)	33 (19.3)	138 (80.7)	171 (100.0)

많았으며 연령은 20대가 34.5%(59명), 30대가 35.7%(61명), 40대가 24.6%(42명), 50대가 5.3%(9명)로 30대가 가장 많고 연령 증가에 따라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표 V-8>). 이들의 현 기관에서의 근무 개월은 평균 12.7개월(표준편차 22.8)이었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총 근무 개월은 평균 42.9개월(표준편차 33.9)이었다.

(2) 조사 내용 개발절차 및 주요 내용

조사 내용은 연구진이 선행연구 분석 및 정책협의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관련 영역과 센터의 활동 및 제공서비스 관련 영역으로 나누었다.

지원센터 이용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영역에서는 이용청소년들의 규모 및 성별, 연령, 학업중단 시기, 가정의 경제적 상황, 위기청소년의 현황, 진로결정 유형, 발굴경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센터의 활동 및 제공서비스 영역에서는 기관의 위치 및 시설 상태, 예산집행 기준, 서비스제공 인원 및 성과달성 인원,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및 제공 여부, 센터 내 제공서비스 여부, 지원서비스 별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 관련기관과의 연계 정도, 홍보방법, 센터 내 종사자의 업무만족도

표 V-9 설문 영역별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 이용 청소년들의 규모 • 이용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및 연령, 가정의 경제적 상황) • 이용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시기 • 이용 청소년들의 유형별 위기 경험 여부 • 이용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유형 • 이용청소년들의 발굴 경로
센터의 활동 및 제공 서비스 영역	• 기관의 위치 및 시설 상태 • 예산 집행 기준 • 서비스제공 인원 및 성과달성 인원 •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한 종사자의 인지 및 기관에서의 제공 여부 • 센터 내 제공 서비스 내용 • 지원 서비스별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 •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정도 • 센터 홍보 방법 • 센터 내 종사자의 업무 만족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는 센터의 활동 및 제공서비스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하여 현재 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표 V-9>에 제시되어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후 전화를 통한 보완작업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 및 회수한 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진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를 거절한 센터는 부득이하게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는 2015년 7월 15일에서 8월 2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SPSS 20.0을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현장전문가 간담회 개요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5년 9월에 총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11명(남자 4명, 여자 7명)이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5명, 그 외 광역시 및 시도 지역에서 6명이다.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설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 센터 및 지원사업 운영 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간담회 진행 형식은 연구진이 제시한 기본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였다. 간담회의 내용은 참석자의 동의 아래 녹음 후 전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서술된 참석자들의 발언은 참석자들의 보호를 위해 소속지역이나 연령, 성별 등 참석자의 기본정보에 대한 제공 없이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여 인용하였다.

3)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① 기관이용 청소년의 수

최근 일 년 간 설문조사에 응한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모두 11,061명이었으며 설문응답 당시에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4,9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 성별을 보면 남자(54.9%)가 여자(45.1%)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남자의 경우는 만 15~17세(48.8%)가 만 18세 이상(47%)보다, 여자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48.8%)이 만 15~17세(47.1%)보다 다소 많았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전체적으로도 만 15~17세(48.1%)와 18세 이상(47.8%)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기관 이용청소년 수를 응답기관 수인 171개로 나누어 보면 지난 일 년 간 기관 당 평균 약 65명의 청소년에게, 설문조사 당시에는 기관 당 평균

표 V-10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기관이용 청소년의 수**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계
2015.8 현재 이용자 수		2,744 (54.9)	2,251 (45.1)	4,995 (100.0)
최근 일 년간 이용자 수	만 11세 이하	20 (0.3)	9 (0.2)	29 (0.3)
	만 12~14세	245 (3.9)	185 (3.8)	430 (3.9)
	만 15~17세	3,051 (48.8)	2,265 (47.1)	5,316 (48.1)
	만 18세	1,629 (26.0)	1,314 (27.3)	2,943 (26.6)
	만 19세	973 (15.6)	751 (15.6)	1,724 (15.6)
	만 20세 이상	337 (5.4)	282 (5.9)	619 (5.6)
	계	6,255 (100.0)	4,806 (100.0)	11,061 (100.0)

표 V-1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기관이용 청소년의 수(평균)

(단위: 명)

구분		응답기관수*			기관별 평균 이용청소년 수(일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15.8 현재 이용자 수		163	159	165	17	14	30
최근 일 년간 이용자 수	만 11세 이하	11	5	13	2	2	2
	만 12~14세	60	64	84	4	3	5
	만 15~17세	145	138	154	21	16	35
	만 18세	122	113	133	13	12	22
	만 19세	95	92	111	10	8	16
	만 20세 이상	78	69	91	4	4	7
	계	171	171	171	37	28	65

* 각 연령대별 남자(여자) 청소년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수

약 30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표 V-11>). 그러나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관에 따른 이용청소년 수의 편차가 커서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최소 2명에서 최대 286명인 기관까지, 일 년간 이용자 수는 최소 3명에서 최대 1,271명인 기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편차는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대도시일수록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고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그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대도시에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이유로는 해당 지역 내 청소년 수가 많음에 따라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수가 같이 많아지는 탓도 있겠으나 부분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대도시로 몰리는 경향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에서 일하는 담당자)이 지난번에 B시에서 (열리는) 회의를 할 때 왔는데 학교 밖 청소년 딱 3명 있대요. 근데 저희는 200명 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게다가 광역이나 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축소시키고 시군의 직접 사업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인력 2명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C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거의 아이들 80~90%가 D시(C도 도청소재지)에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놀 곳이 없으니까 다 D시로 몰리고...(D시로 몰린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그만 둔 친구들도 다 D시로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르바이트 할 것도 많고요, 뭘 하고 놀려고 하면 여기가 낫고. D시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 E시가 여름이면 성수기잖아요. E시에 놀러 아이들이 막 가요. 그러면 G시 아이들도 E시에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수기때 자기들끼리 같이 막 노는 거죠. 며칠씩 아니면 한 달씩 놀다가 G시로도 오고 F시로도 가고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되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G시 내에 있는 데이터보다 적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많아질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역을 막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중략) 놀게 많은 곳으로 몰리거든요. E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아마 훨씬 많이 타 지역 아이들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②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

학업중단 청소년들 중 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면(<표 V-12>) 파악이 안 되는 경우(39.5%)를 제외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즉 경제수준이 ‘하’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응답한 경우(41.8%)가 중간 이상(18.7%)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나누어 봤을 때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대도시(33.6%)보다는 중소도시(45.2%), 농산어촌(59.7%)의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는 10명 중 약 6명 정도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에도 미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종사자들은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이 감안되어야 하며 경제적 상황이 중류층 이상인 경우도 없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표 V-12 **기관이용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상	234 (5.2)	141 (2.5)	24 (2.5)	399 (3.6)
중	726 (16.3)	750 (13.3)	189 (20.0)	1,665 (15.1)
하	1,039 (23.3)	2,021 (35.9)	470 (49.8)	3,530 (32.0)
기초생활 수급자	462 (10.3)	525 (9.3)	93 (9.9)	1,080 (9.8)
파악 안 됨	2,004 (44.9)	2,192 (38.9)	167 (17.7)	4,363 (39.5)
계	4,465 (100.0)	5,629 (100.0)	943 (100.0)	11,037 (100.0)

경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하위 친구들이 많아요. 지역적 특성상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친구들은 사실 학원 대안의 기능 쪽으로 많이 찾는 것 같고요. 꿈드림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 봤을 때 사실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가정경제 상황은 확실히 안 좋구요. 저희는 지금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아이들이 12명인데, 이 중에서 가정이 그나마 엄마 아빠 서포트가 되고 그나마 좀 관심을 갖는 애들이 두 명, 12명 중에.”

“해외에 갔다가 다시 오는 친구들도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런 친구들은) 경제적 상황은 괜찮죠. 근데 아이들 특성상 지금 당장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학교에 들어갔다가도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③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시기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시기를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표

표 V-13 **기관이용 청소년의 학업중단시기**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계
대도시	초등학교 시기	19 (0.7)	12 (0.6)	31 (0.7)
	중학교 시기	740 (29.1)	544 (28.3)	1,284 (28.8)
	고등학교 시기	1,785 (70.2)	1,365 (71.1)	3,150 (70.5)
	계	2,544 (100.0)	1,921 (100.0)	4,465 (100.0)
중소도시	초등학교 시기	32 (1.0)	34 (1.4)	66 (1.2)
	중학교 시기	582 (18.1)	393 (16.1)	975 (17.2)
	고등학교 시기	2,593 (80.9)	2,019 (82.5)	4,612 (81.6)
	계	3,207 (100.0)	2,446 (100.0)	5,653 (100.0)
농산어촌	초등학교 시기	6 (1.2)	6 (1.4)	12 (1.3)
	중학교 시기	61 (12.1)	84 (19.1)	145 (15.4)
	고등학교 시기	437 (86.7)	349 (79.5)	786 (83.4)
	계	504 (100.0)	439 (100.0)	943 (100.0)
전체	초등학교 시기	57 (0.9)	52 (1.1)	109 (1.0)
	중학교 시기	1,383 (22.1)	1,021 (21.2)	2,404 (21.7)
	고등학교 시기	4,815 (77.0)	3,733 (77.7)	8,548 (77.3)
	계	6,255 (100.0)	4,806 (100.0)	11,061 (100.0)

V-13>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의 비율이 7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의 경우는 10명 중 약 7명이,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경우는 10명 중 약 8명이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도시의 경우 학교를 일찍 그만 둔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시기의 차이를 보면 초·중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 둔 비율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여자 청소년(각각 28.9%, 17.5%)보다 남자 청소년(각각 29.8%, 19.1%)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농산어촌의 경우는 여자 청소년의 비율(20.5%)이 남자 청소년의 비율(13.3%)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지역에 따라 학교중단에 성별차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경우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기는 하지만 초·중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 두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및 학업중단 예방책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지역에 따른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경험 정도

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경험률은 <표 V-14>와 같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기상황이 미쳐 파악되지 않은 경우(32.9%)를 제외하고 음주 및 흡연, 약물에 대한 경험률이 17.4%로 가장 높았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경험률(14.6%), 학교폭력 피·가해 경험률(9.1%), 우울·불안·자살시도 경험률(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순히 학업을 중단하는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기경험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 음주 및 흡연, 약물에 대한 경험률이 24.6%로 중소도시(10.8%) 및 농산어촌(11.0%)이 비해 그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대도시 청소년의 경험률이 13.5%인 반면 중소도시(4.8%)와 농산어촌(7.2%)의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경험의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험률(17.7%)이 대도시(12.6%) 및 농산어촌(9.3%) 청소년의 경험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위기상황에 대한 경험률이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파악이 안 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음주 및 흡연, 약물에 대한 경험률의 경우 대도시 31.4%, 농산어촌 24.9%, 중소도시 18.3%로 대도시 청소년의 경험률이 다른 지역 청소년의 경험률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 간 차이는 다소 감소하였다. 학교폭력 경험률에서도 대도시 청소년의 경험률 17.2%, 농산어촌 16.3%, 중소도시 8.1%로 중소도시는 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농산어촌

표 V-14 기관이용 청소년의 위기상황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자	906 (12.6) (16.1)	1,182 (17.7) (30.1)	102 (9.3) (21.0)	2,190 (14.6) (21.8)
우울, 불안, 자살시도	607 (8.5) (10.8)	613 (9.2) (15.6)	59 (5.4) (12.2)	1,279 (8.5) (12.7)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등 문제행동	492 (6.9) (8.7)	326 (4.9) (8.3)	17 (1.5) (3.5)	835 (5.6) (8.3)
인터넷 및 게임중독	467 (6.5) (8.3)	433 (6.5) (11.0)	28 (2.6) (5.8)	928 (6.2) (9.2)
음주, 흡연, 약물 중독	1,767 (24.6) (31.4)	720 (10.8) (18.3)	121 (11.0) (24.9)	2,608 (17.4) (26.0)
학교폭력 파가해자	966 (13.5) (17.2)	318 (4.8) (8.1)	79 (7.2) (16.3)	1,363 (9.1) (13.6)
성범죄 파가해자	90 (1.3) (1.6)	68 (1.0) (1.7)	14 (1.3) (2.9)	172 (1.1) (1.7)
가정폭력 파가해자	311 (4.3) (5.5)	232 (3.5) (5.9)	49 (4.5) (10.1)	592 (4.0) (5.9)
의료지원이 필요한 신체적 장애 및 질환자	23 (0.3) (0.4)	38 (0.6) (1.0)	16 (1.5) (3.3)	77 (0.5) (0.8)
파악 안 됨	1,548 (21.6) -	2,761 (41.3) -	613 (55.8) -	4,922 (32.9) -
계	7,177 (100.0) (100.0)	6,691 (100.0) (100.0)	1,098 (100.0) (100.0)	14,966 (100.0) (100.0)

각 셀의 앞의 () 는 '파악 안 됨' 수를 포함한 비율, 뒤의 () 는 '파악 안 됨' 수를 제외한 비율임.

의 경험률은 대도시의 경험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경험의 경우에서는 중소도시 청소년의 경험률(30.1%)과 대도시(16.1%) 및 농산어촌(21.0%) 청소년의 경험률 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파악이 안 된 경우를 제외할 때 가정폭력 경험률이나 신체적 장애 및 질환자의 비율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농산어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지역별 또는 기관별 이용 청소년들의 위기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청소년들의 배경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특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유형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진로유형을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표 V-15>)

표 V-15 기관이용 청소년의 유형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학업형	1,139 (15.1) (40.3)	1,284 (18.5) (27.6)	298 (26.8) (37.6)	2,721 (17.5) (32.9)
근로형	726 (9.6) (25.7)	810 (11.7) (17.4)	70 (6.3) (8.8)	1,606 (10.3) (19.4)
혼합형	544 (7.2) (19.3)	1,613 (23.3) (34.7)	257 (23.1) (32.4)	2,414 (15.5) (29.2)
유예형	247 (3.3) (8.7)	772 (11.1) (16.6)	109 (9.8) (13.7)	1,128 (7.2) (13.6)
비행형	167 (2.2) (5.9)	170 (2.5) (3.7)	59 (5.3) (7.4)	396 (2.5) (4.8)
파악 안 됨	4,701 (62.5) -	2,280 (32.9) -	318 (28.6) -	7,299 (46.9) -
계	7,524 (100.0) (100.0)	6,929 (100.0) (100.0)	1,111 (100.0) (100.0)	15,564 (100.0) (100.0)

파악이 안 된 경우(46.9%)를 제외하고 학업형(17.5%)으로 분류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혼합형(15.5%), 근로형(10.3%)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형의 경우가 10.3%이며, 이에 혼합형 15.5% 중 근로형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 근로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은 것과 맞물려 생각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일부는 학업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들의 유형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 및 농산어촌과 달리 학업형보다는 혼합형이 더 많은 반면 대도시 및 농산어촌에서는 학업형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유형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대도시의 경우 60%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유형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사자들 중에는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반이 취약하여 개별적인 사례관리 및 통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관마다 요청하는 자료가 다르다보니 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며 수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시스템 내 프로그래밍이 좀 더 정교하게 될 수 있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꿈드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생겼고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입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언제 학업을 중단했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센터 내에서 받아서 통계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마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권역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조사하실 때 통계가 잘 안 잡힌다고 하신 부분들은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 꿈드림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된다 해도 한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거이거는 반드시 특성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통일 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없는데 이걸 하라고 하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면접할 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툴(tool)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오면 체크할 수 있게 하고는 있어요. 아이들이 초기 면접했을 때, 그 아이들의 전반적인 조사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툴이 (각 지역의 센터) 어디어디마다 있다면 그걸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는 필요하죠.”

“한청원에서 꿈드림 K드림 전산망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 그리고 국정감사 대비해서 9월 말까지 전체 입력을 다 하라고 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면 10월 정도에 기본 자료 데이터를 받는 게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K드림이라는 사이트에 DB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9월 초까지도 DB가 구축이 안 되어가지고 통계가 아예 나오지가 않고 잘못된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 접수나 사례 관리를 했을 때 엑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걸 다 통계를 추려내야 되는데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아이들의 통계가 다 달라요. 성별, 연령대 별... 이걸 관리하는 직원이 저희는 한 명인데, 이걸 도청에서 요구하는 거, 어디에서 요구하는 거, 다 맞춰서 가지고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앞서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에서도 지적했듯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개인별 특성과 더불어 기관 이용자 전체의 경향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시스템의 조속하고 체계적인 전산화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후 통계자료를 수집하거나 각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초기 면접지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사례관리 관련 서류 등에 대해 통일된 양식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⑥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굴경로

기관이용 청소년들의 발굴경로에 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면(<표 V-16>) 파악이 안 된 경우(23%)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통한 발굴이 155%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표 V-16 기관이용 청소년의 발굴경로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학교(Wee 클래스)를 통해서	636 (13.3)	1,117 (18.0)	96 (10.0)	1,849 (15.5)
교육청(Wee 센터)을 통해서	67 (1.4)	144 (2.3)	25 (2.6)	236 (2.0)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696 (14.5)	536 (8.6)	54 (5.6)	1,286 (10.8)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를 통해서	582 (12.1)	599 (9.7)	219 (22.9)	1,400 (11.7)
청소년 쉼터를 통해서	211 (4.4)	108 (1.7)	0 (0.0)	319 (2.7)
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274 (5.7)	294 (4.7)	7 (0.7)	575 (4.8)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34 (0.7)	26 (0.4)	25 (2.6)	85 (0.7)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340 (7.1)	292 (4.7)	121 (12.7)	753 (6.3)
스스로 찾아옴	177 (3.7)	422 (6.8)	68 (7.1)	667 (5.6)
가족 소개로	205 (4.3)	162 (2.6)	21 (2.2)	388 (3.2)
친구 소개로	159 (3.3)	592 (9.6)	78 (8.2)	829 (6.9)
기타	336 (7.0)	353 (5.7)	132 (13.8)	821 (6.9)
파악 안 됨	1,083 (22.6)	1,553 (25.1)	110 (11.5)	2,746 (23.0)
계	4,800 (100.0)	6,198 (100.0)	956 (100.0)	11,954 (100.0)

통한 발굴(11.7%), 법원이나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한 발굴(1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소 아쉬운 점은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청소년의 연계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연계가 17.5%에 불과하다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쉼터를 통한 연계도 2.7%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쉼터를 통한 발굴이 적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쉼터 내 자체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쉼터와의 보다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연계와 관련하여 일선 현장의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소속 기관들과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앙부처 차원에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여도 일선 현장에서 해당지역 학교 및 교육청과 지원센터 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즉각적인 인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원화 체계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려운 것 같

아요 교육부로 이관하던지, 협조체계를 공식화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클래스 쪽에서는… 저희가 학교 쪽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요… (중략) 저희 쪽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교육청이나 센터에서 연계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학교에서 숙려제로 개별적으로 의뢰하는 학교들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굴경로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법원이나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한 발굴(14.5%)이 가장 많았고 학교를 통한 발굴(13.3%)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발굴(12.1%)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시에서는 학교를 통한 발굴(1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발굴(9.7%), 친구 소개(9.6%), 법원이나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한 발굴(8.6%)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의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발굴(22.9%)이 다른 경로를 통한 발굴보다 상당히 많았으며 기타(13.8%),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12.7%), 학교(Wee 클래스)를 통한 발굴(10%) 순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지역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법원이나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한 발굴은 5.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대도시의 경우는 학교 이외의 기관을 통한 연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농산어촌의 경우는 아웃리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서는 친구의 소개로 인한 발굴도 적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입소문에 의한 연계도 매우 중요한 발굴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모두 수도권에서의 발굴경로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웃리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연계기관을 통해 주로 발굴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지역규모라 하더라도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발굴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발굴하는 게 검정고시 접수장이예요. 저희가 일단 접촉한 아이들 인원이 1차 2차, 검정고시가 1년에 두 번 있잖아요. 1차 2차 두 번 해서 천 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물론 천 명을 접촉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꿈드림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만 들어오긴 하지만. CYS-net하고 연계해서 아웃리치를 지역별로, 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권역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학업중단숙려제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자립생 활관이라든지 쉼터 같은 데에서도 발굴이 되고 있고, 친구 소개로 되는 경우도 종종

표 V-17 기관 운영기간(2015년 9월 현재)

(단위: 개월)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대도시	2	8	4.65 (1.63)
중소도시	2	8	5.07 (1.59)
농산어촌	2	8	5.50 (1.77)
전체	2	8	5.05 (1.67)

있어요. 초기에 여기 와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의 친구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학업숙려제, 경찰에서 연계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친구 소개로 오는 애들도 꽤 있고요. 크게 세 부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혹 부모가 어떻게 알고 데려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① 운영기간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보면(<표 V-17>) 평균 약 5개월로 대부분 최근에 개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2015년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이미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사회진입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는 학업복귀지원 프로그램인 해밀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지정된 센터라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기관들도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② 운영기관 유형

센터별 운영기관의 유형을 보면(<표 V-18>) 전체적으로 지자체 운영 기관과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30.4%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사단법인 운영기관(19.3%), 기타(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대도시의 경우에는 재단법인(40.7%), 사단법인(29.6%)이 운영기관으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지자체 운영기관은 중소도시(37.3%)와 농산어촌(42.9%)에서 많았다.

③ 종사자 수

각 기관별 종사자 수를 보면(<표 V-19>) 총 446명 중 정규직은 117명으로 26.2%이며 비정규직은

표 V-18

기관별 운영기관 유형

(단위: 개소, %)

		지자체 직영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타	계
대도시	사도센터	—	—	2(40.0)	2(40.0)	1(20.0)	5(100.0)
	사군·구센터	6(12.2)	4(8.2)	20(40.8)	14(28.6)	5(10.2)	49(100.0)
	계	6(11.1)	4(7.4)	22(40.7)	16(29.6)	6(11.1)	54(100.0)
중소 도시	사도센터	1(11.1)	—	5(55.6)	2(22.2)	1(11.1)	9(100.0)
	사군·구센터	27(40.9)	3(4.5)	16(24.2)	6(9.1)	14(21.2)	66(100.0)
	계	28(37.3)	3(4.0)	21(28.0)	8(10.7)	15(20.0)	75(100.0)
농산 여촌	사도센터	—	—	—	—	—	—
	사군·구센터	18(42.9)	—	9(21.4)	9(21.4)	6(14.3)	42(100.0)
	계	18(42.9)	—	9(21.4)	9(21.4)	6(14.3)	42(100.0)
전체	사도센터	1(7.1)	—	7(50.0)	4(28.6)	2(14.3)	14(100.0)
	사군·구센터	51(32.5)	7(4.5)	45(28.7)	29(18.5)	25(15.9)	157(100.0)
	계	52(30.4)	7(4.1)	52(30.4)	33(19.3)	27(15.8)	171(100.0)

328명(73.5%)으로 정규직의 2.8배에 이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3배에 가깝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종사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또는 기관 당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시·도 센터의 경우는 평균 5.1명, 시·군·구 센터의 경우는 평균 24명, 전체적으로는 26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관 당 이용 청소년 수를 살펴보았을 때 지난 일 년 간 기관 당 이용 청소년의 평균 수가 약 65명이었으며, 설문조사 당시 이용 청소년의 평균 수가 약 30명인 것으로 나타나(<표 V-11>) 종사자 일 인당 일 년에 약 25명의 청소년을, 조사 당시는 종사자 일 인당 11.5명의 청소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종사자들은 한 기관에서 종사자 두 명의 인원으로 약 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고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담당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여 사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설문조사의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기관에 따른 이용 청소년 수에 있어서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은 곳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입 과정에 따른 에너지 집중도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시군구

표 V-19 기관별 종사자 수

(단위: 명, %)

구분	기관수	정규직	비정규직	총 종사자 수	평균 종사자 수*
대도시	사도센터	5(9.3)	6(20.6)	23(79.0)	29(100.0)
	사군구센터	49(90.7)	52(44.5)	64(54.7)	117(100.0)
	계	54(100.0)	58(39.7)	87(59.6)	146(100.0)
중소도시	사도센터	9(12.0)	5(11.6)	38(88.1)	43(100.0)
	사군구센터	66(88.0)	37(22.4)	127(77.0)	165(100.0)
	계	75(100.0)	42(20.2)	165(79.3)	208(100.0)
농산어촌	사도센터	—	—	—	—
	사군구센터	42(100.0)	17(18.1)	76(80.9)	94(100.0)
	계	42(100.0)	17(18.1)	76(80.9)	94(100.0)
전체	사도센터	14(8.2)	11(15.3)	61(84.6)	72(100.0)
	사군구센터	157(91.8)	106(28.3)	267(71.4)	374(100.0)
	계	171(100.0)	117(26.2)	328(73.5)	446(100.0)

* 평균 종사자 수=총 종사자 수/기관 수

센터 2명 실무자로 210명을 서비스 제공인원 목표로 하는 것은 과도하고 결국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팀장 1명, 팀원은 똑같잖아요. (중략) 그 2명으로 일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지역사회에서 다른 인력을 계속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메꿔가는 거지, 두 명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1년에 보통 900명 정도 자퇴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50% 떨어낸다 해도, 우리가 40%만 갖는다 해도 한 450명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자퇴한 애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한 500명 선을 생각하고, 일단 그 아이들을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단계별로 쭉욱 (하려고요). 막 자퇴했다고 해서 여기 안의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원이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인력 2명 가지고 가능하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인력이) 최소한 4명은 되어야 어느 정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지금 2명 가지고는 그냥 정책홍보만 할 수준이지 실제 학생들이 피부적으로 꿈드림에 와서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을 고용)하는데 급여가 굉장히 작죠. 장기근속이 사실 어려워요. 급여가 인상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CYS-net같은 경우에는 경력산정이 되고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꿈드림 지침사업으로는 경력이라든지 호봉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장기근속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인 거 같아요.”

“저희가 한 직원 당 학교 밖 아이들에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연락이 두절됐다가도 또 작년에 연락이 돼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까지 다 포괄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 것이냐에 대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무자 선생님은 15에서 최대 2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한 직원 당 최대 사례관리를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것도 최대. 근데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인원들은 그걸 엄청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물망 역할을 해야 되지만 빠져나간다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이들에 대한 장기간의 개입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한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 및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정 및 업무과다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이직률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④ 평균 예산액

기관별 일 년의 평균 예산액은 약 9천만 원에 다소 못 미치는 정도이다(<표 V-20>). 2015년 사업지침서(여성가족부, 2015a)에 따르면 국비 및 지방비를 합하여 시·도 센터의 경우는 약 2억 1,500만 원⁶⁴⁾, 시·군·구 센터의 경우는 6,700만 원의 예산을 지급받아 이중 사업비로 시·도 센터의 경우는 35% 이상, 시·군·구 센터의 경우는 27%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타 예산을 합쳐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로 나누어 보면 시·도 센터의 경우는 약 2억 5천여 만 원, 시·군·구 센터의 경우는 약 7천 4백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국고 보조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지방비가 39.7%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으며 농산어촌의 경우는 국고보조비가 69.2%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정부의 운영지침상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50%, 그 외의 지역은 70%의 범위로 정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15a).

64) 시·도 센터 중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4개 지역에는 2억 5,800여 만 원이 지급되었다(여성가족부, 2015a).

표 V-20

기관별 평균 예산액

(단위: 천원, %)

구분		국고보조비	지방비	기타	계
대도시	시도센터	148,750(43.6)	157,042(46.1)	87,764(25.7)	340,898(100.0)
	시군구센터	43,566(69.1)	22,870(36.3)	10,790(17.1)	63,003(100.0)
	계	53,680(59.8)	38,117(42.5)	49,277(54.9)	89,724(100.0)
중소도시	시도센터	141,652(66.9)	64,520(30.5)	85,313(40.3)	211,702(100.0)
	시군구센터	50,908(59.5)	36,819(43.1)	7,050(8.2)	85,495(100.0)
	계	60,852(60.5)	39,940(39.7)	54,008(53.7)	100,640(100.0)
농산어촌	시도센터	—	—	—	—
	시군구센터	47,983(69.2)	22,305(32.2)	6,876(9.9)	69,350(100.0)
	계	47,983(69.2)	22,305(32.2)	6,876(9.9)	69,350(100.0)
전체	시도센터	144,382(56.0)	100,106(38.8)	86,294(33.5)	257,843(100.0)
	시군구센터	47,870(64.4)	28,946(39.0)	7,898(10.6)	74,300(100.0)
	계	55,383(61.9)	34,953(39.1)	38,050(42.5)	89,505(100.0)

“국비는 아무리 늘어도 그거에 비해서 지방비는 안 늘여주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나는 거는 한정이 있을 거고, 서울만 5:5예요. 지방은 7:3이면 더 힘들죠.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게 아무리 뭔가 좋은 방향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기관에서 다른 예산들이 들어와 주면 모르지만 아마 전국에서 그런 곳은 손에 꼽힐 것 같아요.”

⑤ 예산집행액

기관별 예산집행액을 보면(<표 V-21>)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60%를, 프로그램 운영비(30.8%)와 직접 지원비(6.6%) 등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37.4%를 차지하였고 예산 항목 중 관리운영비는 약 8.7%이다. 사업비의 경우 기관 당 약 3천여 만 원 수준이며 기관 당 일 년 간 이용청소년의 수가 평균 65명이라 할 때 일인당 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관마다 이용 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편차가 심해 이용청소년의 수가 많은 기관인 경우에는 사업비 예산이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실무자들은 사업비의 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직접적인 개별지원을 충분히 하기가 어렵고 집단지원을 중심으로 사업비가 배정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프라가

표 V-21

기관별 평균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

구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계
			프로그램운영비	직접지원비		
대 도 시	시도센터	134,262 (39.4)	187,922 (55.1)	12,515 (3.7)	18,675 (5.5)	340,898 (100.0)
	시군구센터	37,070 (58.8)	16,365 (26.0)	6,103 (9.7)	7,213 (11.4)	63,003 (100.0)
	계	46,416 (51.7)	33,184 (37.0)	6,609 (7.4)	8,118 (9.0)	89,724 (100.0)
중소 도시	시도센터	125,347 (59.4)	68,743 (32.6)	16,246 (7.7)	9,796 (4.6)	211,172 (100.0)
	시군구센터	57,000 (66.7)	22,804 (26.7)	4,702 (5.5)	7,008 (8.2)	85,495 (100.0)
	계	64,389 (65.0)	27,839 (28.1)	6,116 (6.2)	7,356 (7.4)	99,082 (100.0)
농산 어촌	시도센터	—	—	—	—	—
	시군구센터	42,764 (61.6)	19,412 (28.0)	4,405 (6.3)	7,719 (11.1)	69,407 (100.0)
	계	42,764 (61.6)	19,412 (28.0)	4,405 (6.3)	7,719 (11.1)	69,407 (100.0)
전체	시도센터	128,776 (49.3)	114,581 (43.9)	15,003 (5.7)	13,601 (5.2)	261,067 (100.0)
	시군구센터	47,128 (63.4)	19,940 (26.8)	5,093 (6.9)	7,282 (9.8)	74,347 (100.0)
	계	53,483 (60.2)	27,397 (30.8)	5,875 (6.6)	7,757 (8.7)	88,882 (100.0)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의 경우 활동을 위한 강사 등의 인건비가 많이 들고 다양한 문화 및 사회 활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밖으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욱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도를 감안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세운 지원센터면 뭔가 예산이 있어서 팡팡 지원해주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뛰거나 네트워크로 지역 자원 개발해서 하지 않으면 뭔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은 아마 그 돈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고, 저희는 지자체 예산이 또 있거든요. 여가부보다 더 많아요, 돈이. 그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정말 이대로 잘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인력도 저희는 좀 많은 편이기는 한데 다른 지역은 6,700(만 원)으로 어떻게든 하셔야 되니까 힘드실 거예요.”

“너무 꿈드림센터를 거저먹기식으로 만들어서... (예산은) 6,700(만 원)이지만 사

업비는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가지고 어떤 걸 지원하겠느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2개소로 확충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2개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120개소 정도에 센터당 예산을 더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제공 인원과 성과달성 인원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배정이 수립될 수밖에 없어 개별지원보다 집단지원 중심으로 배정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연 사업비가 너무 작아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로는 1인당 10만 원 정도 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 건강생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편이라 교통비, 문화체험비 등 실질적인 직접서비스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주어진 1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요. 시골에서는 검정고시 지도할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기 때문에 강사비를 지출하고 학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강사비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다른 문화체험이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없어지게 돼(중략).”

관리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약 9%로 보고되었다. 2015년 신규센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은 규모의 관리운영비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관리운영비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어 기자재 등 필요한 물품 구입은 물론, 냉난방 시설의 사용조차 어렵다는 의견이 종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심지어는 기관차량이 없어 외부에서 차량을 지원받으려 해도 관리 운영비가 없어 차량유지비를 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의 개인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초기단계에서 관리운영비 사용의 불가로 제대로 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점은 향후 기관운영의 지속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 운영비 자체 예산이 없어서 냉난방시설 이용조차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 센터 내 기관 차량이 한 대도 없어 프로그램운명을 직원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어요.”

“관리비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상비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부분을 CYS-net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CYS-net이 넉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갖추어져야지 진짜 독립적인 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2015년 200개 넘는 학교 밖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현실은 프린트도 없어 위 아래층을 왔다 갔다 하며 일하는 실정입니다. 쓸 수 있는 경상비가 매년 확보되어야 하고...”

“(관리 운영비가) 풀린 게 뭐냐 하면 기존도 5% 정도는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걸 신규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기존에 두드림 해밀 했는데 기자재가 왜 필요하냐고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종사자의) 개인 노트북으로 동영상 강의 틀어 주구요.”

⑥ 서비스 제공 목표인원 및 성과달성인원

기관 당 2015년 서비스 제공 목표인원 및 성과달성인원을 보면(<표 V-22>) 목표 인원은 전체 26,943명이고 현재 성과달성인원은 11,249명으로 목표대비 약 41.8%의 달성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40.7%, 중소도시 42.4%, 농산어촌 41.1%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를 기관 당 평균 인원 수로 환산해 보면 시·도 센터는 각 기관 당 목표인원 약 429명, 성과달성인원 약 192명이고 시·군·구 센터는 각 기관 당 목표인원 약 145명, 성과달성인원 약 59명이며 전체 목표인원(26,943명)을 앞서 언급한 종사자 수(446명)에 비추어 볼 때 종사자 일 인당 일 년에 약 6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22 기관별 서비스 제공 목표인원 및 성과달성인원 평균 (단위: 명)

구분		목표인원					성과달성인원				
		총 인원	평균	최대값	최소값	기관수	총 인원	평균	최대값	최소값	기관수
대도시	시도센터	1,869	373.8	855	50	5	621	124.2	245	15	5
	시군구센터	4,891	122.3	220	21	40	2,128	54.6	230	22	39
	계	6,760	150.2	855	21	45	2,749	62.5	245	15	44
중소도시	시도센터	4,131	459.0	1,485	203	9	2,072	230.2	585	57	9
	시군구센터	11,312	174.0	1,807	5	65	4,478	68.9	400	8	65
	계	15,443	208.7	1,807	5	74	6,550	88.5	585	8	74
농산 어촌	시도센터	—	—	—	—	—	—	—	—	—	—
	시군구센터	4,740	121.5	1,135	15	39	1,950	48.8	108	1	40
	계	4,740	121.5	1,135	15	39	1,950	48.8	108	1	40
전체	시도센터	6,000	428.6	1,485	50	14	2,693	192.4	585	15	14
	시군구센터	20,943	145.4	1,807	5	144	8,556	59.4	400	1	144
	계	26,943	170.5	1,807	5	158	11,249	71.2	585	1	158

기관이용 청소년 중에는 정보제공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의 일회성 서비스로 사례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지속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을 경우 담당자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일 년에 종사자 한 명당 최대 20명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볼 때 종사자 당 담당 청소년 수에 대한 적정선이 제시되고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 것이냐에 대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무자 선생님은 15에서 최대 2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한 직원 당 최대 사례관리를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것도 최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렇다면 저 지방에 학교 밖 (청소년이) 없는 지역에는 그냥 보이기 위해서 깔았다 하지 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데 중심으로... (중략) 연차별로 해서 그것이 잘 되면 다음, 다음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깔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편 목표인원 및 성과달성인원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은 그 기준이 수혜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각 기관 당 목표인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이 목표인원보다 적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목표인원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였다.

“저희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H군 같은 경우 한 해에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8명이에요. 그 8명이 다 H군에 있느냐 아니거든요. 다 I시(도청소재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abcd등급으로 하면 (H군에서 목표인원 설정을) 서른 몇 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 학교를 그만두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실적 분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또한 한 해에 한 명의 청소년이 학업지원과 취업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지원을 받았더라도 성과달성 인원은 한 명으로 계산되고 성과달성 인원을 몇 명 이상으로 정해놓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중복지원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성과달성

인원을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설령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성과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은 적은 예산 안에서 제공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이 중요하다는 거는 위(정부)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성과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3,600여 명이 목표인데 그 아이들 중에 35%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 35%에 인정되는 거는 검정고시, 복학, 취업.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것도 중복지원 안되고 하니까 한 아이가 상반기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하반기에 취업하면 그거 안 돼요. 애는 하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취업에 대한 거, 자격증에 대한 거, 이게 같이 따라 오게 되는데, 그걸 중복을 안 시켜버리면…. 한 아이가 정말 집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전 후 비교를 통해서 그걸로 (평가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미술 학원비는 지원이 안 된단 말예요. 이걸 취미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학원비를 대줘서 아이가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적에서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아이를 사례관리를 하고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많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안가거나 학업복귀를 안하거나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이 친구는 누락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학업복귀나 취업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애네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찾아주고 상대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꿈드림 지원센터에 와서 같이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근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여가부 쪽에서만 쓰게 되면 너무 단조로워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다들 바리스타, 제빵 이런 것만 하게 되니까. 자격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만 해야 또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깐. 차라리 실적 성과가 좀 바뀌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돼요. 굳이 꼭 취업하고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자격증하고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수도 있고 미술이나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지원이 가능하면 훨씬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이에 지원에 따른 성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을 다각적으

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⑦ 주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 및 제공(안내) 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가능한 주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관종사자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제공(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V-23>과 같다. 여기에 제시된 정책 및 서비스는 각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것들로 이 중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쉼터 서비스는 위기청소년 등을 중심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및 서비스이다. 이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정책에 따라 83%~96%의 인지율을 보였다. 인지도가 높은 만큼 제공(안내)률도 높아 각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기관 중 해당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책에 따라 62%~87%의 제공(안내)률을 보였다. 이 중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72%)과 청소년쉼터(62%)에 대한 안내 및 제공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다소 낮았다.

한편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특성화 및 대안학교, 숲체험 캠프(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청소년들의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제도 및 서비스들이다. 이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 역시 숲체험 캠프(24%)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정책에 따라 81%~97%의 인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인지한 이들의 제공(안내)률은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94.5%로 제공(안내)률이 가장 높았으며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대한 제공(안내)률(60.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대한 제공 및 안내율이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 성인들이 많이 등록하고 주말에 등교가 이루어지는 등 통신학교의 특성이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번 애들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기관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난 친구들은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의 좋은 자원과 연결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아이들을 만나야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 되게 많이 힘들고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 오는 아이들은 둘이 같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3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진짜 소위 사회성이 좋은 애들(웃음), 되게 상처들이 많고, (중략) 처음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표 V-23

부처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제공(안내) 여부

(단위: 명, %)

구분	대도시(N=54)		중소도시(N=75)		농산어촌(N=42)		전체(N=171)	
	안다	제공 한다	안다	제공 한다	안다	제공 한다	안다	제공 한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45 (83.3)	34 (75.6)	64 (85.3)	47 (73.4)	34 (81.0)	23 (67.6)	143 (83.6)	104 (72.7)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대상)	50 (92.6)	40 (80.0)	73 (97.3)	63 (86.3)	41 (97.6)	34 (82.9)	164 (95.9)	137 (83.5)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49 (90.7)	42 (85.7)	69 (92.0)	60 (87.0)	41 (97.6)	36 (87.8)	159 (93.0)	138 (86.8)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위험군 위기 청소년 대상)	49 (90.7)	38 (77.6)	73 (97.3)	65 (89.0)	39 (92.9)	28 (71.8)	161 (94.2)	131 (81.4)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 대상)	49 (90.7)	32 (65.3)	72 (96.0)	47 (65.3)	38 (90.5)	20 (52.6)	159 (93.0)	99 (62.3)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45 (83.3)	23 (51.1)	64 (85.3)	44 (68.8)	31 (73.8)	18 (58.1)	140 (81.9)	85 (60.7)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51 (94.4)	47 (92.2)	73 (97.3)	70 (95.9)	41 (97.6)	39 (95.1)	165 (96.5)	156 (94.5)
특성화 및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48 (88.9)	36 (75.0)	68 (90.7)	53 (77.9)	38 (90.5)	23 (60.5)	154 (90.1)	112 (72.7)
숲체험 캠프: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위기 청소년 대상)	10 (18.5)	3 (30.0)	21 (28.0)	6 (28.6)	10 (23.8)	3 (30.0)	41 (24.0)	12 (29.3)
취업사관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31 (57.4)	16 (51.6)	52 (69.3)	32 (61.5)	21 (50.0)	11 (52.4)	104 (60.8)	59 (56.7)
취업성공패키지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대상)	50 (92.6)	40 (80.0)	71 (94.7)	56 (78.9)	35 (83.3)	20 (57.1)	156 (91.2)	116 (74.4)
취업청년인턴제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대상)	38 (70.4)	24 (63.2)	56 (74.7)	27 (48.2)	30 (71.4)	11 (36.7)	124 (72.5)	62 (50.0)
자립생활관 (소년범 및 비행/위기, 시설퇴소 청소년)	35 (64.8)	13 (37.1)	34 (45.3)	14 (41.2)	20 (47.6)	4 (20.0)	89 (52.0)	31 (34.8)
창업보육사업 (소년범 및 비행/위기 청소년 대상)	10 (18.5)	5 (50.0)	16 (21.3)	3 (18.8)	8 (19.0)	3 (37.5)	34 (19.9)	11 (32.4)
사회정착지원센터 (소년범 및 비행/위기 청소년 대상)	10 (18.5)	3 (30.0)	20 (26.7)	4 (20.0)	12 (28.6)	3 (25.0)	42 (24.6)	10 (23.8)
청소년자활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30 (55.6)	16 (53.3)	33 (44.0)	15 (45.5)	24 (57.1)	8 (33.3)	87 (50.9)	39 (44.8)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 청소년 지원)	30 (55.6)	4 (13.3)	31 (41.3)	6 (19.4)	20 (47.6)	1 (5.0)	81 (47.4)	11 (13.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 청소년 지원)	30 (55.6)	3 (10.0)	34 (45.3)	6 (17.6)	23 (54.8)	1 (4.3)	87 (50.9)	10 (11.5)

“우리아이들이 방송통신중고교도 좀 해봤는데 아이들이 못해요. (검정고시는) 시험 한 번 치면 되는데 여긴 학교를 주말마다 가야되는데 우리 아이들 주말에 얼마나 바쁜데(웃음)…”

“주말마다 가고 방송통신학교 가면 전부 다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방송통신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그게 있고,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검정고시는) 1년이면 끝나는데, 4월, 8월이면 끝나는데, 만약에 애가 18살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3년을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비효율적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요. 방송통신학교 간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면 진짜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2년, 3년을 해도. 그런 애들은 검정고시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래도 방송통신학교 가면 출석만 하면 졸업은 돼요. 어떤 애들은 성실하기는 한데 시험만 봤다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센터에도 매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딱 나이가 되면 방송통신학교를 가게 (해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는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청년인턴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보다는 취업으로 진로를 정한 이들에게 적합한 정책 및 서비스이다.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정책에 따라 60%~92%의 인지율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여가부나 교육부의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74.4%인데 비해 취업사관학교와 취업청년인턴제는 각각 56.7%와 50%로 그 비율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은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출석률이 중시되는데 적극성과 성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향 상 기숙형 기관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입소를 하게 되더라도 기숙형 기관의 특성 상 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취업사관학교 같은 데를 연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꿈드림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의 큰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관리란 말이죠. 애네들이 어쨌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먼저 다독여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3개월은 걸린단 말이죠. 다독이면서 욕구를 파악하는데 3개월이 걸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 더 이상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숙박형, 기숙형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애는 딱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데에서는 심리적으로 케어를 못 받더라고요. 겨우 어떻게 좀 해보겠다했던 아이들이 가면 되 돌아오는 애도 있지만 간다하더라도 케어가 안 되고 우리하고는 분리가 되다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어요. (중략) (기숙형 시설로 들어가면) 우리와 단절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서 막 마음고생하고 나중에 다시 와요. 그럼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가지) 상처로 학교 밖으로 나온 애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3명에서 그룹하는 건 사회성이 좋은 애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텃밭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직업체험 참여하는 애들은 정말 ‘엘리트 같은 친구들’ 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인데 외부의 좋은 자원들을 연결하려면 이런 친구들도 1년 정도 가서 많은 성취감을 느낀 후에 가야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관들은 되게 많은 성실성을 요구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다른 건 다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취업사관학교는 배울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고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벗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위에 친구, 가족이 없고 혼자 한다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취업훈련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자들이 제기한 의견으로는 성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과 청소년들의 취업 및 자립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취업 관련한 거는 (중략) (청소년 전용 취업훈련)학교 자체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상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정화시키는 거죠. 몇 기수 때에는 청소년들만 들어올 수 있게. 그걸 정례화 시켜 달라. 그러면 지역별로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선례적으로 모범 사례로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보완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애길 했었어요.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 애들이 면접을 한 번 해보려고 해도 어른들 차례 기다리다가 못한다 이거예요. (중략) 또 우리 아이들 특성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장기프로그램을 잘 못한다든가 또 이런 걸 진행하면서도 계속 옆에서 지지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지역할을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못해주는 거죠. 애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얘기 나올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하면 나이가 다르

니가 좋은 점도 있더라.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갔는데 엄마뻘 언니뻘인 사람도 만나서 좋더라 라고 하는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청소년인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상설해놓으시면 저희들도 연계하기도 좋을 것 같고….”

“취업성공패키지나 사관학교는 6개월, 1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들이 이걸 또 버티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 전용 직업학교를 만들면 좋겠다. 노동부하고 여가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취업문제나 사회진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반 청소년들은 스물일곱 스물여덟 돼야 비로소 사회진출을 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해서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된다고 실적을 내야 된다고 우리가 강제로 밀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아이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하지만 그 준비기간이 더 길어야 된다고 보는데,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100의 1, 2명이 정말 자기들이 취업해서 뭔가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하는 애들이 그냥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가서 하자 하면 6개월 뭐 이렇잖아요. 그 마음을 먹은 애들도 실제로 그걸 다 마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성실한 친구도. (중략) 취업에 대한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진중하게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아이들이 스스로, 정말 아이들이 스물 하나만 되도 군대갔다오면 스스로 찾아와요.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중략) 그런 친구들에게는 정말 기회를 주고 이제 막 검정고시 합격한 아이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어디 가봐야지’ 그러면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와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꿈드림센터가 (중략) 취업에 대한 문제는 좀 더디 갔으면 좋겠고 실적도 얼마 올려야된다는 제한을 두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낮게 잡고 고민해야 될 문제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법무부에서는 소년범 및 비행·위기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자립생활관, 창업보육사업, 사회정착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정책에 따라 19%~52%로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도 낮아 정책 및 서비스에 따라 23%~35%의 제공(안내)률을 보였다. 제공(안내)률이 낮은 것은 낮은 인지율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지원대상자가 소년범 및 비행 청소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경찰서 등 법원이나 법무부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오는 소년범 및 비행 청소년들이 10%이상 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경우에 따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종사자들의 인지율은 50.9%,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은 44.8%이다. 이러한 비율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가 모두 여성가족부로 이전 중이고 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 대상 상담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이 변화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처럼 사업의 성격이 변화되거나 혹은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관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의 변화 여부에 좀 더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종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사업 중 일부이지만 지원 대상이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다. 이 사업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각각 47.4%와 50.9%,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은 각각 13.6%와 11.5%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청소년들의 중단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북한이탈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7.5%로 전체 고등학생 1.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 5. 12). 또한 2015년 다문화 학생 중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1.01%로 일반 학생의 학업중단율(2014년 기준 0.83%)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동아일보, 2015.1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실정이다.

“다문화나 북한이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적 특색이 좀 강해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문화가 많은 지역임에도 저희 쪽으로 연계비율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기관도 가고 다문화 학교도 가고 북한이탈 새터민 학교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접촉을 하는데 사실 개별 말고 기관을 접촉하고 싶는데 사실은 되게 좀 어려워요. 기관에서 오픈하는 게 되게 어렵고, 북한이탈 청소년 경우에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접촉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저희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은 기관이나 프로그램으로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문화 친구 중에는 집단으로 만난 친구는 한 명 정도 있었고 개별로 지원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YWCA에서 다문화 가정을 하고 있고, 민간 NGO에서 다

문화 상담이나 학습지원을 하고 있어요. 주로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쪽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센터라는 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심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향후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은 지원센터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센터 내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숙지와 제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제공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사자들은 잦은 이직으로 인해 현장에서 관련 정보 및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이에 현장전문가로 거듭나기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숙달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종사자들에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밖’은 인력에 대한 지속성인데 취업사관학교든 취업성 공패키지든 대학입학이든 담당자가 아는 게 맞는데 알만하면 퇴사하시거든요, 지치셔 가지고. 그럼 기관에서는 다시 교육시켜야 되고, 시도도 일 년 내내 교육시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진짜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에 대한, 시군구는 특히 인력을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 분을 성장시켜서 노하우까지 다 알게 되시면 퇴사하시니까 사실은 시군구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시급한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지역은 대입설명회를 했어요. 애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담당자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담당자들이 새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정고시하고 지금 대입 수시 철이에요.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중략)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관련된 부분, 학교 체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 선생님들에게 먼저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종사자 대상 교육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한 번의 교육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더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최신 정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쨌든 (지원정책 관련) 그런 정보들을 정리해가지고 제공할 필요는 있겠네요.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지 여기 가면 뭘 하고, 예를 들면 폴리텍 대학을 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사실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리해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담당자들의 인식의 부재인 것 같아요. 모르니까, 몰라서 못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담당자들이 다 신규예요, 신규센터이고. (중략) 솔직히 실무직원 입문과정이라고 E시에서 교육을 한 번 했거든요. 시도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시도센터가 시군구센터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과정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 파트여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시도센터나 시군구센터 직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할당량 예산 인건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교육으로 선생님들에게 인식을 딱 박히게 해 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중략) 이거 교육은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허술하게 했죠.”

“사실 실제로는 충실하게 했을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센터장으로 처음 와 가지고 상담복지센터에 딱 왔을 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도 내가 이걸 습득하고 내 머릿속에서 이걸 조율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들어온 지 6개월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이거 취업지원방안이야 하고 아냐? 그러면 모른다 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뉴얼집이 있으면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국정사업이다 보니까 매뉴얼집을 좀 만들어서 저희 쪽으로 주면 저희가 어차피 사람이 그만두더라도 계속 취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⑧ 지원 서비스의 제공 정도

기관 내에서 지난 일 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표 V-24>와 같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모두 158개 기관(92.4%)이었으며 전체 이용자 수는 6,295명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적성검사나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실시 서비스(136개

표 V-24

최근 일 년 간 제공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대도시(N=54)		중소도시(N=75)		농산어촌(N=42)		전체(N=171)	
	제공 한다	이용자 수	제공 한다	이용자 수	제공 한다	이용자 수	제공 한다	이용자 수
학업중단 숙려상담	40 (74.1)	504	61 (81.3)	847	36 (85.7)	118	137 (80.1)	1,703
생활 및 지원정책 관련정보 제공 (복학절차, 취업 정보 등)	44 (81.5)	664	66 (88.0)	1,854	36 (85.7)	243	146 (85.4)	3,009
교육지원 (복교,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지원)	50 (92.6)	889	71 (94.7)	1,821	40 (95.2)	516	161 (94.2)	3,498
직업 및 취업지원 (직업 훈련, 진로교육활동, 취업 지원 등)	45 (83.3)	494	67 (89.3)	1,547	35 (83.3)	549	147 (86.0)	2,839
경제적 지원 (자립정착금, 급식비, 학원비, 주거비 등)	36 (66.7)	647	49 (65.3)	565	24 (57.1)	110	109 (63.7)	1,504
각종 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등)	41 (75.9)	1,716	63 (84.0)	2,076	32 (76.2)	622	136 (79.5)	4,645
상담 및 정서지원 (멘토링 포함)	49 (90.7)	1,991	70 (93.3)	2,809	39 (92.9)	1,228	158 (92.4)	6,295
의료·건강지원 (건강진단 포함)	37 (68.5)	131	46 (61.3)	272	29 (69.0)	50	112 (65.5)	640
법률지원	30 (55.6)	12	29 (38.7)	76	23 (54.8)	7	82 (48.0)	229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	42 (77.8)	660	57 (76.0)	1,452	33 (78.6)	358	132 (77.2)	2,692
가족 및 부모교육지원	30 (55.6)	364	40 (53.3)	361	27 (64.3)	149	97 (56.7)	1,038
기타	6 (11.1)	93	5 (6.7)	16	3 (7.1)	20	14 (8.2)	151

기관(79.5%) 제공, 4,645명 이용), 교육지원(161개 기관(94.2%) 제공, 3,498명 이용), 생활 및 지원정책 관련 정보 제공(146개 기관(85.4%) 제공, 3,009명 이용) 순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가장 적게 이용하는 서비스는 법률지원 서비스로 82개 기관(48%)이 제공하고 229명이 이용하였다. 한편 학업중단 숙려상담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총 137개 기관(80.1%)이나 이용자수는 총 1,703명으로 지원 기관 수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수 및 이용자 수를 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전체 순위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단 농산어촌의 경우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달리 직업 및 취업지원의 순위가 세 번째로 높았던 반면 타 지역에서 4순위 안에 드는 생활 및 지원정책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는

6순위로 밀려났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⑨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정도는 <표 V-25>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제시된 지원들이 모두 필요한 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간혹 불필요한 지원이라는 의견도 소수 있었으나 매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지역에

표 V-25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표준편차)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대도시		13(24.5)	40(75.5)	53(100.0)	3.75(.434)
	중소도시		11(14.7)	64(85.3)	75(100.0)	3.85(.356)
	농산어촌		4(9.5)	38(90.5)	42(100.0)	3.90(.297)
	전체		28(16.5)	142(83.5)	170(100.0)	3.84(.372)
각종 검사 지원	대도시	2(3.8)	31(58.5)	20(37.7)	53(100.0)	3.34(.553)
	중소도시	1(1.3)	33(44.0)	41(54.7)	75(100.0)	3.53(.528)
	농산어촌	1(2.4)	15(36.6)	25(61.0)	41(100.0)	3.59(.547)
	전체	4(2.4)	79(46.7)	86(50.9)	169(100.0)	3.49(.547)
학업지원	대도시		4(7.5)	49(92.5)	53(100.0)	3.92(.267)
	중소도시		7(9.3)	68(90.7)	75(100.0)	3.91(.293)
	농산어촌		5(11.9)	37(88.1)	42(100.0)	3.88(.328)
	전체		16(9.4)	154(90.6)	170(100.0)	3.91(.293)
법률지원	대도시	3(5.7)	37(69.8)	13(24.5)	53(100.0)	3.19(.521)
	중소도시	2(2.7)	46(61.3)	27(36.0)	75(100.0)	3.33(.528)
	농산어촌		26(63.4)	15(36.6)	41(100.0)	3.37(.488)
	전체	5(3.0)	109(64.5)	55(32.5)	169(100.0)	3.30(.519)
의료·건강 지원	대도시	1(1.9)	22(41.5)	30(56.6)	53(100.0)	3.55(.539)
	중소도시	2(2.7)	32(42.7)	41(54.7)	75(100.0)	3.52(.554)
	농산어촌		19(45.2)	23(54.8)	42(100.0)	3.55(.504)
	전체	3(1.8)	73(42.9)	94(55.3)	170(100.0)	3.54(.535)
경제적 지원	대도시	1(1.9)	19(35.8)	33(62.3)	53(100.0)	3.60(.531)
	중소도시	3(4.0)	22(29.3)	50(66.7)	75(100.0)	3.63(.564)
	농산어촌		16(38.1)	26(61.9)	42(100.0)	3.62(.492)
	전체	4(2.4)	57(33.5)	109(64.1)	170(100.0)	3.62(.534)
취업지원	대도시		5(9.4)	48(90.6)	53(100.0)	3.91(.295)
	중소도시		8(10.7)	67(89.3)	75(100.0)	3.89(.311)
	농산어촌		6(14.3)	36(85.7)	42(100.0)	3.86(.354)
	전체		19(11.2)	151(88.8)	170(100.0)	3.89(.316)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표준편차)
가족 및 부모교육 지원	대도시		26(49.1)	27(50.9)	53(100.0)	3.51(.505)
	중소도시		38(50.7)	37(49.3)	75(100.0)	3.49(.503)
	농산어촌	3(7.1)	18(42.9)	21(50.0)	42(100.0)	3.43(.630)
	전체	3(1.8)	82(48.2)	85(50.0)	170(100.0)	3.48(.53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대도시	3(5.7)	24(45.3)	26(49.1)	53(100.0)	3.43(.605)
	중소도시	3(4.1)	28(37.8)	43(58.1)	74(100.0)	3.54(.578)
	농산어촌	1(2.4)	18(42.9)	23(54.8)	42(100.0)	3.52(.552)
	전체	7(4.1)	70(41.4)	92(54.4)	169(100.0)	3.50(.579)
생활 및 정책 관련 정보 제공	대도시	1(1.9)	28(52.8)	24(45.3)	53(100.0)	3.43(.537)
	중소도시		42(56.0)	33(44.0)	75(100.0)	3.44(.500)
	농산어촌	1(2.4)	20(47.6)	21(50.0)	42(100.0)	3.48(.552)
	전체	2(1.2)	90(52.9)	78(45.9)	170(100.0)	3.45(.52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대도시	1(2.0)	7(13.7)	43(84.3)	51(100.0)	3.82(.434)
	중소도시		9(12.2)	65(87.8)	74(100.0)	3.88(.329)
	농산어촌		5(11.9)	37(88.1)	42(100.0)	3.88(.328)
	전체	1(0.6)	21(12.6)	145(86.8)	167(100.0)	3.86(.363)
대학진학 지원	대도시	5(9.6)	27(51.9)	20(38.5)	52(100.0)	3.29(.637)
	중소도시	3(4.0)	38(50.7)	34(45.3)	75(100.0)	3.41(.572)
	농산어촌	1(2.5)	20(50.0)	19(47.5)	40(100.0)	3.45(.552)
	전체	9(5.4)	85(50.9)	73(43.7)	167(100.0)	3.38(.588)
기타	대도시		2(50.0)	2(50.0)	4(100.0)	3.50(.577)
	중소도시	1(9.1)	2(18.2)	8(72.7)	11(100.0)	3.64(.674)
	농산어촌		1(25.0)	3(75.0)	4(100.0)	3.75(.500)
	전체	1(5.3)	5(26.3)	13(68.4)	19(100.0)	3.63(.597)

구분 없이 평균점수로 살펴봤을 때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역시 학업지원(3.91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지원(3.89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3.86점),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3.8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순위가 다소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모든 지역에서 학업지원, 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심리 상담 및 정서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지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사자 간담회에서는 건강관련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 중 건강검진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수혜인원이 1,500명으로 그 규모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이 흡연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비흡연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업인 금연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진행된 금연 관련 건강검진과 혼동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모든 중고등학생에게는 학교를 통해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금연 관련 건강검진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검진에 준하는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 안 돼요. 안 되고, 그것도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담배 팔아가지고 돈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금연교육 내지는 흡연청소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여서 지금 J시 같은 경우에는 K대 의대 쪽으로 건강검진을 갔는데, 원래는 학교 밖 청소년 다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흡연자에 한해서 해야지 자기네들이 감사에서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학교 밖 아이들이 다 담배 피우지는 안거든요. (대상자가) 확 주는 거예요. 올해는 그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 여가부에서 보건복지부랑 해서 건강의료공단 쪽하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 2년에 한 번 씩 건강검진 하듯이 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하는 거, 그게 내년에 풀릴 것 같아요.”

“정신건강협의센터랑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보건소에서 금연 권고하면서 금연을 실행해서 성공하는 애들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가 돼서 그럼 그러지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검진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미 예산 다 쓰고, 보건소에서는 애네한테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줄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건강검진 받게 하기 위해) 애들한테 담배를 핀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또한 건강 검진 이외에 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일반진료 및 질병치료 등에 대해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건강검진 뿐 아니라 진료 및 치료와 관련한 실제적인 혜택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애들이 집 나와서 제대로 치아관리 안하고 담배피우고 술 먹고 하다보니까 망가지잖아요. 치과검진은 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검진까지만요. 검진해서 무슨 병이 있다 (해도), (후속적 치료와 같은) 애프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는 특별 지원예산을 말씀하시는데 특별지원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케이스를 보니까 정말 집에 아무 돈이 없는데 차가 한 대있고 허름한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다 빠져요. 결국은 치료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방법을 잘 못 찾고 계시더라고요.”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은 교통비 지급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청소년 발골 차원에서도 고려해볼만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K도 교육청인가에서는 애들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게 있대요. 만원인가, 십 만원인가 한도 내에서 K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래요. 그래서 먹을 수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 위생용품 살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중략) 만약에 그거를 추진한다면 아마 학교 밖 청소년 발골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센터에 와서 청소년증 만들어서 센터에 등록을 하면 매달 충전해준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찾아올 것 아니에요. 국가정책으로 진행을 하면 계산해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또한 현장 종사자들은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문제 이전에 가정이나 경제적 형편,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생활태도 및 동기 등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학업 복귀나 취업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애네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찾아주고 상대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꿈드림 지원센터에 와서 같이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학교 밖 애들이 1차 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2차 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갔다. 좀 장기성을 가지고 가야지 건수 위주로 가다보면, 우리가 평가부분에서도 양적 평가도 필요하지만 질적 평가, 특히 학교 밖 문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하면 사례 건 건으로 일으켜서 숫자를 부풀리는 평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또 프로그램도 무슨 프로그램에 몇 명, 두드림에 몇 명,

해밀에 몇 명, 몇 회 했고, 이렇게만 평가가 되어간다면 진짜 학교 밖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본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조금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⑩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간

한편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용공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는 <표 V-26>과 <표 V-27>에 제시되었다. 종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을 순위별로 3가지만 기입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종사자 163명 중 41명(25.3%)이 교육 및 활동실을 가장 필요한 공간 1순위로 언급함으로써 교육 및 활동실이 가장 필요한 공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공간 1순위로 언급된 것은 휴게 공간(21.6%), 자율학습실(19.1%)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공간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공간 역시 교육 및 활동실(16.6%)이었으며, 휴게 공간(16%)이 그 뒤를 이었다. 3순위에서는 휴게 공간(17.2%)을 언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 및 활동실(16%)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경우는 역시 교육 및 활동실(57.7%)이었으며, 그 다음이 휴게 공간(54.6%), 자율학습실(36.2%) 순이었다. 그 외에 직업체험실(35.6%)과 상담실(34.4%)도 필요 정도에 있어서 자율학습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회피하거나 이들과 갈등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적인

표 V-26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전용공간(1, 2, 3순위)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전체	교육 및 활동실	교육 및 활동실	휴게 공간	자율학습실, 휴게 공간, 교육 및 활동실
대도시	자율학습실, 휴게 공간	정보검색실, 동아리 활동실, 교육 및 활동실	휴게 공간, 교육 및 활동실	자율학습실, 휴게 공간, 교육 및 활동실
중소도시	교육 및 활동실	교육 및 활동실	휴게 공간	직업 체험실, 휴게 공간, 교육 및 활동실
농산어촌	교육 및 활동실	상담실	휴게 공간	휴게 공간, 상담실, 교육 및 활동실

표 V-27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전용공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N
자율학습실	대도시	14(30.4)	6(13.0)	6(13.0)	26(56.5)	46
	중소도시	10(13.5)	5(6.7)	7(9.3)	22(29.3)	75
	농산어촌	7(16.7)	3(7.1)	1(2.4)	11(26.2)	42
	전체	31(19.1)	14(8.6)	14(8.6)	59(36.2)	163
정보검색실	대도시	3(6.5)	7(15.2)	4(8.7)	14(30.4)	46
	중소도시	1(1.4)	8(10.7)	8(10.7)	17(22.7)	75
	농산어촌	4(9.5)	6(14.3)	5(11.9)	15(35.7)	42
	전체	8(4.9)	21(12.9)	17(10.4)	46(28.2)	163
직업체험실	대도시	6(13.0)	4(8.7)	5(10.9)	15(32.6)	46
	중소도시	6(8.1)	12(16.0)	10(13.3)	30(40.0)	75
	농산어촌	6(14.3)	4(9.5)	5(11.9)	15(35.7)	42
	전체	18(11.1)	20(12.3)	20(12.3)	58(35.6)	163
동아리 활동실	대도시	1(2.2)	7(15.2)	6(13.0)	14(30.4)	46
	중소도시	5(6.8)	5(6.7)	7(9.3)	17(22.7)	75
	농산어촌	0(0.0)	5(11.9)	4(9.5)	9(21.4)	42
	전체	6(3.7)	17(10.4)	17(10.4)	40(24.5)	163
운동 및 체력 단련실	대도시	0(0.0)	6(13.0)	5(10.9)	11(23.9)	46
	중소도시	2(2.7)	6(8.0)	10(13.3)	18(24.0)	75
	농산어촌	1(2.4)	2(4.8)	5(11.9)	8(19.0)	42
	전체	3(1.9)	14(8.6)	20(12.3)	37(22.7)	163
휴게 공간	대도시	14(30.4)	7(15.2)	5(10.9)	26(56.5)	46
	중소도시	13(17.6)	13(17.3)	15(20.0)	41(54.7)	75
	농산어촌	8(19.0)	6(14.3)	8(19.0)	22(52.4)	42
	전체	35(21.6)	26(16.0)	28(17.2)	89(54.6)	163
상담실	대도시	3(6.5)	2(4.3)	5(10.9)	10(21.7)	46
	중소도시	13(17.6)	11(14.7)	2(2.7)	26(34.7)	75
	농산어촌	4(9.5)	9(21.4)	7(16.7)	20(47.6)	42
	전체	20(12.3)	22(13.5)	14(8.6)	56(34.4)	163
교육 및 활동실	대도시	5(10.9)	7(15.2)	9(19.6)	21(45.7)	46
	중소도시	24(32.4)	14(18.7)	11(14.7)	49(65.3)	75
	농산어촌	12(28.6)	6(14.3)	6(14.3)	24(57.1)	42
	전체	41(25.3)	27(16.6)	26(16.0)	94(57.7)	163
보건실	대도시	—	0(0.0)	0(0.0)	0(0.0)	46
	중소도시	—	1(1.3)	3(4.0)	4(5.3)	75
	농산어촌	—	0(0.0)	1(2.4)	1(2.4)	42
	전체	—	1(0.6)	4(2.5)	5(3.1)	163
기타	대도시	—	0(0.0)	1(2.2)	1(2.2)	46
	중소도시	—	0(0.0)	2(2.7)	2(2.7)	75
	농산어촌	—	1(2.4)	0(0.0)	1(2.4)	42
	전체	—	1(0.6)	3(1.8)	4(2.5)	163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공간의 허용은 이들로 하여금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원센터 내 활동에 좀 더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견지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짐작된다.

“아르콘⁶⁵⁾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원인을 봤을 때는,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끼리 뭔가를 하면 그래도 좀 해요. 근데 취업성공패키지든 뭐든 학교 밖 아이들을 그렇게 다 배려하거나 고려해주는 환경이 아니다보니까 애들이 거기 가서 굉장히 위축감을 경험하고 그런데, (아르콘은) 애네들의 특성을 가지고 애네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애들이 거기에서는 내가 다른 색깔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니까.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관계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네들만을 위한 공간, 애네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있으면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감을 많이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애들한테 소속감 자체가 없단 말예요. 근데 애네들만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소속감에도 기여를 할 수 있죠. (중략)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선생님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고 오게 되는 동기를 마련하기보다는 이제는 ‘친구들끼리 좀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아이들끼리 모여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북적북적 대는 것처럼, 그런 공간의 의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도 친구가 없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휴대폰만 가지고 노는데 여기 오면 대화가 되니까, 프로그램이 1시부터면 11시부터 와있어요. 점심도 주고. 또 여기 와있으면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든 상담을 하든 대화상대가 되고 친구들이 와서 어울릴 수 있고 선생님이 가라고 해도 안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정말 다른 사람 눈치 안보고 누워서 졸리면 자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65)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롯데면세점과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아르콘)의 연계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종합 취업교육 프로그램이다.

⑪ 기관의 위치 및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평가

기관의 위치 및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평가를 보면(<표 V-28>), 전반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에 좀 더 가까운 반면 시설 및 공간의 충분성이나 기자재 및 도구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에 좀 더 가깝게 나타났다. 우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10명 중 8명 이상의 종사자가 센터의 접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즉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감소하였는데 중소도시의 경우는 40%, 농산어촌의 경우는 38.1%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8%, 농산어촌의 9.5%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일부 기관의 경우 접근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군 단위 기관의 종사자들이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군 단위 기관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의 편리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기관을 재배치하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군 단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통의 불편함에 센터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지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지원을 할 경우 하루 두 시간을 한 지도가

표 V-28 **기관의 위치 및 시설 수준** (단위: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N	평균(표준편차)
시설에 대한 접근성	대도시	3(5.6)	7(13.0)	26(48.1)	18(33.3)	54(100.0)	3.09(.830)
	중소도시	6(8.0)	24(32.0)	29(38.7)	16(21.3)	75(100.0)	2.73(.890)
	농산어촌	4(9.5)	12(28.6)	18(42.9)	8(19.0)	42(100.0)	2.71(.891)
	전체	13(7.6)	43(25.1)	73(42.7)	42(24.6)	171(100.0)	2.84(.884)
충분한 시설 및 공간	대도시	5(9.3)	23(42.6)	22(40.7)	4(7.4)	54(100.0)	2.46(.770)
	중소도시	15(20.0)	29(38.7)	24(32.0)	7(9.3)	75(100.0)	2.31(.900)
	농산어촌	5(11.9)	18(42.9)	16(38.1)	3(7.1)	42(100.0)	2.40(.798)
	전체	25(14.6)	70(40.9)	62(36.3)	14(8.2)	171(100.0)	2.38(.834)
충분한 기자재 및 도구	대도시	3(5.6)	19(35.2)	29(53.7)	3(5.6)	54(100.0)	2.59(.687)
	중소도시	12(16.0)	30(40.0)	27(36.0)	6(8.0)	75(100.0)	2.36(.849)
	농산어촌	6(14.3)	22(52.4)	12(28.6)	2(4.8)	42(100.0)	2.24(.759)
	전체	21(12.3)	71(41.5)	68(39.8)	11(6.4)	171(100.0)	2.40(.786)

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가 L시의 케이스를 하나 들었는데, 자기 집에서 나와 가지고 센터로 오는데 그 다음 차와의 배차시간 간격이 1시간 반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집에서 나와서, 짧게 (버스를) 10분인가 타고 나와서 그 다음차를 타야 되는데 1시간 반 차이인 거예요. 기다렸다가, 정말 열성이 뻗친 것도 아니고, 이 차를 타고 40분 인가를 또 와야 된대요. 자가용으로 따지면 40분이면 충분히 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3시간, 4시간이 되는 거죠. (중략) 쉽지 않죠.”

“저희가 이전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전의 가장 큰 요인이 그거였어요. (중략) (예전의 기관이 있던 자리가) D시의 끄트머리 쪽이다 보니까 버스라인도 별로 없고 많이 다니지도 않고... (중략) 아이들이 거의 안 왔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거의 내 업무하면 되는 시간 정도로. 근데 이전을 딱 하고 나니까 지나가다가도 ‘놀러왔어요’ 하고 들르고 엄청나게 횡수도 증가한 부분도 많아요. 10배 이상 될 걸요.”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종사자들이) 개인 자차로 아이들을 태워서 동네를 도세요. 그 대신 월급에 유류비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톡도 없는 유류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돌고 애들을 스마트교실에 데려다 놓고, 끝나면 다시 데려다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구요, M군 같은 경우에는 I시가 N도의 노른자라면 M군이 I시를 둘러싸고 있어요, 지형적으로. 애들도 없는데 너무 넓고 자차가 없으면 상담하러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 회의 그런데 참석하셔서 가지고 애들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차편이 없기 때문에 상담자 자차로 애들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청소년 동반자 역할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년활동을 위한 기관 내 시설이나 공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종사자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전혀 아니다 14.6%, 아닌 편이다 40.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그런 편이다 36.3%, 매우 그렇다 8.2%)보다 많았다. 4점 척도(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이 항목의 점수 평균을 내 본 결과 2.38(표준편차 .834)점으로 부정적인 경향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응답 경향은 중소도시(2.31점)가 대도시(2.46점)나 농산어촌(2.40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서술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고려해 볼 때 기관 내 공간확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기관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 의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 내 일부분에 공간을 확보하여 개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공간의

부족을 언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각 기관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 이상의 공간 확보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활동시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나 도구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종사자들의 전체적인 응답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전혀 아니다 12.3%, 아닌 편이다 4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그런 편이다 39.8%, 매우 그렇다 6.4%)보다 많았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경향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도시(2.59점)보다는 중도도시(2.36점)에서 더 높았으며 농산어촌(2.24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보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더 많았으나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이는 앞서 예산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운영 초기단계에서 관리운영비 사용의 불가라는 지침과도 연결된다.

“관리 운영비 자체 예산이 없어서 냉난방시설 이용조차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 센터 내 기관 차량이 한 대도 없어 프로그램 운영을 직원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어요.”

“기존에 두드림 해밀 했는데 기자재가 왜 필요하냐고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종사자의) 개인 노트북으로 동영상 강의 들어 주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쓰는 컴퓨터가 2007년도, 2006년도 거예요. 애들이 하다보면 성질내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컴퓨터로 서류 작성해라, 동영상 봐라 하면 막 성질내는 애들도 있고. 모든 기물들이 그런 정도예요. 복사기 고장 나서 못 고치니까 대여해서 쓰고 그것도 또 돈 나가는 거고…”

⑫ 지원단계에서의 기관 간 연계상황

청소년들이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정도를 3점 척도(부족하다(1점) - 충분하다(3점))로 하여 그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표 V-29>),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2.61점), 경찰서(2.27점), 시·군·구청(2.21점)이었으며 그 외 기관과의 연계는 평균점이 1.51점에서 1.92점 사이에 분포하여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쉼터는, 물론 지역에 따라 연계가 잘 되는 곳도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발굴단계에서 뿐 아니라 지원단계에서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발굴경로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원센터와 쉼터 간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쉼터와 지원센터 간 역할중복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29

지원단계에서의 기관 간 연계 상황

(단위: 명, %)

구분		부족	보통	충분	N	평균(표준편차)
학교 (Wee class)	대도시	17(33.3)	25(49.0)	9(17.6)	51(100.0)	1.84(.703)
	중소도시	14(18.9)	50(67.6)	10(13.5)	74(100.0)	1.95(.571)
	농산어촌	15(35.7)	17(40.5)	10(23.8)	42(100.0)	1.88(.772)
	전체	46(27.5)	92(55.1)	29(17.4)	167(100.0)	1.90(.664)
교육청 (Wee 센터)	대도시	21(41.2)	27(52.9)	3(5.9)	51(100.0)	1.65(.594)
	중소도시	30(40.5)	33(44.6)	11(14.9)	74(100.0)	1.74(.703)
	농산어촌	18(42.9)	18(42.9)	6(14.3)	42(100.0)	1.71(.708)
	전체	69(41.3)	78(46.7)	20(12.0)	167(100.0)	1.71(.670)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 (보호관찰소 등)	대도시	19(37.3)	17(33.3)	15(29.4)	51(100.0)	1.92(.821)
	중소도시	24(32.9)	26(35.6)	23(31.5)	73(100.0)	1.99(.808)
	농산어촌	16(38.1)	19(45.2)	7(16.7)	42(100.0)	1.79(.717)
	전체	59(35.5)	62(37.3)	45(27.1)	166(100.0)	1.92(.789)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1388 포함)	대도시	5(9.8)	17(33.3)	29(56.9)	51(100.0)	2.47(.674)
	중소도시	2(2.7)	20(26.7)	53(70.7)	75(100.0)	2.68(.524)
	농산어촌	4(9.5)	6(14.3)	32(76.2)	42(100.0)	2.67(.650)
	전체	11(6.5)	43(25.6)	114(67.9)	168(100.0)	2.61(.609)
청소년 쉼터	대도시	25(50.0)	15(30.0)	10(20.0)	50(100.0)	1.70(.789)
	중소도시	38(52.1)	24(32.9)	11(15.1)	73(100.0)	1.63(.736)
	농산어촌	32(76.2)	5(11.9)	5(11.9)	42(100.0)	1.36(.692)
	전체	95(57.6)	44(26.7)	26(15.8)	165(100.0)	1.58(.750)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양육시설 등)	대도시	26(51.0)	20(39.2)	5(9.8)	51(100.0)	1.59(.669)
	중소도시	45(60.8)	19(25.7)	10(13.5)	74(100.0)	1.53(.726)
	농산어촌	27(64.3)	13(31.0)	2(4.8)	42(100.0)	1.40(.587)
	전체	98(58.7)	52(31.1)	17(10.2)	167(100.0)	1.51(.675)
청소년시설 (문화의 집, 수련관 등)	대도시	19(37.3)	15(29.4)	17(33.3)	51(100.0)	1.96(.848)
	중소도시	29(39.2)	27(36.5)	18(24.3)	74(100.0)	1.85(.788)
	농산어촌	12(28.6)	15(35.7)	15(35.7)	42(100.0)	2.07(.808)
	전체	60(35.9)	57(34.1)	50(29.9)	167(100.0)	1.94(.812)
경찰서 (파출소 등)	대도시	11(21.6)	18(35.3)	22(43.1)	51(100.0)	2.22(.783)
	중소도시	9(12.2)	37(50.0)	28(37.8)	74(100.0)	2.26(.663)
	농산어촌	6(14.3)	15(35.7)	21(50.0)	42(100.0)	2.36(.727)
	전체	26(15.6)	70(41.9)	71(42.5)	167(100.0)	2.27(.715)
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등)	대도시	25(50.0)	19(38.0)	6(12.0)	50(100.0)	1.62(.697)
	중소도시	40(54.1)	26(35.1)	8(10.8)	74(100.0)	1.57(.684)
	농산어촌	20(47.6)	19(45.2)	3(7.1)	42(100.0)	1.60(.627)
	전체	85(51.2)	64(38.6)	17(10.2)	166(100.0)	1.59(.670)

구분		부족	보통	충분	N	평균(표준편차)
시·군·구청	대도시	13(25.5)	22(43.1)	16(31.4)	51(100.0)	2.06(.759)
	중소도시	13(17.6)	36(48.6)	25(33.8)	74(100.0)	2.16(.703)
	농산어촌	4(9.5)	14(33.3)	24(57.1)	42(100.0)	2.48(.671)
	전체	30(18.0)	72(43.1)	65(38.9)	167(100.0)	2.21(.727)
복지기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대도시	20(39.2)	23(45.1)	8(15.7)	51(100.0)	1.76(.710)
	중소도시	24(32.4)	35(47.3)	15(20.3)	74(100.0)	1.88(.721)
	농산어촌	15(35.7)	18(42.9)	9(21.4)	42(100.0)	1.86(.751)
	전체	59(35.3)	76(45.5)	32(19.2)	167(100.0)	1.84(.722)

“N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따로 학업복귀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OO회사에서 3년 동안 1억 원을 지원하는 게 있는 데 저희보다 지원이 뽕뽕하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거기서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있을 때…”

또한 학교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연계정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소년 발굴단계에서 학교나 교육청을 통하는 경우가 18%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기관의 연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기관 간 연계는 담당자들의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지원센터가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자 개인의 인간관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의 연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서로 동일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적경쟁을 하는 것이나 우리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컴퓨터나 학교나 이게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게 그 컴퓨터만의 특성, 그 담당 선생님의 특성, 학교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위클래스 선생님하고 우리 담당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잘 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구요.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저희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잘 되고 있어요. (중략) 학교도 위클래스하고 학업중단수려제나 이런 것도 보면 저희 담당학교가 관내에 50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보내는 학교도 있는가하면 아예 안 보내는 학교도 있는 거죠. 자체 내에서 한다고. 근데 (학교에) 가보면 애들은 넘쳐나는데 학교 자체에서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 자체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학교

의 푹토더라고요.”

“이게 경쟁상태가 되면 안 되고, 서로 윈윈해서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아이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데하고는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또한 지원대상자와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는 각 기관 간 역할을 좀 더 명확히 분담함으로써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간 연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마다 실적 올리기를 위한 것이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된다. 이에 한 종사자는 청소년이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받든 지역 내 청소년이라면 기관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로 조금 바람이 다른 것 같아요. 쉼터에서 꿈드림에 기대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거기서도, 쉼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래되고 잘되는 데는 그 안에 아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해도와 좀 차이가 있는 외부기관에서 또 들어와서 우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이해도도 그렇고, 아무래도 법에 근거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공식적인 센터가 생기니까 여러 관리하는 기관들이 기대하는 바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바와 그 쪽 기대하는 바가 참 다른 게... (중략) 꿈드림은 자체적으로 다 완전히 안 샀는데 주변에서 요청은 많고 자꾸 위에서는 협조는 하라고 하는데 협조의 방향이 다른 거죠. 경찰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랑 경찰이랑 다 했는데 그게 협업이 되면서 오히려 되게 힘들었던 게 경찰서에서 무지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왜 오냐 하면 아이들 좀 보내달라고.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요? 경찰서로?) 네, 왜냐하면 경찰들도 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 밖 아이들 발굴하고 개네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연계부분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만약에 법무부 에스센터나 노동부나, 할 수 있으면 연계망을 정말 많이 가져서 꿈드림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실적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 안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은 전부 우리 아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고요. 그럼 그 아이들의 서비스는 어디에서 받든 좀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접근이 달라질 것 같고요.”

⑬ 업무체계화 정도

기관 내 업무체계화 정도와 관련하여 4점 척도(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를 바탕으로 산출한 각 항목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표 V-30>),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앙값(2.5점)를 넘어 체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사례관리 항목으로 응답자의 95%에 가까운 이들이 이용

표 V-30 업무 체계화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N	평균(표준편차)
지역 내 연계 체계 구축 및 조정 담당 기구가 잘 마련되어 있다.	대도시	2(3.7)	12(22.2)	34(63.0)	6(11.1)	54(100.0)	2.81(.675)
	중소도시	1(1.4)	20(27.4)	46(63.0)	6(8.2)	73(100.0)	2.78(.607)
	농산어촌	0(0.0)	12(29.3)	25(61.0)	4(9.8)	41(100.0)	2.80(.601)
	전체	3(1.8)	44(26.2)	105(62.5)	16(9.5)	168(100.0)	2.80(.624)
귀 센터와 지역 내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기관이 충분히 있다.	대도시	2(3.7)	7(13.0)	37(68.5)	8(14.8)	54(100.0)	2.94(.656)
	중소도시	0(0.0)	18(24.0)	49(65.3)	8(10.7)	75(100.0)	2.87(.577)
	농산어촌	0(0.0)	10(23.8)	27(64.3)	5(11.9)	42(100.0)	2.88(.593)
	전체	2(1.2)	35(20.5)	113(66.1)	21(12.3)	171(100.0)	2.89(.604)
귀 센터에 대한 지역 내 인지도가 높다.	대도시	2(3.7)	19(35.2)	30(55.6)	3(5.6)	54(100.0)	2.63(.653)
	중소도시	1(1.3)	20(26.7)	44(58.7)	10(13.3)	75(100.0)	2.84(.658)
	농산어촌	1(2.4)	15(35.7)	22(52.4)	4(9.5)	42(100.0)	2.69(.680)
	전체	4(2.3)	54(31.6)	96(56.1)	17(9.9)	171(100.0)	2.74(.665)
지원 내용을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대도시	2(3.7)	15(27.8)	33(61.1)	4(7.4)	54(100.0)	2.72(.656)
	중소도시	1(1.3)	26(34.7)	42(56.0)	6(8.0)	75(100.0)	2.71(.632)
	농산어촌	0(0.0)	10(23.8)	27(64.3)	5(11.9)	42(100.0)	2.88(.593)
	전체	3(1.8)	51(29.8)	102(59.6)	15(8.8)	171(100.0)	2.75(.631)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	0(0.0)	3(5.7)	39(73.6)	11(20.8)	53(100.0)	3.15(.496)
	중소도시	1(1.3)	4(5.3)	58(77.3)	12(16.0)	75(100.0)	3.08(.514)
	농산어촌	0(0.0)	1(2.4)	33(78.6)	8(19.0)	42(100.0)	3.17(.437)
	전체	1(0.6)	8(4.7)	130(76.5)	31(18.2)	170(100.0)	3.12(.489)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및 가족을 의뢰할 기관이 있다.	대도시	0(0.0)	7(13.0)	34(63.0)	13(24.1)	54(100.0)	3.11(.604)
	중소도시	1(1.3)	19(25.3)	49(65.3)	6(8.0)	75(100.0)	2.80(.593)
	농산어촌	0(0.0)	10(23.8)	23(54.8)	9(21.4)	42(100.0)	2.98(.680)
	전체	1(0.6)	36(21.1)	106(62.0)	28(16.4)	171(100.0)	2.94(.630)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기 보다는 의뢰받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	1(1.9)	23(43.4)	24(45.3)	5(9.4)	53(100.0)	2.62(.686)
	중소도시	3(4.0)	27(36.0)	43(57.3)	2(2.7)	75(100.0)	2.59(.617)
	농산어촌	0(0.0)	20(47.6)	19(45.2)	3(7.1)	42(100.0)	2.60(.627)
	전체	4(2.4)	70(41.2)	86(50.6)	10(5.9)	170(100.0)	2.60(.638)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이용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 위기경험, 유형 등 개인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용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 차원에서 개인별 파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관운영 초기단계에서 행정의 전산화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문제로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례관리 및 기관이용 청소년들의 특성파악 등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사례에 대한 통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의 전산화시스템이 조속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이나 항목에 따라 업무체계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경우도 보였다. 예를 들어 지역 내 기관과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기관이 충분한지,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 및 가족을 의뢰할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83.3%와 87.1%로 나타났으나 중소도시의 경우는 각각 76%와 73.3%, 농산어촌의 경우는 각각 76.2%와 76.2%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시 말해 지역 내 도움을 주고받거나 필요시 의뢰를 할 만한 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10%대로 낮았으나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경우는 20%대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시사한다. 또한 농산어촌의 경우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기보다는 의뢰받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경우도 47.6%로 적지 않았는데 이 역시 부분적으로는 연계기관의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⑭ 기관의 홍보방법

현장의 종사자들은 기관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관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활동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의 홍보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표 V-31>과 같다. 4점 척도(하지 않는다(1점) - 충분하다(4점))를 바탕으로 산출한 각 항목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홍보방법은 연계기관 방문을 통한 홍보(3.30점)였다. 그 다음으로 아웃리치(3.17점),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홍보물 부착 및 배부(3.04점), 그리고 지역 신문이나 소식지 같은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2.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홍보방법을 살펴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전체적인 순위와 차이가 없었으나 농산어촌의 경우는 아웃리치가 연계기관 방문을 통한 홍보보다 더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정보포털(2.12점)이나 스마트폰 앱(1.86점)을 이용한 홍보, 이벤트 실시 및 행사를 통한 홍보(2.46점)는 부족하였다.

표 V-31 기관의 홍보방법

(단위: 명, %)

구분		하지 않는다	부족	보통	충분	N	평균(표준편차)
지식정보 포털(네이버, 다음 등)	대도시	12(22.2)	19(35.2)	20(37.0)	3(5.6)	54(100.0)	2.26(.873)
	중소도시	25(34.2)	18(24.7)	26(35.6)	4(5.5)	73(100.0)	2.12(.957)
	농산어촌	11(26.2)	16(38.1)	14(33.3)	1(2.4)	42(100.0)	2.12(.832)
	전체	48(28.4)	53(31.4)	60(35.5)	8(4.7)	169(100.0)	2.17(.898)
스마트폰 앱	대도시	22(40.7)	20(37.0)	11(20.4)	1(1.9)	54(100.0)	1.83(.818)
	중소도시	35(46.7)	16(21.3)	18(24.0)	6(8.0)	75(100.0)	1.93(1.018)
	농산어촌	17(40.5)	20(47.6)	3(7.1)	2(4.8)	42(100.0)	1.76(.790)
	전체	74(43.3)	56(32.7)	32(18.7)	9(5.3)	171(100.0)	1.86(.903)
연계 기관(학교, 경찰서 등) 방문을 통한 홍보	대도시	(0.0)	6(11.1)	26(48.1)	22(40.7)	54(100.0)	3.30(.662)
	중소도시	(0.0)	3(4.0)	38(50.7)	34(45.3)	75(100.0)	3.41(.572)
	농산어촌	(0.0)	2(4.8)	16(38.1)	24(57.1)	42(100.0)	3.52(.594)
	전체	(0.0)	11(6.4)	80(46.8)	80(46.8)	171(100.0)	3.40(.610)
홍보물(포스터, 전단지 등) 부착 및 배부	대도시	0(0.0)	14(25.9)	24(44.4)	16(29.6)	54(100.0)	3.04(.751)
	중소도시	1(1.3)	12(16.0)	33(44.0)	29(38.7)	75(100.0)	3.20(.753)
	농산어촌	1(2.4)	3(7.1)	21(50.0)	17(40.5)	42(100.0)	3.29(.708)
	전체	2(1.2)	29(17.0)	78(45.6)	62(36.3)	171(100.0)	3.17(.744)
길거리 홍보(전광판, 현수막, 버스 및 지하철 광고)	대도시	16(29.6)	18(33.3)	14(25.9)	6(11.1)	54(100.0)	2.19(.992)
	중소도시	6(8.1)	14(18.9)	34(45.9)	20(27.0)	74(100.0)	2.92(.888)
	농산어촌	2(4.8)	6(14.3)	21(50.0)	13(31.0)	42(100.0)	3.07(.808)
	전체	24(14.1)	38(22.4)	69(40.6)	39(22.9)	170(100.0)	2.72(.973)
지역 언론 매체(지역 신문, 소식지 등)를 통한 광고	대도시	2(3.7)	19(35.2)	25(46.3)	8(14.8)	54(100.0)	2.72(.763)
	중소도시	3(4.0)	9(12.0)	40(53.3)	23(30.7)	75(100.0)	3.11(.764)
	농산어촌	2(4.8)	6(14.3)	18(42.9)	16(38.1)	42(100.0)	3.14(.843)
	전체	7(4.1)	34(19.9)	83(48.5)	47(27.5)	171(100.0)	2.99(.801)
아웃리치	대도시	(0.0)	6(11.1)	33(61.1)	15(27.8)	54(100.0)	3.17(.607)
	중소도시	(0.0)	9(12.0)	37(49.3)	29(38.7)	75(100.0)	3.27(.664)
	농산어촌	(0.0)	2(4.8)	13(31.0)	27(64.3)	42(100.0)	3.60(.587)
	전체	(0.0)	17(9.9)	83(48.5)	71(41.5)	171(100.0)	3.32(.646)
이벤트 실시 및 행사를 통한 홍보	대도시	6(11.3)	27(50.9)	18(34.0)	2(3.8)	53(100.0)	2.30(.723)
	중소도시	11(14.9)	31(41.9)	24(32.4)	8(10.8)	74(100.0)	2.39(.873)
	농산어촌	1(2.4)	15(36.6)	17(41.5)	8(19.5)	41(100.0)	2.78(.791)
	전체	18(10.7)	73(43.5)	59(35.1)	18(10.7)	168(100.0)	2.46(.825)
기타	대도시	1(25.0)	1(25.0)	1(25.0)	1(25.0)	4(100.0)	2.50(1.291)
	중소도시	2(25.0)	1(12.5)	3(37.5)	2(25.0)	8(100.0)	2.63(1.188)
	농산어촌	0(0.0)	1(50.0)	1(50.0)	0(0.0)	2(100.0)	2.50(.707)
	전체	3(21.4)	3(21.4)	5(35.7)	3(21.4)	14(100.0)	2.57(1.089)

홍보와 관련하여 기관 종사자들은 홍보 예산의 부족을 언급하거나 개별 기관 차원에서의 홍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주요 일간지 및 공중파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요구로 기관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기관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라도 각 기관별 홍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홍보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는 청소년 발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원기관의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센터 자체적인 홍보 역시 중요하지만 상급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TV광고를 포함한 대형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시도하는 등,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서 할 수 없는 홍보활동들을 가능한 상급기관의 입회 하에 이루어져 꿈드림 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되었으면...(중략)”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 센터라는 또 다른 소속이 (있다는 것을) 범국민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어 부처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몇 군데 컨설팅을 나가봤더니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중략) 지방비는 얼마 안 붙는데 어쨌든 구 이름, 시 이름으로 센터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이 돼서 꿈드림이 원래 추구했던 그 방향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 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를테면 사례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큰 행사를 하거나, 꿈드림이 연구기관이 아닌데 연구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관리, 사례 관리가 메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행사, 홍보활동에 치중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⑮ 업무만족도

종사자들의 업무만족도 정도와 관련하여 4점 척도(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를 바탕으로 산출한 각 항목의 평균점수를 살펴 살펴보면(<표 V-32>),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성과에 보람을 느끼는 경향(3.54점)을 보였다. 또한 종사자들의 보람에 대한 응답률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은 대부분의 종사자(97.7%)에게서 나타났다. 한편 “업무를 통해

나의 잠재력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한 평균점은 3.10점으로 역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률 역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87.7%인데 비해 부정적인 응답은 12.3%에 불과하였다. 단 부정적인 응답은 타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지역(1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업무 내에서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73.7%,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는 26.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응답경향에서 지역적 특성은 크게 불거지지 않았고 종합적으로 평균점수는 2.91점이었다. 동료와의 관계는 대부분(95.9%)의 경우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4.1%에 불과하였다. 업무시간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는

표 V-32 업무 만족도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N	평균(표준편차)
청소년의 변화 및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	대도시	(0.0)	1(1.9)	18(33.3)	35(64.8)	54(100.0)	3.63(.525)
	중소도시	(0.0)	2(2.7)	34(45.3)	39(52.0)	75(100.0)	3.49(.554)
	농산어촌	(0.0)	1(2.4)	18(42.9)	23(54.8)	42(100.0)	3.52(.552)
	전체	(0.0)	4(2.3)	70(40.9)	97(56.7)	171(100.0)	3.54(.545)
업무를 통해 나의 잠재력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다.	대도시	2(3.7)	4(7.4)	37(68.5)	11(20.4)	54(100.0)	3.06(.656)
	중소도시	0(0.0)	12(16.0)	46(61.3)	17(22.7)	75(100.0)	3.07(.622)
	농산어촌	1(2.4)	2(4.8)	26(61.9)	13(31.0)	42(100.0)	3.21(.645)
	전체	3(1.8)	18(10.5)	109(63.7)	41(24.0)	171(100.0)	3.10(.639)
해당 업무 내에서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	대도시	1(1.9)	12(22.2)	31(57.4)	10(18.5)	54(100.0)	2.93(.696)
	중소도시	2(2.7)	17(22.7)	40(53.3)	16(21.3)	75(100.0)	2.93(.741)
	농산어촌	3(7.1)	10(23.8)	19(45.2)	10(23.8)	42(100.0)	2.86(.872)
	전체	6(3.5)	39(22.8)	90(52.6)	36(21.1)	171(100.0)	2.91(.758)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다.	대도시	0(0.0)	0(0.0)	31(57.4)	23(42.6)	54(100.0)	3.43(.499)
	중소도시	1(1.3)	5(6.7)	45(60.0)	24(32.0)	75(100.0)	3.23(.628)
	농산어촌	0(0.0)	1(2.4)	23(54.8)	18(42.9)	42(100.0)	3.40(.544)
	전체	1(0.6)	6(3.5)	99(57.9)	65(38.0)	171(100.0)	3.33(.574)
업무 시간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	대도시	0(0.0)	5(9.3)	23(42.6)	26(48.1)	54(100.0)	3.39(.656)
	중소도시	0(0.0)	10(13.3)	35(46.7)	30(40.0)	75(100.0)	3.27(.684)
	농산어촌	1(2.4)	9(21.4)	22(52.4)	10(23.8)	42(100.0)	2.98(.749)
	전체	1(0.6)	24(14.0)	80(46.8)	66(38.6)	171(100.0)	3.23(.706)
보수 규정에 만족한다.	대도시	20(37.0)	29(53.7)	5(9.3)	(0.0)	54(100.0)	1.72(.627)
	중소도시	32(43.2)	28(37.8)	14(18.9)	(0.0)	74(100.0)	1.76(.755)
	농산어촌	11(26.2)	18(42.9)	13(31.0)	(0.0)	42(100.0)	2.05(.764)
	전체	63(37.1)	75(44.1)	32(18.8)	(0.0)	170(100.0)	1.82(.727)
복리 후생 제도에 만족한다.	대도시	18(33.3)	28(51.9)	8(14.8)	0(0.0)	54(100.0)	1.81(.675)
	중소도시	32(43.2)	27(36.5)	15(20.3)	0(0.0)	74(100.0)	1.77(.768)
	농산어촌	17(40.5)	11(26.2)	13(31.0)	1(2.4)	42(100.0)	1.95(.909)
	전체	67(39.4)	66(38.8)	36(21.2)	1(0.6)	170(100.0)	1.83(.777)

응답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그렇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무래도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이용청소년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보수규정에 대한 만족도는 업무만족도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균점수(1.82점)를 보였는데 81.2%가 보수에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평균점수가 1.83점으로 보수 규정에 대한 만족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역시 도시 규모 및 업무량과는 반비례, 보수 규정과는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 도시규모가 클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보수규정과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함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업무에 따른 보람이나 자기개발적 측면, 동료와의 관계 등에서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많은 업무량에 비해 보수나 복지제도가 낮아 이에 대한 만족도는 크지 않았다.

(3) 소결

지금까지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0명 중 9명 이상은 현재 고등학교 이상의 연령대에 있고 10명 중 7~8명 정도는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진로가 파악된 청소년들의 경우 10명 중 3명 이상은 학업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음주·흡연, 폭력, 보호처분, 우울·불안 등 위기상황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된 경로를 보면 학교나 상담복지센터, 법원 및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해 이용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고 다른 경로를 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양한 이용경로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빠르고 쉬운 연결통로라 할 수 있는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연계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원센터와 학교 간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학교를 그만두고 지원센터로 연결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단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단절 없는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과 같이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중에는 학업이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용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도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그리고 현장에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정책 및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이상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거나 숨지 않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개별 기관들이 지역별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으나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거나 파악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놓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파악은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므로 체계적인 자료구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실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 요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료 입력 및 저장 시스템 구축은 자료내용의 적절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진행되어야 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 및 실태 파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고 이를 하나의 통일된 양식으로 입력하도록 하며 필요시 자료에 대한 간단한 가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관운영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이용청소년의 규모에 있어서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모든 지원센터에 동일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곤란을 겪는 곳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서도 고용의 안정성이나 급여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은 이들의 업무역량을 저하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함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 양적 성과 위주의 평가는 청소년 개인별 사정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제한을 갖도록 한다.

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각 부처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제공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먼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높은 이직율과 형식적인 종사자 교육·연수 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최신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거나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서비스가 청소년의 특성과 다소 괴리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들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책 및 서비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동시에 기관 종사자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폭넓게 수집할 뿐 아니라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 즉 학업 및 취업지원 이외에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의료·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학업 및 취업동기가 낮은 경우가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도 맞물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기관의 예산 및 인력 부족, 성과평가의 불합리성, 보여주기식 행정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위치 및 시설·기자재의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에서의 열악함을 보이는 곳도 적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대상자를 흡연 청소년만으로 한정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되지 않는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 예산의 부족으로 종사자의 개인물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나 예산의 확보 없이 성급하게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직 운영 초기단계이므로 각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지역 내 인프라 형성, 기관의 준비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몇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역 내 긴밀한 연계를 위해 정부부처 간,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관련기관 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지자체나 지원센터 역시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청소년쉼터 등 역할이 중복되는 기관들과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지불식간에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바탕으로 각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VI 장



정책제언

1. 정책제언의 배경
2. 정책제언

제 VI 장 정책제언⁶⁶⁾

1. 정책제언의 배경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그들을 위한 국내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학교 밖 지원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9세~24세의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국가에서 인정한 초·중등과정에 해당하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들의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9세~24세 청소년 약 천 만 명 중 초·중·고생 약 513만 명과 고교 졸업생 43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 약 57만 명(574,669명)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산하였다. 이 중 초·중·고 학령기간에 속하는 9세~17세까지의 청소년은 약 27만 명(274,952명),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18세~24세까지의 청소년은 약 30만 명(299,717명)으로 추산된다.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학교를 그만 두었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직업세계로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았으나 사회 및 경제, 청소년 인권 등에 대한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역설적이게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은 청소년 개인의 잘못이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으며 환경의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점차

66) 이 장은 백해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이 장의 일부는 연구결과 공유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이슈브리프 제7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2015.6.30.)로 발간되었고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2015. 11.13)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연구 역시 그러한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피고 이들을 위한 지원의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및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질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유와 배경에서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둘째, 그러나 이들이 학교를 그만 두거나 그만두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래관계로 이 시기의 또래 관계가 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교사나 보호자 등 주변의 성인과 충분한 상의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별다른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에 따른 유형은 개인마다의 차이는 물론 한 개인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여 유형별 구분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이에 따라 지원정책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들의 상황은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변화 가능하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덟째, 학업중단이라는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의 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업중단이라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경험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지원정책의 현황분석, 종사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2. 정책제언

1)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수립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성공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통합성을 가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학업 중단 문제 뿐 아니라 빈곤, 가족문제, 또래문제, 비행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업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기청소년이란 큰 틀 안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의 범주로 포함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일선 현장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곧 비행청소년이나 문제청소년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 3장에서도 서술했듯이 위기청소년은 가족, 학업, 경제, 사회, 정서적인 측면 등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달에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될 수 있다(구본용, 2005).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뿐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포함하는 것으로써 비행청소년이나 문제청소년에 비해 그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에 속한다는 내용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지원정책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수립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위기청소년 안에는 북한이나 제 3국으로부터의 이주 배경을 지닌 청소년이나 청소년 한부모 등과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로 볼 때 아직까지 소수집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업중단 가능성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 집단을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수집단의 청소년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향이 있어 이들이 학업 밖 청소년 지원대상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소수집단 청소년들이 정책의 지원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중단의 위기 수준이 변화하는 연속선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고 정책을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를 적용하여 이원화된 정책을 수립·제공하고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떠난 이후부터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자로서 지원을 제공받게 되며 그 이전,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교육부의 정책대상자로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학교이탈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신분이었을 때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신분 유지 여부에 따라 주무부처가 나뉘고 각 부처가 제각기 지원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지원기관 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학교 내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원화된 체제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이탈 시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유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청소년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름 및 주소 등과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선일보, 2015.8.28.).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으며, 이 같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은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심리를 고려하지 못한 조치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학교를 그만 둔 초기단계에서 청소년들은 갑작스런 신분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담당부처의 변경에 따라 두 부처 간 연계가 단순히 개인정보 제공으로만 그치고 지원기관 및 지원담당자가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존 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관계형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지원서비스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아직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학업중단 위험의 초기 징후를 보일 때부터 개입이 시작되어야 하며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개입수준도 함께 변화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정책과 개입 정책이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유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학업중단 이후라도 기존에 제공해 오던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기관 및 지원담당자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향후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진입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기에 충분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은 초기 단계로 지원기관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올해 들어 16개 시·도 184개 시·군·구에 총 200개소에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하도록 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15a). 지원기관의 양적 확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즉 지원서비스를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양적인 면에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 지역에 따라 지원센터의 예산 및 인력 부족, 실적 위주의 평가 등으로 인해 청소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학력취득 후 곧 이어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두 가지 지원, 즉 학업지원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선현장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상관없이 청소년이 원한다 하더라도 한 명에게 학업지원과 취업지원을 모두 제공하지 못하고 두 지원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하거나 개별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집단적인 지원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는 비록 서비스 대상자의 수는 확대된다 할지라도 한 개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가 개인의 향후 자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때 자립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개인은 성인기에 이르러 자립에 어려움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개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대상자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향후 성인기에서의 자립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책적 효과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4장에서 서술한 미국의 사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주정부, 연방정부가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별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물론 미국 전역에서 모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요구도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내외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 및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비교적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에서 청소년기, 더 나아가서는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나서서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의 경우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로서 학교 밖, 심하게는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이들을 다시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이 부재한 사회에서는 이들의 현재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상태와 상관없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청소년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자립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 그러나 자립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만을 제공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립을 요구하고 그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에게 오롯이 책임질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또한 그 개인은 영영 자립의 기회를 빼앗긴 채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겪는 문제가 향후 성인기에 이르러 실업, 노숙, 범죄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로 연결될 경우, 이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체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개인의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처한 환경이 열악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갈 기회가 적고 그 결과 성장 및 발달 단계에서 뒤처지기도 한다. 또한 제 때에 성장, 발달하지 못했을 경우 이후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를 위해 요구되었던 시간보다

통합성

-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연속성

- 지원은 분절적이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성

-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기에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속성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V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네 가지 기준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원리를 생각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효과는 일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효과보다 더 적고 천천히 나타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단기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며,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태조사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사시점에서 나타난 청소년 특성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나타나는 이들의 경향 및 변화에 대한 분석, 즉 시계열 자료 구축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항목에 대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안에는 앞서 언급했던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조사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소수집단은 그들만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지원정책만으로는 이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개입이 어려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다문화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의 수가 적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들이 보이는 폐쇄성으로 인한 것이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센터가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실태 및 특성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서비스 외에 소수집단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지원서비스 참여 청소년에 대한 자료 축적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은 3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 이외에도 항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들 및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자료는 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K드림 전산망에 이용자의 성별 및 연령, 학업중단 사유 등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필수입력항목으로 지정하고 종사자 연수 및 교육 등을 통해 이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방대한 자료수집 및 축적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청소년 상담 1388의 피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기청소년 예측 연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2015)는 이러한 대규모 자료의 구축 및 활용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축된 자료들은 횡적인 측면 뿐 아니라 종단적 분석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특정시점에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이들의 특성이 변화·유지되는 경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종단적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데, 특정시점에서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수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분석하는 코호트자료 분석방법과 특정한 구성원 집단에 대해 정기적인 반복조사를 통해 자료를 추적하고 이를 분석하는 패널자료 분석방법이다. 패널자료는 지원센터 이용자들에게 센터 이용 초기와 종결 단계에서 뿐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일 년에 한 번이나 격년에 한 번 정도, 양적 및 질적 측정을 통해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서만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학교 밖 지원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및 경향 분석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자료의 축적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원인 및 경향 파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 4장에서 서술된 해외사례를 보면 각 나라마다 학업 중단의 주원인 및 학교 밖 청소년들 경향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점을 두는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가정해체, 빈곤, 학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가출·거리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 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형성된 결과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학업중단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등교육과정까지 진입시키려는 정책이 지원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에서는 빈곤, 학업능력의 부족, 학교 부적응 등이 주원인으로 이들이 추후 니트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 아래 청소년들이 교육 참여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요구하는 한편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있어서 지방정부,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호주와 일본에서도 역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학업중단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들에게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에게는 지역단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각 나라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책 수립에 앞서 이들의 학업 중단 원인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기초로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교 부적응이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의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에도 가정 내 경제 및 관계문제, 가출, 또래관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학업중단이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정책은 물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이러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대두된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 및 추이를 정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4)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예방을 위한 학교이탈 위험도 측정도구의 개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학교이탈 위험군 청소년들의 조기 발굴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이탈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신분일 때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학교이탈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은 학교에서부터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서술한 해외 정책사례 분석 중 호주의 경우를 보면 SMT(Student Mapping Tool)의 개발을 통해 학생의 학교이탈 위험도를 측정함으로써 학교 안에서부터 학생 개개인의 위험정도에 맞추어 조기개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학교이탈 위험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학생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각 개인의 위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개입전략을 세우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는 학교이탈의 주원인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양적 평가는 물론 교사, 보호자, 관련 지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질적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정도구의 개발과 더불어 위험 수준에 따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각 청소년에게 적용해야 할 개입전략 및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이 함께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1) 국가 차원의 청소년 통합관리 체계 구축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는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원기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보호망 밖으로 유실되어 이들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이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들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학생번호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체계에 의해 생성된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번호를 통해 의무교육대상자인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이름, 성별과 같은 기본정보와 전학 및 편입학 관련 여부, 직업교육과 훈련 참여 여부 등 교육 제도 내에서 학생의 경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호주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호주에 서와 같은 청소년 등록번호 제도의 도입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초등학교 입학시기부터 고등학교 졸업 연령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육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교육 이동 경로에 대한 파악은 교육 경로에서 이탈되는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번호를 도입할 경우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획득은 용이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및 유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전에 면밀한 사전조사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가 구축되어 가동 중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만하다. 현재 NEIS를 통해서는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학생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제외되고 별도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규 학교 이외의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NEIS의 관리체제 안에 포함시킴으로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이외의 기관 및 시설에서도 등록 청소년들의 정보를 NEIS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절차를 거쳐 인증을 하고 인증기관에 한해서만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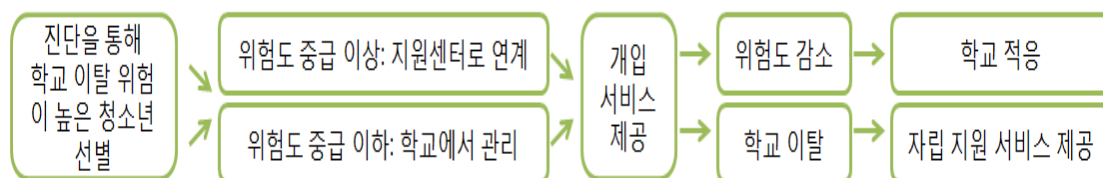
(2) 청소년 지원 부처의 일원화

청소년 지원정책의 연속선을 유지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망에서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학생신분 유지 여부에 따라 나뉘던 지원부처 및 기관을 일원화하고 지원기관 및 조력자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그리고 학업 중단 후에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바, 두 부처 중 하나가 중심부처가 되는 일원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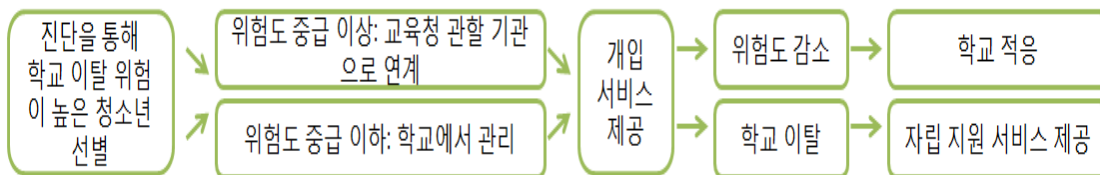
① 지원부처의 일원화 방안 1: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지정·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요 대상으로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하며 그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5a)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업중단 숙려제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학업 중단의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육부가 운영하는 Wee 클래스 및 센터 등에서도 숙려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센터와 연계되는 숙려제 학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결국 숙려제에 참여한 청소년 중 최종적으로 학교에 남지 않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후에야 비로소 지원센터로 연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다. 이 과정에서도 해당 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 지원센터 간 연계체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지원센터로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쉽지 않다. 특히 학업중단 초기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시적인 해방감에 젖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으로 지원센터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쉽지 않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은 관리체계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이전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센터의 개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청소년은 숙려제 참여 및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센터로 연계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개입서비스가 단계별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개입의 마지막 단계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에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은 지원센터 안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숙려제 이후 학교에 남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학업중단의 위험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 학교와의 공조체제 속에서 지원센터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서비스는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유실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안의 청소년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교 내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와 일선 학교 및 해당 교육청 간의 연계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간의 업무협조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



【그림 VI-2】 지원 흐름도의 예 1



【그림 VI-3】 지원 흐름도의 예 2

부를 중심으로 한 지원의 흐름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VI-2]와 같다.

② 지원부처의 일원화 방안 2: 교육부를 중심으로

청소년기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학교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부가 구심점이 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주도 및 강구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진단을 통해 학교이탈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업위기 청소년으로 보고 학교 안에서부터 이들에게 맞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교 적응을 돕는 한편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에게는 평생교육 또는 자립교육의 일환으로 별도의 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원하는 교육기관에 출석하여 과정을 모두 마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의 운영, 그리고 교육청의 관할 아래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인 「친구랑」의 운영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학업지원 이외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조는 필수적이다. 이상과 같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지원의 흐름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VI-3]과 같다.

(3) 유관 부처 및 부서 간 공조체계 마련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려는 노력 중에 있으나 센터의 운영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각 부처에 따라 각자의 전달체계 내에서 수행됨으로써 지원정책의 분절화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각 정책들이 수혜자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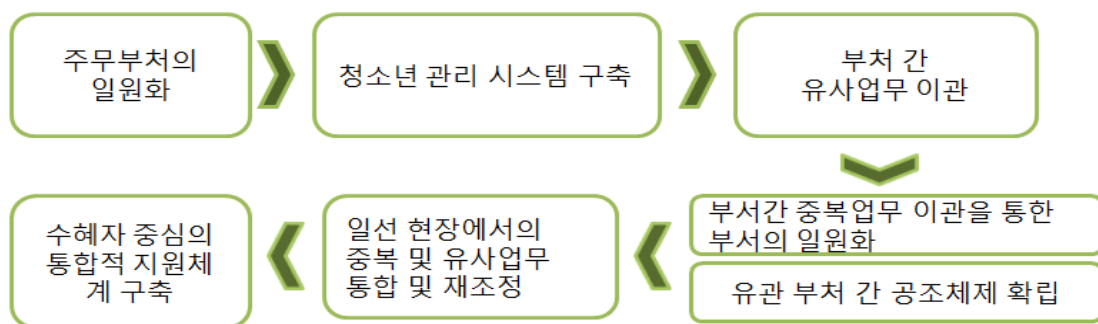
및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및 부서 간 공조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관 부처 및 부서들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업무 공조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부처 간 공조의 예로는 2015년 5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앙 부처에서 상호협조 체제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일선 현장에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 부처 간 공조방침을 보다 명확히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서 간 공조체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정보공유는 물론 유관 업무 담당자 간 파견을 통한 교류 및 인사이동을 통해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부처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가 각자 다른 경우도 발생하는 데 이러한 경우 역시 부서 간 공조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정책 전달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기 다른 부서들의 독립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은 서비스의 중복을 발생시킴으로써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중복업무를 파악하여 이를 일원화하거나 여러 부서에 산재한 유관 정책 및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여성가족부 안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청소년 자립지원과와 학교밖청소년지원과로 이원화되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자립지원과의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상당수는 학교밖청소년지원과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 이는 정책대상자인 취약계층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부서를 통합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일선 현장에서의 공조체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시설 및 기관 간 중복 업무를 파악하여 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또래관계에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정서지원의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업중단의 문제를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서지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며 가출문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정서지원의 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가 각기 독립적이지 않고 한 청소년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 간의 연계 및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 문제를 모두 지닌 청소년 한 명이 세 기관을 통해 중복적으로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여러 기관이 중복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한 청소년에게서 학업중단을 비롯하여 여러 위기가 중복되어 나타날 때 과중한 업무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각 기관이 서로에게 역할 떠넘기기를 한다면 지원의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서비스를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라는 큰 틀 안에서 재조정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학업지원 이외의 정서지원이나 생활지원 등은 위기청소년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의 역할 확대 및 강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지원서비스가 다름으로 인해 한 청소년이 여러 영역의 지원을 받을 경우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안에, 또는 적어도 인근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이 같이 운영됨으로써 청소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유관 기관들의 운영 주체가 각기 다를 경우 지역 내에서 정보공유나 공동사업 추진 등 상호 협조가 활발한 일선 기관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 예를 들어 인센티브 제공이나 연수기회 제공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조체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청소년 통합관리 체계 구축, 주무부처의 일원화, 유관 부처 및 부서 간 공조체계 마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과제의 수행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IV-4]와 같다.



[그림 VI-4]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1) 현장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현장에서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종사자들의 현장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대표적인 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량, 낮은 임금체계 및 고용의 불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각 기관별 종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정규직은 전체 응답자의 26.2%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은 73.5%로 정규직의 2.8배에 달하여 이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 별 이용 청소년의 수와 종사자 수의 불균형,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특히 이용 청소년이 많은 기관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관의 종사자들은 임금에 비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열악한 업무환경은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을 발생시킴으로써 현장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은 종사자들에게 업무역량 증진 기회 뿐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함으로써 결국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청소년의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상황으로 까지 연결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다. 즉, 종사자들의 정규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보면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정부로부터 배정받는 운영비 중 인건비 편성 범위(시도센터는 총 예산의 65% 미만, 시군구 센터는 총 예산의 78% 미만)를 준수하여 팀장의 경우 최저 2,370만원, 팀원의 경우는 최저 2,160만원을 연봉으로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이 연봉 안에는 기본급 이외에 고용관련 법적 총당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팀장의 경우는 월 197.5만원을, 팀원의 경우는 월 18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유사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쉼터의 임금기준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바(황정임, 정가원, 구미영, 정진구, 홍영규, 201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도 여성가족부 산하 타 기관의 임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호봉 간 급여 인상률을 조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를 비롯한 처우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자 일 인당 담당 청소년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사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종사자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은 수의 청소년들을 담당한다면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종사자 간담회에서 종사자 한 명당 일 년 간 사례관리가 가능한 인원은 최대 20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종사자 일 인당 일 년에 6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종사자 한 명당 담당 청소년 수에 대한 적정선이 제시되고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타업무에 있어서도 업무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둘째,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종사자 교육이나 연수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력이 짧은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내용을 차별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점으로 보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연수 및 교육 내용의 전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 강의실에서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식 전달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한 소규모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부처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 종사자들이 부처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정보의 제공과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정보부족은 센터운영이 초기 단계이고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센터 내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제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다. 따라서 관련 정보에 대한 종사자들의 충분한 인지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의 장기근속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종사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전달되지 못하고 각 부처별로 전달되다 보니 해당 부처와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기관은 정보전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모든 정보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현장에서는 정보 통합에 어려움을 보인다. 이에 단일한 통로를 통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정보전달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하나의 책자로 묶어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배포하며 인터넷 상에서 이 모든 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종사자들이 필요시 보다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 및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반적인 생활에서 다양한 부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학업 및 취업지원 이외에 정서지원, 의료·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난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장전문가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개입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실질적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인력이다.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 관련 단체 종사자 중 상당수가 현장전문가로서 자질 및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현장전문가를 발굴하고 영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 전문가들은 지원센터의 종사자들로 적극 영입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장전문가풀을 구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사업의 계획수립 및 수행과정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전문가 뿐 아니라 오랜 경력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 단체들과의 협의체 구성 및 사업위탁을 통해 이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그림 VI-5]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단계적인 정규직화
-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및 준수
- 일인 당 적정 사례관리 수를 포함한 근로가이드라인 제시 및 준수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방안 마련

- 연수 및 교육 기회의 제공
-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제공

전문가 영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 및 민간 전문가 영입

【그림 VI-5】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2) 지역사회 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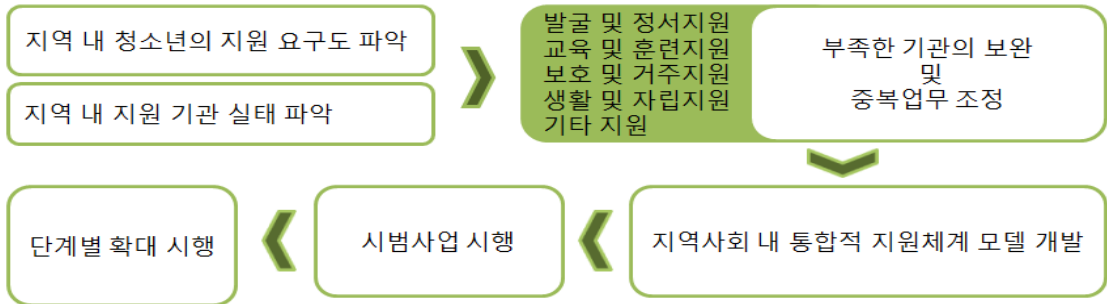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학업 중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중복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 지역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 내에서 학업지원 기관을 비롯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기관, 직업훈련 후 실습 및 취업이 가능한 사업장, 정서지원을 위해 전문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거주 및 생활지원이 가능한 기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 및 시설이 모두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시설이나 기관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통합적 인프라가 보다 잘 형성되어 있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학업보다는 우선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한 일터를 먼저 찾게 되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에는 다른 거주시설을 찾게 되는데 이 때 지역 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이 부족할 경우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원하는 지원을 충분히 얻지 못했을 때 이들은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동이 잦아질수록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 단위에서 기관 및

시설의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며 부수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내 지원시설 및 기관의 부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 기관 및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지역에는 이러한 지원 시설 및 기관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용돈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터가 부족하다면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정서지원, 학업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보호·거주지원, 그리고 생활·자립지원이라는 네 가지 기본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시설이 지역 사회 내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 지역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는 청소년들이 각 기관 및 시설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에게 결코 쉽지 않으므로 지원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원 기관 및 시설들이 서로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청소년이 한 기관을 찾아갔을 때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다른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 기관은 청소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가 가능한 타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CYS-net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이러한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한 만큼 CYS-net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발굴 및 정서지원, 생활 및 자립지원, 보호 및 거주지원, 교육 및 훈련지원 등 각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시설들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조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그 외에 비행청소년 및 소년범, 다문화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이나 건강지원 등 기타 영역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과의 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역할이 중복되는 기관 간 업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재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CYS-net이



【그림 VI-6】 지역사회 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흐름도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통합적 지원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 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하나의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VI - 6]과 같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전국 16개 시·도 184개 시·군·구에서 약 200여 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이러한 기관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역마다 이용 청소년의 규모에 있어서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모든 지원센터에 동일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시·군·구 센터의 경우 기준으로 볼 때 각 센터 당 종사자 두 명에 6,700만원의 예산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여성가족부, 2015a) 실제 조사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센터이용 청소년이 많은 센터나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져 청소년들에게 종사자가 자신의 차를 직접 운행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을 제공해야 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또한 종사자들에 따라서는 종사자 일 인당 20명 정도의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한 센터 당 종사자의 수가 최소 4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특히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경우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보고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종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소도시의 경우는 40%, 농산어촌의 경우는 38.1%가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8%, 농산어촌의 9.5%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각 센터에

동일한 예산과 인력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각 센터별 이용 청소년의 수, 이용 청소년의 특성, 지역적 특성 및 인프라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계획과 인력 및 예산의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고 교통의 편리성이 떨어지는 지역 등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낮은 일부 기관의 경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기관을 재배치하거나 인근에 있는 센터와 통폐합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 당 인력과 예산은 기관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센터 내 시설이나 공간, 기자재 등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들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기관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 의해 공간 및 기자재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 내 일부분에 공간을 확보하여 개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위치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 시설 및 공간, 기자재 등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확보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예산책을 마련함으로써 각 기관이 적절한 수준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기준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방안은 [그림 VI-7]과 같다.

센터의 위치 및 개소수 재조정

센터의 예산 및 인력 기준 개선책 마련 및 준수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확보 기준안 마련 및 준수

【그림 VI-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기준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

(4) 자립준비도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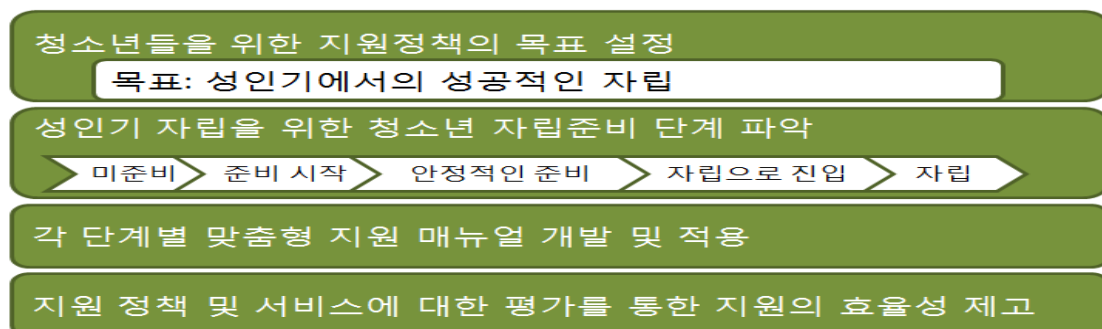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들의 상황 및 요구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고 단계적인 개입 및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인기의 자립이라면 이들의 현재 자립준비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 상태를 미준비단계, 준비시작단계, 준비안정단계, 자립으로의 진입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를 그만둔 초기단계이거나 연령대가 낮아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나 일상생활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동기가 낮은 청소년들은 아직 자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자립 미준비 상태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업이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이전에 자율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존감 회복, 동기 부여,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취미활동이나 문화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이 먼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서나 생활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에 학업 및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학업 및 취업에 대한 동기와 열의가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동기와 열의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자립준비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의지와 동기는 어느 정도 있으나 생활적인 면에서 훈련이 덜 되어 있거나 환경이 이들의 의지와 동기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부수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주지가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주거 및 생활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교육 및 훈련 기간 동안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교통비나 용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생활지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교육 및 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거나 위험수준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으로부터 보호의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례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수당의 지급으로 인해 학교 재학률이 5% 이상 증가하였다는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들로 하여금 교육 및 훈련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별 내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자립지원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프로그램 등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소 충동적이거나 의지력 등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적인 훈련 및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 이 때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단계별 교육 및 훈련기간을 짧게 잡음으로서 중간에 청소년들에게 단기방학 및 휴가기간을 제공하는 등 좀 더 여유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두 달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일주일의 단기방학을 실시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거나, 경우에 따라 한 학기를 쉬고 다음 학기에도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융통성 있는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이나 훈련에 점차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교육이나 훈련을 안정적으로 받는 청소년들은 안정적인 준비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훈련에 보다 몰입하고 참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필요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립으로의 진입단계는 교육 및 훈련과정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로 성인으로서 성공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지원 및 생활관리 지원, 정서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 및 요구도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맞춤형 단계별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각 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그림 VI-8]에 제시되었다.



[그림 VI-8] 자립준비도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5)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원기관센터에 대한 평가는 지원 건수 등 실적위주의 양적 평가가 중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지표는 지원을 받은 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평가 등 실적 위주의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자립 준비도가 향상되거나 학업중단의 위험도가 감소된 청소년의 규모와 같은 양적 평가와 단계별 지원을 받기 전과 후의 청소년의 태도 변화 등에 대한 질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전달하는 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책수요자, 다시 말하면 정책의 전달자인 현장 종사자와 수혜자인 청소년으로부터 각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를 받는 정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

(1)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 정책안 마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정책은 중요하다. 해외사례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각 나라마다 사후개입정책 이전에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이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 수준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학교 수업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외에도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 내에 배치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질적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거나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또래 친구들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바,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학교 구성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미래 진로 및 자신에 대한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이유에서 학교를 나오게 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중립적인 시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이용하여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가진 청소년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기관 간 연계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한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 진로형성에 필요한 학습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를 나온 이후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시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소외감과 심리적 불편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타율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의 일을 처리해 나가며 자신감과 의지력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의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학업중단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폭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활동, 교육 및 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발판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학업중단이라는 위기를 자아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학력위주 사회가 만든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학력이 한 사람이 자립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안에서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사회 안에 통합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력만이 중시되는 획일화된 사회에서 벗어나 한 개인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성인으로서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 학업중단 결정 과정에서 학교나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통해 얻기보다는 학교를 떠난 이후 지인을 통하거나 처벌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고 일선 학교나 관련 기관, 지역사회, 언론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측정하여 이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지원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지원서비스가 본연의 의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는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의 낙오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기회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이 대중매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또한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홍보와 동시에 각 지역사회 내에서 특히 집중해야 할 홍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홍보 대상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 학교 교사,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학교 상담실 등 오프라인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사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는 기관방문을 통한 홍보, 시설 및 기관 내 홍보 전단지 및 책자 비치,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필요시 신속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보의 내용으로는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존재 여부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핵심내용과 세부내용 등으로 나누어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대적인 홍보에서는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존재 여부 및 핵심내용을 보다 중점적으로 알리고 청소년이나 학교, 관련 기관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필요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관련 사이트 운영이나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정책수요자들이 최신의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홍보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식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홍보보다는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체계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계획 및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중앙부처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과 각 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 공동으로 해야 할 부분 등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수렴 통로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Centrepont 사례는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한층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정부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기회로, 사회구성원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그림 VI-9]와 같다.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 정책안 마련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수렴 통로 마련

【그림 VI-9】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

이 절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5개 영역에서 총 18개이다. 이를 종합한 것이 <표 VI-1>이다.

표 V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영역	세부 과제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정책의 목표 수립
	정책 수립의 기준 마련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
	지원서비스 참여 청소년에 대한 자료 축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및 경향 분석
	청소년 학교이탈 위험도 측정도구의 개발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청소년 통합관리 체계 구축
	청소년 지원 부처의 일원화
	유관 부처 및 부서 간 공조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현장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자립준비도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 정책안 마련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수렴 통로 마련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2015a). 비공개 내부자료.
- 고용노동부(2015b). 2015년도 중소기업 청소년인턴제 시행지침.
- 관계부처 합동(2015.5.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보도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교육통계서비스(2014).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4. 2.24)
- 교육부(2012). 비공개 내부자료.
- 교육부(2012.9.4).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 교육부(2013.6.24). 학업중단숙려제 시범운영 결과(보도자료).
- 교육부(2014). 대안학교 및 특성화중고교(대안교육) 현황(내부자료).
- 교육부(2014.2.27). 2014년 학업중단 예방 340억 집중 지원(보도자료).
- 교육부(2014.5.28). 학업중단 학생 보호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돌봄 공간 「친구랑」 설치 (보도자료).
- 교육부(2014.8.29).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 교육부(2015a).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 교육부(2015b). 비공개 내부자료.
- 교육부(2015.3.5). 2015년 개교하는 6개 방송중학교 입학식 열려(보도자료).
- 교육부, 대구교육청(2015).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성과보고회 자료집.
- 교육부, 여성가족부(2013).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2007). 대안교육백서.
- 구본용(2005).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 지역사회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p.79-80.

- 국가통계포털(201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검색일 2015.2.24)
- 국민권익위원회(2010). 검정고시 제도 운영체계 개선(내부자료).
- 권해수, 서정아, 정찬석(2007). 대안학교와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의 학교 밖 경험 비교: 개념도 방법론을 통하여. 상담학 연구, 8(2), 657-674.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강호, 김은석, 안선영, 금지현(201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지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김범구, 조아미(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 청소년연구, 24(3), 5-31.
- 김주훈, 김기철, 박지현(2012). 검정고시 제도 개선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지연, 정소연(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동아일보(2015.10.8).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비율 해마다 높아져.
- 박주호, 신태석, 이은경, 김정덕(2014).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 백혜정(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7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임희진(2014). 청소년정책리포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률신문(2015.3.17). '에스센터', 소년원 출소 청소년에 꿈을 심는다.
- 법무부(2015).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4). 2013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서정아(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2007).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의 생활경험 비교 연구:

- 정규학교 중단 후 힘든 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213-245.
- 양미진, 이영희(2006).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요인연구.
-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20.
- 여성가족부(2015a). 2015년도 청소년사업안내(II).
- 여성가족부(2015b). 비공개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2015c). 201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여성가족부(2015.5.12).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내부자료).
- 오병돈, 김기현(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5(4), 31-54.
-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2014). 청소년의 학업중도포기 과정, 청소년학연구, 21(5), 141-168.
- 오혜영, 박현진, 공운정, 김범구(2013). 현장상담자들이 인식한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과 개입방향. 청소년학연구, 20(12), 153-179.
- 윤철경, 김혁진, 김범구, 하시연, 이연희(2014).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경숙(2013).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조선일보(2015.8.28).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모두 상담 나선다.
- 조아미, 이진숙(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21(7), 145-170.
- 지승희(2001).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과정 및 변화요인 연구: 애착이론적 조망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5). 호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이슈리포트 제 1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동선, 이상준(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상근, 양수경, 남기곤(2010).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3. 6. 24). 「학업숙려제」 시범운영 결과 참여자 5312명 중 1138명 (21.4%) 학업지속(보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센터(201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브로셔.
- 한국소년보호협회 예스센터(2015.7). YES센터 현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4).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비용 추계 연구. 청소년 정책리포트, 3.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2015).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기청소년 예측 및 적시대응 기술개발.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세미나집 자료.
- 행정자치부(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2015.2.24).
- 황정임, 정가원, 구미영, 정진구, 홍영규(2014). 시설종사자 근로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설 역량 강화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Dearden, L., Emmerson, C., Frayne, C., & Meghir, C.(2011). Education Subsidies and School Drop-Out Rates.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 Department for Education(2014).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education, employment of training: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Department for Education.
- Department for Education(2015). Children missing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Department for Education.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1997). A guide to conducting Cou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572.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2005). Cou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96-205.

- Local Government Ombudsman(2011). Out of school...out of mind?: How councils can do more to give children out of school a good education, Focus Report: learning lessons from complaints. Commission for Local Administration in England.
- PCCY(2014). How does access to childcare affect high school completion in Philadelphia's multiple pathways to graduation programs? Philadelphia, PA: PCCY.
-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0). Pathways to re-engagement through flexible learning options: A policy direction for consultation.
-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3). School Focused Youth Service: Supporting the engagement and re-engagement of at risk young people in learning Guidelines 2013 - 2015.
- 内閣府(2010). 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設置・運営指針. 平成 22年 2月 23日.
- 内閣府(2011). 平成23年版 子ども・若者白書 特集 高等学校中途退学者の意識と求められる支援.
- 東京都教育委員会(2013). 都立高校中途退学者等追跡調査 報告書. 平成 25年 3月.
- 牟田武生(2005). ニート・ひきこもりへの対応—だれにでも起きる!? 教育出版.
- 文部科学省(2003). 不登校への対応について.
- 文部科学省(2013). 平成 25 年度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 文部科学省, 厚生労働省(2014.2.24).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点検・評価会議 (第 7回) 資料1-3 「ニート・高校中退の若者への支援」に係る関係府省提出資料.
- 文部省(1993). 高等学校中途退学問題への対応について 文部省 初等中等教育局長通知. 1993年 4月 23日.
- 北村陽英(2007). 高校生不登校, 中途退学の養護教諭による調査研究—「ひきこもり」との関連において—. Bulletin of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16), 183-189, 2007-03. 奈良教育大学教育学部附属教育実践総合.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12). Facing the school dropout dilemma. Washington, DC. <http://www.aps.org/pi/families/resources/school-dropout-prevention.aspx> (검색일: 2015.6.5).
- Americas Promise Alliance(2015). <http://www.ncsl.org/print/educ/Spforum08Wells.pdf> (검색일: 2015.6.8).
- Centrepont(2015). <http://centrepont.org.uk/about-us/what-we-do> (검색일: 2015.6.25).
- Child trends data bank(2015). High school dropout rates. http://www.childtrends.org/wp-content/uploads/2012/10/01_Fig1.jpg (검색일: 2015.6.15).
- Committee on Ways and Means(2014). Child welfare legislative histor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greenbook.waysandmeans.house.gov//book/export/html/303> (검색일: 2015.6.5).
- Cook, H.(2014). 10000 children dropping out of school. available from <http://www.theage.com.au/victoria/10000-children-dropping-out-of-school-20140511-zr9me.html> (검색일: 2015.5.26).
- ETS(2015). Dropping out of high school: Prevalence, risk factors, and remediation strategies. <http://www.ets.org> (검색일: 2015.6.5).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ives(2013). Educating children in foster care: State legislation, 2008-2012. <http://www.ncsl.org> (검색일: 2015.6.5).
-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Network(2015). [http:// dropoutprevention.org/services-certifications/partner-lead-agency for grants](http://dropoutprevention.org/services-certifications/partner-lead-agency-for-grants) (검색일: 2015.6.15).
- NCSL(2015). Homeless and runaway youth. <http://www.ncsl.org/print/educ/Spforum08Wells.pdf> (검색일: 2015. 6. 8).
- NCSL(2015). Fostering connections act: State action.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fostering-connections-state-action.aspx> (검색일: 2015.6.5).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5). <http://www.ons.gov.uk/ons/rel/lms/young-people-not-in-education-employment-or-training-neets-/may-2015>

- /stb---young-people-not-in-education-employment--training--neet----may-2015.html (검색일: 2015.6.25).
- The National Runaway Switchboard(2015).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homeless-and-runaway-youth.aspx> (검색일: 2015.6.8).
- U.S. Department of Education, & Federal Trio Programs(2008). A profile of the Federal TRIO programs and child care access means parents in school program, <http://www.edpubs.org>. www.ed.gov/oep/trio/ (검색일: 2015.6.5).
- http://edu.cyber.hs.kr/servlet/controller.homepage.MainServlet?p_process=befeschool (검색일: 2015.4.7).
-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197&nttId=1937(검색일: 2015.4.10).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528-00000020-asahi-pol> (검색일: 2015.6.5.).
- <http://kjpa.or.kr/sub.asp?cate1=2> (검색일: 2015.5.7).
- <http://www.education.vic.gov.au/school/teachers/support/Pages/tell.aspx> (검색일: 2015.5.27.).
- <http://www.esperanzahp.jp/> (검색일: 2015.6.5).
- <http://www.e-sodan.metro.tokyo.jp/works/restart/index.html> (검색일: 2015.6.5.).
- http://www.gotoschool.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7&menu_nix=9Ui9TSug (검색일: 2015.4.14).
- <http://www.jarip.or.kr/userSite/index.asp> (검색일: 2015.5.8).
- <http://kjpa.or.kr/sub.asp?cate1=2&cate2=2> (검색일: 2015.5.7).
- https://www.kyci.or.kr/cooperation/cooperation01_1.asp (검색일: 2015.4.14).
- https://www.kyci.or.kr/cooperation/cooperation01_2.asp (검색일: 2015.4.27.).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검색일: 2015.6.20.).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56/contents> (검색일: 2015.6.25).
-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siryo/attach/1286947.htm
(검색일: 2015.6.5).
- http://www.mext.go.jp/a_menu/shotou/futoukou/main.htm (검색일: 2015.6.5).
-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4121502/025.htm (검색일: 2015.6.5).
-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4121502/06041201.htm (검색일: 2015.6.5).
- <http://www.mhlw.go.jp/kokoro/youth/> (검색일: 2015.6.5).
- http://www.mhlw.go.jp/kokoro/youth/consultation/window/window_02.html (검색일: 2015.6.5).
- <http://www.moel.go.kr/policyinfo/reclamation/view.jsp?cate=3&sec=3> (검색일: 2015.5.6).
- <http://www.ncsl.org/print/educ/Spforum08Wells.pdf> (검색일: 2015.6.8).
-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homeless-and-runaway-youth.aspx> (검색일: 2015.6.8).
- <http://www.npotoybox.jp/> (검색일: 2015.6.5).
- <http://www.vcaa.vic.edu.au/pages/schooladmin/vsn/index.aspx> (검색일: 2015.5.28).
- http://www.work.go.kr/intern/busi/emp_busiInfo.do (검색일: 2015.6.26).
- <http://www.work.go.kr/pkg/index.do> (검색일: 2015.5.6).
- http://www.youthjahwal.org/bbs/board.php?bo_table=sub01_02 (검색일: 2015.5.8).
-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law_s2.pdf#search='%E5%85%90%E7%AB%A5%E8%8B%A5%E8%80%85%E8%82%B2%E6%88%90' (검색일: 2015.6.5.).

.....

부 록

부 록

◎ 설문지(학교 밖 지원센터 종사자)

<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좋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책연구지원 || ☎
신정민 위촉연구원 || ☎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는 분은 아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약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날 짜 : 2015년 월 일

성 명 : (인)

기관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소재 지역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산어촌				
접도별 개원 시기	_____년 _____월		유형	1 시도 센터	2 시군구 센터		
종사자 현황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자원봉사자 제외		
법인 유무	1 지자체과영	2 사회복지 법인	3 재단법인	4 사단법인	5 기타		

조사표 작성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 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해 주십시오.
- ▣ 주된 응답은 1개만 기입해 주십시오.



다음은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조사 시점 현재 귀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남자 : _____명 ② 여자 : _____명

2 최근 일 년(2014년 7월~2015년 6월) 동안 귀 기관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이용 횟수가 1회 이상인 청소년들의 경우도 한 명으로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남자 : _____명 ② 여자 : _____명

3 최근 일 년 동안 귀 기관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출생연도)	인 원	
1. 만 11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자)	①남자 : _____명	②여자 : _____명
2. 만 12~14세(2000년 ~ 2002년 출생자)	①남자 : _____명	②여자 : _____명
3. 만 15~17세(1997~1999년 출생자)	①남자 : _____명	②여자 : _____명
4. 만 18세 (1996년 출생자)	①남자 : _____명	②여자 : _____명
5. 만 19세(1995년 출생자)	①남자 : _____명	②여자 : _____명
6. 만 20세 이상(1994년 이전 출생자)	①남자 : _____명	②여자 : _____명

4 최근 일 년 동안 귀 기관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각 교육별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학업 중단 시기	인 원	
1. 초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①남자 : _____명	②여자 : _____명
2. 중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①남자 : _____명	②여자 : _____명
3.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①남자 : _____명	②여자 : _____명

5 최근 일 년 동안 귀 기관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경제적 상황	인원
1. 상	_____명
2. 중	_____명
3. 하	_____명
4. 기초생활수급자	_____명
5. 파악 안 됨	_____명

6 최근 일 년 동안 귀 기관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을 경험한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 한 명이 여러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각각의 상황에 모두 포함하여 주십시오.

경로	인원
1.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자(보호자 감호 위탁, 수감명령, 보호관찰 등)	_____명
2. 우울, 불안, 자살시도	_____명
3. 파잉행동, 주의력 결핍 등 문제행동	_____명
4. 인터넷 및 게임 중독	_____명
5. 음주, 흡연, 약물 중독	_____명
6. 학교폭력(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 피·가해자	_____명
7. 성범죄 피·가해자	_____명
8. 가정폭력(학대 및 방임) 피·가해자	_____명
9. 의료지원이 필요한 신체적 장애 및 질환자	_____명
10. 파악 안 됨	_____명

7 최근 일 년 동안 귀 기관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 한 명이 여러 유형에 속한 경우 가장 최근의 주요 유형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경로	인원
1. 학업형: 대안학교나 학원 등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청소년	_____명
2. 근로형: 학업을 중단하고 직업 훈련 및 취업 쪽으로 결정한 청소년	_____명
3. 혼합형: 취업을 우선시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 등 학력 취득을 준비하는 청소년	_____명
4. 유예형: 미래에 대한 결정이나 목표 및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_____명
5. 비행형: 권로에 대한 결정이나 계획 없이 일탈 및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	_____명
6. 파악 안 됨	_____명

8 최근 일 년 동안 귀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발탁된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경로	인원
1. 학교(Wee 클래스)를 통해서	_____명
2. 교육청(Wee 센터)을 통해서	_____명
3.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해서(보호관찰소 등)	_____명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를 통해서	_____명
5.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_____명
6.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관, 그룹홈, 양육시설 등)을 통해서	_____명
7. 청소년시설(문화의 집, 수련관 등)을 통해서	_____명
8.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_____명
9. 전화·문자·사이버 상담 등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옴	_____명
10. 가족 소개로	_____명
11. 친구 소개로	_____명
12. 기타 _____	_____명
13. 파악 안 됨	_____명



다음은 귀 기관의 활동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9 올해(2015년) 귀 기관이 예산을 지원받은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금액	비율
국고보조비	_____원	_____%
지방비	_____원	_____%
기타	_____원	_____%
계	_____원	100 %

10 올해(2015년) 귀 기관의 예산 집행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금액	비율
인건비	_____원	_____%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_____원 _____%
	외접 지원비	_____원 _____%
관리운영비	_____원	_____%
계	_____원	100 %

11 올해(2015년) 귀 기관이 목표한 서비스 제공 인원 및 성과 달성 인원은 각각 몇 명입니까?

1. 서비스 제공 인원	2. 목표 달성 인원
_____명	_____명

12

다음과 같은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귀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안내)한 적이 있습니까?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면, 제공(안내) 여부	
	모른다	안다		있다	없다
1.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위기 청소년 대상)	1	2	⇒	1	2
2. 청소년증 발급(청소년 대상)	1	2	⇒	1	2
3.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위기 청소년 대상)	1	2	⇒	1	2
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위험군 위기 청소년 대상)	1	2	⇒	1	2
5. 청소년 쉼터(가출 청소년 대상)	1	2	⇒	1	2
6. 방송통신 중고등학교(학교 밖 청소년 대상)	1	2	⇒	1	2
7.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학교 밖 청소년 대상)	1	2	⇒	1	2
8. 복성화 및 대안학교(학교 밖 청소년 대상)	1	2	⇒	1	2
9. 숲체험 캠프: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위기 청소년 대상)	1	2	⇒	1	2
10. 취업사관학교(학교 밖 청소년 대상)	1	2	⇒	1	2
11. 취업성공패키지(비권한 미취업 청소년 대상)	1	2	⇒	1	2
12. 취업청년인턴제(비권한 미취업 청소년 대상)	1	2	⇒	1	2
13. 자립생활관(소년별 및 비행/위기, 시설퇴소 청소년)	1	2	⇒	1	2
14. 창업보육사업(소년별 및 비행/위기 청소년 대상)	1	2	⇒	1	2
15. 사회정착지원센터(소년별 및 비행/위기 청소년 대상)	1	2	⇒	1	2
16. 청소년자활지원(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1	2	⇒	1	2
17. 두지개청소년센터(다문화 청소년 지원)	1	2	⇒	1	2
18.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탈북 청소년 지원)	1	2	⇒	1	2

13

최근 일 년(2014년 7월~2015년 6월) 동안 다음 서비스 중 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이를 이용한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서비스	서비스 여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 청소년 수
	안 한다	한다		
1. 학업중단 숙려상담	1	2	⇒	명
2. 생활 및 지원정책 관련 정보 제공(복합열차, 취업 정보 등)	1	2	⇒	명
3. 교육 지원(복고,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지원)	1	2	⇒	명
4. 직업 및 취업 지원(직업 훈련, 진로교육활동, 취업 지원 등)	1	2	⇒	명
5. 경제적 지원(자립정착금, 급식비, 학원비, 주거비 등)	1	2	⇒	명
6. 각종 검사(성격검사, 적성검사 등)	1	2	⇒	명
7. 상담 및 정서 지원(멘토링 포함)	1	2	⇒	명
8. 의료·건강 지원(건강진단 포함)	1	2	⇒	명
9. 법률 지원	1	2	⇒	명
10.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1	2	⇒	명
11. 가족 및 부모 교육 지원	1	2	⇒	명
12. 기타 _____	1	2	⇒	명

14 다음과 같은 지원서비스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1. 실려 상담 및 정서 지원	1	2	3	4
2. 각종 검사 지원(심리검사, 적성검사 등)	1	2	3	4
3. 학업 지원(학습지원, 복학·대안학교·점점고시 연계)	1	2	3	4
4. 법률 지원(민변협회, 경찰, 법원 관련 자문)	1	2	3	4
5. 의료·건강 지원(건강관리)	1	2	3	4
6. 경제적 지원(자립정착금, 급식비, 학원비, 주거비 등)	1	2	3	4
7. 취업 지원(고입훈련, 자격증 취득, 진로교육 등)	1	2	3	4
8. 가족 및 부모 교육 지원	1	2	3	4
9.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1	2	3	4
10. 생활 및 정책 관련 정보 제공	1	2	3	4
1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1	2	3	4
12. 대학진학 지원(대학입학설명회 등)	1	2	3	4
13. 기타 _____	1	2	3	4

14-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필요한 공간을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현재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도 포함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① 자율학습실 | ② 정보검색실(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공간) |
| ③ 고입 체험실 | ④ 동아리 활동실 |
| ⑤ 운동 및 체력 단련실 | ⑥ 휴게 공간(카페테리아) |
| ⑦ 상담실 | ⑧ 교육 및 활동실 |
| ⑨ 보건실 | ⑩ 기타 _____ |

15 귀 기관의 위치 및 시설은 어떻습니까?

외적 조건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센터는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다.	1	2	3	4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충분하다.	1	2	3	4
3. 청소년들이 활동시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나 도구가 충분하다.	1	2	3	4

16

각 단계에서 각 기관들과의 연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연계란 정보교환, 대상자 의뢰 및 공동관리, 기관 및 서비스 상호 이용, 공동사업 운영, 업무 관련 회의 및 도움을 주고받는 교류 일체를 포함합니다.

※ 지원(이용)단계란 현재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연계(퇴소)단계란 취업이나 진학, 주거 이전 등을 이유로 꿈드림 센터를 떠나 다른 기관 및 시설로 연계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기관	지원(이용) 단계			연계(퇴소)단계		
	부족	보통	충분	부족	보통	충분
1. 학교(Wee class)	1	2	3	1	2	3
2. 교육청(Wee 센터)	1	2	3	1	2	3
3. 법원, 법정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등)	1	2	3	1	2	3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1888 포함)	1	2	3	1	2	3
5. 청소년 쉼터	1	2	3	1	2	3
6.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양육시설 등)	1	2	3	1	2	3
7. 청소년시설(문화의 집, 수련관 등)	1	2	3	1	2	3
8. 경찰서(파출소 등)	1	2	3	1	2	3
9.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1	2	3	1	2	3
10. 시·군·구청	1	2	3	1	2	3
11. 복지기관(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	2	3	1	2	3
12. 기타 _____	1	2	3	1	2	3

17

다음과 같은 홍보방법에 있어서 귀 기관의 이용정도는 어떠합니까?

방법	하지 않는다	부족	보통	충분
1. 지식정보 포털(네이버, 다음 등)	1	2	3	4
2. 스마트폰 앱	1	2	3	4
3. 연계 기관(학교, 경찰서 등) 방문을 통한 홍보	1	2	3	4
4. 홍보물(포스터, 전단지 등) 부착 및 배부	1	2	3	4
5. 길거리 홍보(전광판, 현수막, 버스 및 지하철 광고)	1	2	3	4
6. 지역 언론 매체(지역 신문, 소식지 등)를 통한 광고	1	2	3	4
7. 아웃리치	1	2	3	4
8. 이벤트 실시 및 행사를 통한 홍보	1	2	3	4
9. 기타 _____	1	2	3	4



활동센터 종사자의 현황 및 업무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8 작성자의 기본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작성자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작성자 연령	만 ()세
3. 작성자의 직급	① 시설장 ② 관리직(팀장) ③ 선임실무자 ④ 실무자		
4. 작성자의 근무기간	현 시설 _____년 _____월/ 현 시설 포함 청소년 관련 기관 총 근무기간 _____년 _____월		
5. 작성자의 전공	① 사회복지학 ② 청소년학 ③ 교육학 ④ 기타 _____		
6. 자격증 소지 현황	※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중복 응답 ① 사회복지사 1급 ②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③ 청소년상담사 1급 ④ 청소년상담사 2급 또는 3급 ⑤ 청소년지도사 1급 ⑥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3급 ⑦ 교사(유치원, 보육교사 포함) ⑧ 기타()		

19 귀하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항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지역 내 연계 체계 구축 및 조정 담당 기구가 잘 마련되어 있다.	1	2	3	4
2. 귀 센터와 지역 내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기관이 충분히 있다.	1	2	3	4
3. 귀 센터에 대한 지역 내 인지도가 높다.	1	2	3	4
4. 지원 내용을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1	2	3	4
5.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6.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및 가족을 의뢰할 기관이 있다.	1	2	3	4
7.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기 보다는 의뢰받는 경우가 많다.	1	2	3	4
8. 청소년의 변화 및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	1	2	3	4
9. 업무를 통해 나의 잠재력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다.	1	2	3	4
10. 해당 업무 내에서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	1	2	3	4
11.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다.	1	2	3	4
12. 업무 시간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	1	2	3	4
13. 보수 규정에 만족한다.	1	2	3	4
14. 복리 후생 제도에 만족한다.	1	2	3	4

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및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셔 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icient Method of Supporting Out-of-School Youth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that youths are currently facing outside the school and the demands for policies that we need to resolve such difficulties and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upporting policies for out-of-school youths, to come up with policy tasks for systematizing supporting policies. Therefore, this thesis analyzed the concept of youths outside the school and estimated its size and characteristics through document researches, as well as analyzed the supporting policies wanted by out-of-school youths and conducted field researches through interviews, surveys and meetings held for out-of-school youths and field workers.

Through these research processes,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out-of-school youths faced difficulties arising from poor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life, while also had a high possibility of showing delinquency behaviors with unstable tendencies in the emotional aspect.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not all of the out-of-school youths'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placed in terrible conditions because they are divided into several parts. Also, since it is possible that the out-of-school youths' plan for the future may change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or the change in environment depending on individual differences and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to them, so that the experience of academic interruption with neutral value can be taken as an opportunity to help grow oneself by identifying the circumstances that they are placed in. However, currently the supporting policies for out-of-school youths show a tendency to be segmented, including the separation of out-of-school

youths from at-risk youths, the diversification of departments, agencies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in charge of support policies and the insufficiency in information sharing and connection with other agencies and institutions, which is why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ore integrated and continuous policies by discovering the segmentation tendencies in supporting policies. Also,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which is the key institution for providing services to support out-of-school youths and currently in the early stage of operation, such as the lack of community networking, the poor treatment for field workers, and the inadequacy of accessibility, facilities and equipmen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four aspects of policy tasks were suggest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criteria for establishing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the database for establishing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cused on the beneficiary of policy, the readjustment of the delivery system for systematizing the services for supporting out-of-school youths , and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environment for preventing and supporting out-of-school youths, while also provided detailed tasks for each policy task in addition.

Keywords: out-of-school youths,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out-of-school youth supporting policies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연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Ⅰ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좌동훈·강경균·김정숙·황세영·문호영·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최창욱

수 락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유성렬·임성택·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이유진·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
- 15-R44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김형주·박성재·민주홍·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이종원·유성렬·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정은주·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집필진(가나다순)

-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송민경(경기대학교 교수)
- 최현주(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박사과정 수료)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순)

- 강현경(고용노동부 사무관)
- 구미현(교육부 주무관)
- 김계명(대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김기환(법무부 사무관)
- 김성현(울산 꿈드림센터 팀장)
- 맹주성(안양 꿈드림센터 센터장)
- 문남억(청주시 꿈드림센터 팀장)
-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박주성(강남 꿈드림센터 상담원)
- 서선미(안양시 꿈드림센터 팀장)
- 송민경(경기대학교 교수)
- 송진우(여성가족부 사무관)
- 신내은(여성가족부 사무관)
-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 유수연(교육부 사무관)
- 윤용범(법무부 사무관)
- 윤정미(전북 꿈드림센터 팀장)
- 이민철(울산 꿈드림센터 팀장)
- 이승묵(복지부 사무관)
- 이용욱(교육부 사무관)
- 이혁(법무부 주무관)
- 지승희(고려사이버대 교수)
- 진선희(고용노동부 사무관)
- 차인숙(구로 꿈드림센터 팀장)
- 채관병(대전 꿈드림센터 직원)
- 최연수(송파구 꿈드림센터 센터장)
- 최현주(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
- 탁수연(인천 남구 꿈드림센터 센터장)
- 현선미(서울 꿈드림센터 팀장)
- 황영숙(교육부 사무관)

연구보고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57-1 93330

